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제32회 학술심포지엄

일시 : 2013年 3月 22日 (금) 13 : 20 ~ 17 : 50

장소 : 단국대학교 퇴계기념도서관 세미나실

주최 :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후원 : 단국대학교

초대의 말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봄입니다. 가내 평안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에서는 오는 3월 22일(금)에 제32회 학술심포지엄을 단국대학교 퇴계기념도서관 세미나실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심포지엄은 한국의 연구자들께서 <한일 근현대 전쟁영웅의 창조>이라는 기획 테마를 가지고 평소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연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다음과 같이 안내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3월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소장 정 형

단 국 대 학 교 일 본 연 구 소
Institute of Japanese Studies Dankook University

■ ■ 제32회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학술심포지엄 ■ ■


사회 : 김정희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학술연구교수)

13:20~13:40 접수 및 등록
13:40~13:50 개회사 (정형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소장)

◆ 기획주제 : 한일 근현대 전쟁영웅의 창조

- 13:50~14:10 기조발표 1
일본 전쟁영웅의 내러티브 연구
: 정 형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 14:10~14:35 일본근대문학과 '집단 전쟁 영웅' 15
: 서재곤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어통번역학과)
지정토론 - 임용택 (인하대학교 국제언어문화학부 일본언어문화)
- 14:35~15:00 거북선이라는 외피와 난중일기라는 내면 : 1931년 여름, 『동아일보』와
이광수를 중심으로 26
: 김성연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지정토론 - 장신 (역사문제연구소)
- 15:00~15:15 Coffee Break
- 15:15~15:40 태평양 전쟁 시기 전쟁 영웅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38
- 가미가제 특공대와 9군신을 중심으로
: 길윤형 (한겨레신문 국제부)
지정토론 - 이형식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 15:40~16:05 전후 일본과 도조 히데키 : 사상, 문학, 영화에 표상된 도조상의 메타폰 50
: 노병호 (한림대학교 일본학과)
지정토론 - 유지아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 16:05~16:15 휴식
- 16:15~17:50 종합토론 66
사회 - 박용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어대학)
토론 - 정형, 서재곤, 김성연, 길윤형, 노병호
지정토론 - 임용택 (인하대학교 일본언어문화)
장 신 (역사문제연구소)
이형식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유지아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Reception



기조발표

일본 전쟁영웅의 ‘내러티브’연구

-근세기 이후 유사 내셔널리즘의 변용과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Narratives of " Japanese War Heroes"

- Focusing on the Transformation process of Similar Nationalism after Premodern Japan -

정 형(단국대일본연구소장)

◆ 한국연구재단 2011년도 인문사회분야 기초연구분야 선정과제

·공동연구자 총 8명(박사급연구원 3인)

·연구책임자 : 정 형(단국대)

·공동연구자 : 서재곤(한국외대), 한경자(경희대), 이권희(단국대), 김정희(단국대)
노병호(한국외대), 윤석상(한국외대), 조혜숙(단국대)

1. 연구개요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오늘날 사람과 문화의 자유로운 월경(越境)을 통한 수많은 지식과 정보, 나아가서는 문화의 공유라는 트랜스내셔널리즘(trance-nationalism) 사상의 발흥과 확산은, 이문화의 혼교(混交)와 글로벌한 경제 공동체 형성을 배경으로, 일국 중심적 편협한 내셔널리즘을 지양하며, 실현 가능한 공동체적 문화의 창출과 새로운 역사인식의 구축을 통해 초역적 문화공동체의 창출과 공유라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이질 않는 영토분쟁, 자국 중심적 역사의 왜곡, 동북공정과 험한류, 스포츠내셔널리즘 등, 이른바 내향적 내셔널리즘을 자극하는 요인 또한 강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과제 (일본 전쟁영웅의 '내러티브' 연구)는 1990년대 이후 급격히 대두되고 있는 일본 내 네오내셔널리즘(neo-nationalism)의 확산을 배경으로, 국가적 애착 및 민족적 자긍심을 강조하는 사회통합의 방법으로서 이용되어 온 공동체적 전쟁영웅이, 근세기 이후의 현재에 이르기까지 문학텍스트와 미디어·영상물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의 '내러티브(narrative)'를 통해 어떻게 창출되고 변용되어 왔는지를 체계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주로 다룰 '내러티브'는 문학텍스트는 물론, 미디어나, 영화, 연극, 음악 등의 모든 표현방식을 통해 전해지는 '이야기'와 '담론'이라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한다.

현대사회는 외적 환경이 유사해짐으로서 나타나는 사상과 이념의 수렴현상 속에서, 통합의 주체로 자리매김 하기 위한 공동체적 가치의 창출과 확산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다. 이에 과거의 분열과 갈등해결을 위한 기제로서의 공동체적 전쟁영웅이 일본사회의 통합에 어떻게 자리매김 되어 왔는가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통해 '우리'라는 집단적 아이덴티티의 형성과, 우리와 다른 타자를 구별하는 국가적 애착 및 민족적 자긍심을 강조하는 일본사회의 통합의 논리를 규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또한 다문화사회로 점철되고 있는 현대 일본 사회에 있어 공동체적 전쟁영웅에 대한 재발견이, 일본의 전통적 가치 및 일본문화의 확산, 또는 정치적·사회적 주체형성을 위한 도구로서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은, 앞으로도 반복될 유사(類似) 내셔널리즘의 예측과 함께 일본인의 에스니시티(ethnicity)를 분석하는 하나의 단초를 제공해줄 것이라 확신한다.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급속한 경기침체로 인한 전후 최대의 위기의식과, 강한 일본을 표방했던 고이즈미(小泉)·아베(阿倍)로 이어지는 극우성향 내각의 출현 속에서 중전의 '자학사관(自虐史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높아 갔다. 도쿄대(東京大) 교수 후지오카 노부카쓰(藤岡信勝)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주의사관(自由主義史觀)'에 의한 역사인식은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新しい歴史教科書をつくる会)'의 모태가 되었으며, 후지와라 마사히코(藤原正彦 2005), 고바야시 요시노리(小林よしのり 2008) 등, 무조건적으로 일본을 찬미하는 일련의 저서들의 유행은, 탈영역·탈경제적 트랜스내셔널리즘의 확산 이면에 여전히 자국 중심적 내셔널리즘이 뿌리 깊게 존재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것은, 종래의 일본 민족주의는 전통적 보수사상에 기인했던 것으로, 그 주창자와 찬동자 또한 극히 일부의 극우주의자나 극우단체에 한정되어 있었던 것에 비해,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일본의 네오내셔널리즘(neo-nationalism) 현상은 각계각층의 폭 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일반대중과 젊은이들로부터도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이것은 전란(戰亂)을 소재로 한 역사·전쟁소설의 유행이나, 이를 원작으로 하는 전란 속 전쟁영웅들을 소재로 한 영화나 대하드라마, 공연예술의 제작 등, 종래에는 주로 문학텍스트를 중심으로 하여 만들어진 내러티브에 더해 미디어나 영상매체, 공연예술물 등을 통해 형성된 다양한 '내러티브'가 시간과 공간의 균질화를 가능케 했기 때문일 것이

다. 거기에다가 1990년대 이후 이어지고 있는 장기불황 속에서 단편화 되어가는 개인의 아이덴티티를 통합하며, 불안감을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을 가져다주는 매개체로써 공동체적 전쟁영웅을 중심으로 하는 내러티브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오늘날 트랜스내셔널리즘이라는 탈경계적 문화공동체 형성이 그 어느 때보다 주목을 받고 있기는 하나, 어느 시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모든 가치를 초월하여 온 국민의 사상과 이념을 하나로 통합해 왔던 것은 민족주의, 즉 내셔널리즘이라는 궁극적 가치였다. 일본의 민족주의는 근세시대의 국학(國學)의 발흥에 의한 존황(尊皇)사상에 의한 황국론(皇國論)을 사상적 근거로 삼아, 군국주의·제국주의로 치닫는 격동의 근대시대에 그 절정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일본의 내셔널리즘은 7, 8세기의 고대시대로부터 21세기 현재에 이르기까지, 표현 방법과 정도의 차는 있었을지언정 영구불변의 가치와도 같은 국민통합의 기제로써 작용했으며, 그 중심에는 언제나 공동체적 전쟁영웅의 존재가 있었다. 특히 사회가 불안해지거나 전쟁 등으로 인한 국가의 안태(安泰)가 위태로울 때 초인적 인물로서의 영웅이 요구되었으며, 한번 전쟁영웅으로 창출된 후에는 시공을 초월하여 수많은 전승과 소문이 만들어지고, 그 행위를 확대·과장시켜가며 결국에 가서는 신(神)과 같은 존재로서 사회 통합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과제 (일본 전쟁영웅의 '내러티브' 연구)에서는, 근세기 이후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전쟁영웅의 창출과 변용, 그리고 수용 양상에 대한 통사적·통시적 접근을 통해 현대 일본·일본인의 정체성과 그 한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자국중심의 보수적 사상과 이념 형성에 문학텍스트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가 어떻게 작용해 왔는지를 밝혀낼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1) 근세와 근·현대의 문학텍스트, 2) 신문·잡지를 포함하는 미디어 영역과 영화를 중심으로 하는 영상매체, 3) 가부키, 조루리와 같은 전통 극예술을 중심으로 하는 공연예술 영역에서 창출·변용된 내러티브의 철저한 분석을 목표로 한다.

1-2 개별연구주제

연구주제 1 도른 전쟁 영웅상의 창출, 변용의 사상적 배경

도른에서는 국민통합의 기제로써의 전쟁영웅이 창출·변용되는 역사적 배경, 사상적 근원에 대한 이론적 방법을 제시한다. 그 범위는 근세시대부터 근대, 현대를 아우르는 것으로, 각 시대마다 영웅으로 추앙받는 인물들은 일본의 무사도와 맞물려 창출, 변용된다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따라서 기존의 무사도, 무사상이 변용되는 필연성을 명백히 하여 문학 텍스트, 미디어 분석을 진행한다.

연구주제 2 존황·충의의 영웅

본 세부과제에서는 무사의 대두로 인해 생겨난 문학장르인 군키모노가타리(軍記物語)에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된 인물들이 에도시대, 메이지시대를 거치며 변용, 재해석되어 가는 과정에 대해 고찰한다.

중근세사의 연구의 진전과 가치관의 변화를 고려하며, 영웅으로서의 창출과 에도시대 산문과 극문학에서 당대성을 가미하며 변용되는 과정,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시대상과 가치관에 따라 어떻게 재평가되어 가는가에 대해서 역사서와 교과서, 고전문학텍스트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주제 3 평정·통합의 군신영웅

본 세부 연구과제에서는 전근대에 있어서 군신으로 숭배 받았던 경위와 근세,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시대상과 가치관에 따라 어떻게 재평가되어 가는지 역사서와 고전문학텍스트, 현대 소설텍스트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제	연구대상 영웅	텍스트
연구주제 2 존황, 충의의 영웅	新田義貞 楠木正成 足利尊氏	『吾妻鏡』 『玉葉』 『日本外史』 『神皇正統記』 『太平記』 『保元物語』 『椿説弓張月』 『源氏冷泉節』 『楠昔噺』 『太平記評判秘伝理尽抄』 『南北軍問答』 『吉野都女楠』 『新・平家物語』 (吉川英治)
연구주제 3 평정·통합의 군신영웅	武田信玄 織田信長 豊臣秀吉 徳川家康	『信州川中島合戦』 『信長公記』 『信長記』 『祇園祭礼信仰記』 『時今也桔梗旗揚』 『楼門五三桐』 『天正記』 『太閤記』 『繪本太閤記』 『本朝三國志』 『繪本太功記』 『風林火山』 (井上靖) 『信長』 (坂口安吾) 『新史太閤記』 (司馬遼太郎) 『新書太閤記』 (吉川英治) 『徳川家康』 (山岡莊八)

연구주제 4 신격화된 전쟁영웅

많은 근대기 전쟁영웅 가운데 개인에 초점을 맞추어 히로세 다케오(広瀬武夫), 노기 마레스케(乃木希典), 야마모토 이소로쿠(山本五十六), 니시즈미 고지로(西住小次郎)에 대해 고찰하기로 한다. 근대기 전쟁영웅들이 군신으로 신격화되는 과정, 당시의 표상, 그리고 각 시대별 영웅의 평가양상과 군신에 대한 인식변화 등에 대해 문학텍스트와 미디어를 중심으로 분석·고찰한다. 리일전쟁에서 대두된 전쟁영웅은 1970년대 전후, 태평양전쟁에서 주목받았던 전쟁영웅은 1980년대 중반이후에 드라마, 영화, 소설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재조명된다. 따라서 근대기에 전쟁영웅으로 추앙받았던 이들의 평가양상과 군신에 대한 인식변화에 관해서는 태평양전쟁 종전 직후, 다시금 미디어를 통해 재조명된 1970-80년대, 극우세력에 의해 네오내셔널리즘이 대두된 1990년대 이후로 크게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주제 5 집단전쟁영웅과 일본정신

본 세부 연구과제에서는 근대기 전쟁영웅 가운데 집단전쟁영웅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전쟁기 집단전쟁영웅의 창출과정을 통해 일본정부의 국민통합양상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현대일본 사회가 그 누구도 정확히 전사 상황을 알 수 없는 집단전쟁영웅들에게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어떠한 점을 주목하고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트랜스내셔널리즘과 네오내셔널리즘이 병존하는 현대사회에서 재조명되는 집단전쟁영웅의 의의를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 세부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육탄삼용사, 인간어뢰 가이텐, 특별특공대 가미가제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구군신은 집단전쟁영웅을 연구함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만, 이들을 제재로 한 문학텍스트를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본 연구과제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이들 근대기



집단전쟁영웅들이 창출되는 과정, 당시의 표상 등에 관해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시대별 영웅의 평가양상과 군신에 대한 인식변화를 문학텍스트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대중에게 미친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집단전쟁영웅이 등장하는 영화와 드라마도 분석대상에 포함시켜야 하지만, 영화와 드라마가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1년이라는 짧은 연구기간을 고려하여 문학텍스트로만 연구대상을 한정하기로 한다.

주제	연구대상 영웅	텍스트
연구주제 4 신격화된 전쟁영웅	広瀬武夫 乃木希典 山本五十六 西住小次郎	司馬遼太郎 『坂の上の雲』, 児島襄 『日露戦争』, 高橋安美 『軍神広瀬武夫の生涯』, 桜田啓 『広瀬武夫旅順に散った「海のサムライ」』, 江藤 淳 『海は甦える』, 司馬遼太郎 『殉死』, 古川 『軍神』, 夏目漱石 『ころ』, 森鷗外 『興津弥五右衛門の遺書』, 森鷗外 『阿部一族』, 桜井忠温 『將軍乃木』, 芥川竜之介 『大乃木』, 芥川竜之介 『將軍』, 渡辺淳一 『静寂の声』, 柳田 邦男 『零戦燃ゆ』, 菊池 寛 『西住戦車長伝』, 司馬遼太郎 『軍神・西住戦車長』
연구주제5 집단전쟁영 웅과 일본정신	肉弾三勇士 回天 神風	池上司 『雷撃深度一九・五』, 横山秀夫 『出口のない海』, 荻原浩 『僕たちの戦争』, 吉村昭 『幕府軍艦「回天」始末』, 阿川弘之 『雲の墓標』, 坂口安吾 『真珠』, 城山三郎 『指揮官たちの特攻 ~幸福は花びらのごとく』, 高木俊朗 『陸軍特別攻撃隊』, 長谷川康夫 『君を忘れない』, 今井雅之 『THE WINDS OF GOD』, 毛利恒之 『月光の夏』, 辺見じゅん 『小説 男たちの大和』, 熊谷達也 『群青に沈め~僕たちの特攻』, 神山圭介 『英霊たちの応援歌 最後の早慶戦』 조루리 「三勇士名誉肉弾」

연구주제 6 일본사회의 우경화와 전쟁영웅의 부활

본 세부과제에서는 1945년 일본 패망 이후 현재에 이르는 전쟁영웅의 내러티브의 창출과 변용에 대해, 주로 전쟁소설과 이를 원작으로 만들어진 전쟁영화, 거기에 미디어를 포함한 각종 매체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특히 1990년대 이후 나타나는 일본사회의 '우리'라는 집단적 아이덴티티 형성에 전쟁과 전쟁영웅의 내러티브가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또한 어떠한 방식으로 이를 조작·강화해 왔는지를 철저히 규명할 것이다.

주제	연구대상 텍스트	텍스트
연구주제 6 일본사회의 우경화와 전쟁영웅의 부활	전쟁 소설	『二十四の瞳』 『黒い雨』 『俘虜記』 『ルソンの谷間』 『大空のサムライ』 『海と毒薬』 『悪魔の飽食』 『撃墜王坂井三郎零戦に託したサムライ魂』 『大空のサムライ』 研究読本』 『決定版 男たちの大和』 上、下
	전쟁 영화	『トラ・トラ・トラ!』 『零戦燃ゆ』 『出口のない海』 『火垂るの墓』 『ビルマの豎琴』 『きけわだつみのこえ』 『君を忘れない』 『THE WINDS OF GOD』 『男たちの大和/YAMATO』 『俺は、君のためにこそ死ににいく』

2. 현재까지의 연구성과

2-1. 평정·통합의 군신으로서의 오다 노부나가의 영웅화과정

중세시대에서 근세시대로의 전환기에 등장하고 일본의 천하통일이라는 국가 전체의 통합을 실현하려 한 인물이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이다. 그는 천하통일 사업에 가장 큰 저해요인이었던 잇코잇키(一向一揆) 등의 종교세력에 이기기 위해서는 단순히 무력뿐 아니라, 이데올로기에서도 우월해야 함을 인식하여, '天'과 자기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그에게 적대하는 세력의 정당성을 분쇄하려 했다.

오다 노부나가는 아시카가 요시아키(足利義昭)를 옹립하여 간접적으로 천하인(天下人)으로서 통일 사업을 추진한 후에 그를 추방하여, 천하인으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계승하여 통일정책을 추진하였다. 노부나가가 '천하포무(天下布武)'라는 입장을 사용한 것은 잘 알려져 있는데, 이는 오와리(尾張)·미노(美濃)를 평정한후 오기마치(正親町)천황으로부터 "하늘이 감응할 고금무쌍의 명장"이라는 윤지(綸旨)를 받고나서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이 때 노부나가가 생각한 '천하'는 요리토모의 '천하초창(天下草創)'관념에서 비롯된 무로마치장군권한의 계승으로서의 '천하정밀(天下静謐)'에 있었다고 한다. 여기서 '天下布武'란 단순히 무를 가지고 천하를 다스린다는 뜻이 아니었다. '무(武)'는 '칠덕(七德)의 무(武)'로, 칠덕의 무를 갖춘 사람이 천하를 다스려야 한다는 『춘추좌씨(春秋左氏)』의 말을 의식한 것으로 스스로 이상적인 위정자로 자부하는 것이었다.

천하인으로서의 노부나가는 스스로 신격화하였고 또한 타인에 의해서도 신격화가 이루어졌다. 자기 신격화 작업으로는 스스로를 시마즈고즈천왕(鳴津牛頭天王)에 가탁(假託)하여, 아즈치성(安土城)안에 소켄지(摠見寺)를 건립한 것을 들 수 있다¹⁾. 노부나가가 고즈천왕(牛頭天王)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것은 쇼바타계(勝幡系) 오다가문이 번영한 요인을 시마즈(鳴津)을 장악했기 때문으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시마즈의 경제를 좌우하는 시마즈슈(嶋津衆)²⁾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타인에 의한 신격화로는 고후쿠지(興福寺)다문인(多聞院)에서 대대로 쓰여져 온 일기인 『다문인일기(多聞院日記)』 중 1582년 3월 23일 의 기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카와지방(三河国) 묘켄지(明眼寺)의 스님 꿈에 쇼토쿠태자(聖徳太子)가 나타나, 천하는 오다 노부나가가 다스려야 한다고 말하고, 쇼토쿠태자가 미나모토 요리토모(源頼朝)에게 전하여 천하가 통일되어 번영하게 되었다는 아스타신

1) 赤木妙子 「織田信長の自己神格化と鳴津牛頭天王」 『史学』 1991.

2) 고즈천왕(牛頭天王)신앙을 포교하는 은사(御師)이자, 기소강(木曾川)의 수운(水運)을 쥐고 있는 상인이자 무사

사(熱田神社)의 칼(太刀)을 노부나가에게 전하도록 말하는 부분이다³⁾.

또 하나는 『헤이케모노가타리(平家物語)』 권 5 에 헤이시(平氏)에서 겐지(源氏)로, 겐페이(源平) 교체를 암시하는 에피소드로 삽입되어있는 이야기이다⁴⁾. 셋토(節刀)는 적도(敵盜)정벌하러 가는 장군에게 천황이 하사하는 것으로 군사권의 이양을 나타낸다. 또한 동시에 칙명을 지키고, 조정의 수호도 상징한다.

『劍卷』에서 요리토모는 야마토타케루의 환생이라 인식되고 있었고, 야마토타케루는 아쓰타신사에서 쇼토쿠태자와 동일시되는 인물이다. 『다몬인일기』의 꿈이야기는 『劍卷』에서 야마토타케루로부터 요리토모로의 계승을 이야기하는 유향화(類話)라 할 수 있다. 요리토모가 소지한 太刀는 무가의 정통적인 무위(武威)의 표상이었으며, 노부나가가 요리토모의 칼을 물려받는 것은 정통적인 무위를 계승한 것을 암유하고 있는 것이다.

노부나가의 영웅상은 에도시대 메이지시대를 거치며 전시 하에 변용, 재해석되어 간다. 에도시대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에 비해 주목도 받지 못하고, 그다지 긍정적 평가를 받지 못했던 인물이다. 노부나가는 그의 잔인함으로 인해 유교의 기준으로 보면 평가가 낮았다. 그러던 노부나가는 메이지시대에 들어, 그가 행한 천황의 직할지인 고료쇼(御料所) 회복(回復) 등의 업적이 근황가로서의 평가로 이어져, 메이지 2(1869)년에 메이지정부는 노부나가를 모시는 신사건립을 지시하게 된다. 즉, 메이지이후, 다이쇼, 쇼와(중전이전)에 노부나가는 중근세적 명장으로서의 이미지에서 근대적 군신에 걸맞는 근황적인 인물로 군사영웅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2-2. 구스노키 마사시게의 인물상의 변용

『구스노키 마사시게(楠正成)와 삼덕(三德)-명군(明君)으로서의 이미지 형성을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제43집 동아시아일본학회, 2012년 7월

근대이후 구스노키 마사시게(楠正成)는 천황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충신의 대표자로서 칭송받았다. 이 구스노키 마사시게가 등장하는 것은 중세시대의 대표적인 군기모노가타리(軍記物語)인 『다이헤이키(太平記)』이다. 이 작품에는 가마쿠라 막부의 몰락, 천황복권을 꾀한 고다이오 천황(後醍醐天皇)의 겐무의 친정(建武の親政), 그리고 남북조 시대를 거쳐 무로마치 막부의 성립 과정이 그려져 있다. 이 『다이헤이키』 안에서 주목을 받는 인물은 바로 고다이오 천황을 위해 마지막까지 목숨을 건 구스노키 마사시게이다. 다이헤이키 에서의 마사시게는 천황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충신, 그리고 새로운 병법(兵法)을 구사하는 지략가로서 그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삼덕(三德)을 지니고 있는 유일한 인물로 그의 최후에는 많은 부하들이 그를 따라 자결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어 그의 명군(明君)으로서의 면모도 확인해 볼 수 있다⁵⁾. 즉 『다이헤이키』의 시점에서 마사시게는 이미 충신과 지략가, 그리고 명군으로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구스노키 마사시게의 명군으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한 것은 『다이헤이키효반히덴 리진쇼(太平記評判秘伝理尽鈔)』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리진쇼』는 정치가로서 백성을 살피는 구스노키 마사시게가 그려져 있어, 명군 이미지가 확립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⁶⁾.

3) 黒田智 「信長夢合わせ譚と武威の系譜」 『史学雑誌』 2002, 6

4) 堀新 「『平家物語』と織田信長」 『文学』 2002.7, 8月号

5) 『다이헤이키』에서도 구스노키의 명군으로서의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과 당시의 삼덕(三德)의 의미에 대해서는 김정희 「구스노키 마사시게(楠正成)와 삼덕(三德)」 『일본문화연구』 제43집, 2012년을 참고하기 바람

6) 『리진쇼』와 명군의 이미지 형성의 관계에 대해서는 若尾政希 『『太平記読み』の時代』 平凡社, 1999에 자세한 분석이 있다.

이후 에도 시대에는 『다이헤이키』에서 형성된 이미지를 바탕으로 하여 『리진쇼』의 명군으로서 이미지, 충신, 서민들 사이에서는 패러디의 대상이 되는 등 구스노키에 대한 다양한 이미지가 공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다양한 이미지 중 충신으로서의 이미지가 부각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당시의 사상가들과 시대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에도시대 초기부터 하야시 라잔(林羅山)이나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 등이 어린시절부터 『다이헤이키』를 암송하고 있었다는 기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이 무가사회의 필수 독서목록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은 확인된다. 그러나 그들이 구스노키를 충신으로서만 인식하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오히려 명군과 충신의 이미지를 같이 향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무가사회에서의 영향력은 그만큼 컸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구스노키의 다양한 이미지 중 특히 충신으로서의 이미지가 정착한데에는 『대일본사(大日本史)』의 탄생인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⁷⁾. 미토번(水戸藩)의 당주였던 도쿠가와 미쓰쿠니_(徳川光圀)에 의해 편찬되기 시작한 이 역사서는 남북조정운문제(南北朝正閏問題)를 서술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 남북조정운문제는 바로 『다이헤이키』가 그린 시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남조를 수립한 고다이교 천황의 정통성이 이 역사서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구스노키 마사시게는 앞서 언급했듯이 고다이교 천황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인물로, 미쓰쿠니는 『다이헤이키』의 기록을 바탕으로 구스노키 마사시게의 모습을 기술하고 있는데, 특히 『리진쇼』의 기술은 일체 배제한 채, 『다이헤이키』 묘사 중 그의 충신으로서의 활약에 대해서 주로 기술하고 있다. 미쓰쿠니의 사후, 이 수사사업은 미토학자들로 인해 완성되고 이것이 막말(幕末)에 이르러서는 요시다 쇼인(吉田松陰)과 같은 인물들에게 사상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근대기에 들어서도 『대일본사』는 여전히 큰 영향력을 미쳐, 메이지 천황은 남조가 정통임을 인정한다. 따라서 근대기 천황제에 있어서 남조 정통성은 공식화되었으며, 그로 인해 구스노키 마사시게를 모시는 신사가 건립된다. 구스노키 마사시게는 메이지 근대국가가 유교를 바탕으로 한 충효사상을 강조함으로써 천황에 대한 충성을 바친 인물의 대표격으로 국민교육에도 적극 활용된다.

이와 같이 근대기의 구스노키 마사시게의 충신으로서의 이미지는 에도시대부터 진행되어온 역사서술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뿐만 아니라 강담(講談) 등에서 그려진 그의 비극적인 죽음의 과정은 충효정신과 결합되어 대중화되어 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2-3 메이지기(明治期) 국민교육과 전쟁·전쟁영웅-창가(唱歌)교육을 중심으로-

이권희 「메이지기(明治期) 국민교육과 전쟁·전쟁영웅-창가(唱歌)교육을 중심으로-」 『日本學研究』 제37집,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2012년 5월

본 연구의 목적은 근대 일본의 국민국가 형성과 교육이라는 커다란 주제 하에, 메이지기 창가교육의 특성을 살펴보고, 특히 메이지 후기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대두되는 제국주의·군국주의 사상의 형성과 그 구현(具現)의 소재로서의 전쟁영웅의 창출과 수용에 교육, 특히 창가교육이 어떻게 관여하였는가를 명확히 밝히는데 있다.

메이지 신정부는 국가신도(國家神道)적 이데올로기에 바탕을 둔 국체(國體)의 형성과, 국민국가로서의 일본을 지향함에 있어 거기에 속하는 국민들의 통일된 아이덴티티의식을 만들어내는 것을 근대교육의 중요한 과제로 삼았다. 이에 1879년 메이지천황의 이름으로 발표된 '교학성지(教學聖旨)'나 1890년의 '교육칙어(教育勅語)'에서 강조하고 있는 '덕육(德育)'을 통한 '덕성(德性)의 함양(涵養)'이라

7) 『대일본사』의 역사관과 『다이헤이키』의 관계에 대해서는 兵藤裕己 『太平記くよみの可能性』 講談社学術文庫, 2005에 언급이 있다.

는 시대의 가치를 교육 현장을 통해 구현해 갔으며, 문부성창가(文部省唱歌)로 대표되는 창가교육 또한 수신(修身)·국어·역사·지리교육과 함께 '충군애국(忠君愛國)'이라는 시대정신을 고양(高揚)하기 위한 도구, 혹은 매체로써 학교교육에 이용되었다.

메이지 신정부는 학교교육에 창가(唱歌) 과목을 포함시킴으로써 합창을 통한 대동단결(大同團結)의 정신을 강화하고, 특히 메이지 후기에 들어서는 역사상의 영웅과 청일·러일전쟁을 겪으면서 당시의 군국미담(軍國美談)이나 전쟁영웅 등을 소재로 한 창가를 보급한다. 진취적 기상과 전의(戰意)를 고양시키는 노래를 소리 높이 부르며 함으로써 국민의 사기(士氣) 진작과 애국심의 함양, 나아가서 일본·일본인이라는 공동체의식과 연대의식의 강화를 꾀하였던 것이다. 신정부는 국가(國歌) 제창이나 교가, 응원가, 아니면 애창곡 등을 함께 부르며 공유한다는 것이 공동체적 환상을 만들어내고, 때로는 이성(理性)에 기초한 판단력마저 저하시키는 집단적 최면(催眠) 효과가 있다는 것에 주목했다.⁸⁾ 이는 선망과 극복의 대상이기도 했던 서구의 선진 제국(諸國)이 근대국가 형성과정에서 '국민음악'을 만들어내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귀속의식(歸屬意識)과 연대의식(連帶意識)을 고양시켜 나갔던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정부 출범 후 비교적 이른 시기에 '음악교육을 통한 국민사상의 통일을 기초로 하는 국민국가 형성'이라는 음악교육의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였고, 이를 적극 추진할 기관으로 '음악조사계(音樂取調掛)'를 설치하였다. 음악조사계에서는 각국의 음악교육에 관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국악창성(國樂創成)이라는 원대한 포부 하에 음악교육을 위한 인재육성과 교재 편찬에 주력한다. 그 결과 만들어진 『소학창가집(小學唱歌集)』(1882~84), 『유치원창가집(幼稚園唱歌集)』(1887)을 통해 음악을 통한 국민의식의 창출을 실험하였으며, 『심상소학독본창가(尋常小學讀本唱歌)』(1910) 『심상소학창가(尋常小學唱歌)』(1911~14)라는 준 국정창가집 편찬을 통해 이를 공고히 해나갔다.

근대 일본의 교육과정에 창가(唱歌)를 도입한 원래의 목적은, 노래를 통해 '지각심경(知覺心經)'을 활발히 하며 정신을 쾌락하게 만들고, 마음에 감동을 일으켜 즐겁게 함과 동시에 선한 심성을 분기케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메이지기의 창가교육은, 전기의 '정조(情操)'를 중심으로 하는 덕목교육에서 후기로 가면 갈수록 '충군애국(忠君愛國)과 전의(戰意) 고양(高揚)을 위한 도구로 변질되어 갔다. 1894년(明治27) 청일(淸日)전쟁 이후 창가교육은 일대 전환을 맞이하게 된다. 메이지기의 창가교육은 주로 전기의 '정조(情操)'를 중심으로 하는 덕목교육에서 후기로 가면 갈수록 '충군애국(忠君愛國)과 전의(戰意) 고양(高揚)을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전쟁을 소재로 한 군국미담(軍國美談)과 전쟁영웅을 소재로 한 이른바 문부성창가(文部省唱歌)라 불리는 일련의 창가집에 수록되어 있는 창가들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담당했다.

창가교육을 포함한 메이지 전기의 학교교육의 지향점이, 국체의 형성이라는 국민의 공동된 이데올로기 창출과 이를 강제적으로 주입시켜 충실한 신민(臣民) 만들기에 있었다면, 메이지기 중반 이후, 즉 청일전쟁 무렵부터 창가교육을 위한 텍스트에, 충군애국의 사상과 전의고양을 목적으로 창작된 가사를 갖는 노래가 다수 등장하는 것은, 몇 번의 전쟁을 거치면서, 충군애국 정신과 전의 고양을 위한 군국·충용미담을 설파하는, 심리적·정서적 수단으로 창가가 이용되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교과서를 통한 교실 내의 교육은 물론이거니와, 병식(兵式)체조, 운동회 등, 전의고양과 애국심 배양을 위한 다양한 현장에서 도 창가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8) 프랑스혁명 시에는 훗날 국가가 되는 '라 마르세이유' 등, 과격한 가사의 '혁명상송'이라 불리는 노래가 다수 만들어졌다. 혁명군은 물론 시민들이 이러한 노래를 합창하며 혁명의 대열에 참가해 연대감을 느끼며 혁명을 성공으로 이끌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19세기 영국과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합창운동은 유럽 전역으로 퍼져 수많은 시민합창단이 탄생했다. 또한 플라톤은 『국가(The Republic)』를 통해 국가의 지도자는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해 음악에 대한 지식을 갖고 적절한 때에 적절한 음악을 사용하는 것으로 사람의 마음을 컨트롤하고 용감하고 절도 있는 인격을 갖는 젊은이를 키워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것은 유명하다.



広瀬中佐

- 一 轟く砲音 飛来る弾丸
荒波洗ふ デッキの上に
闇を貫く 中佐の叫
「杉野は何処 杉野は居ずや」
- 二 船内隈なく 尋ぬる三度
呼べど答へず さがせど見えず
船は次第に 波間に沈み
敵弾いよいよ あたりに繁し
- 三 今ほとボートに うつれる中佐
飛来る弾丸に 忽ち失せて
旅順港外 恨ぞ深き
軍神広瀬と 其の名残れど

橋中佐

- 一. かばねは積りて 山を築き
血汐は流れて 川をなす
修羅の巷か 向陽寺
雲間をもるる月青し
- 二. みかたは大方 うたれたり
暫く此処をと 諫むれど
恥を思へや つはものよ
死すべき時は今なるぞ
- 三. 御国の為なり 陸軍の
名誉の為ぞと 諭したる
ことば半ばに 散りはてし
花橋ぞ かぐはしき

히로세 중령

- 울려 퍼지는 포음 날아드는 탄환
거친 파도 덮치는 덱키 위에
어둠을 관통하는 중령의 외침
스기노는 어디 있나 스기노 있나
- 배 안을 구석구석 찾기를 세 번
불러도 대답 없고 찾아도 보이질 않네
배는 서서히 파도 속으로 가라앉고
적탄은 마침내 사방에 떨어진다
- 지금이라고 보트로 옮겨타는 중령
날아오는 탄환에 바로 쓰러져
여순항의 원한은 깊어
군신 히로세라 그 이름 길이 남아

다치바나 중령

- 시체는 쌓여 산을 이루고
피는 흘러 강을 이룬다
아수라장인가 사온즈이
구름 사이에서 새나오는 달빛도 파랗구나
- 아군은 모두 쓰러졌다
잠시 여기를이라고 훈계를 해도
창피한 줄 알라 병사여
죽어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
- 나라를 위해서다 육군의
명예를 위해서라 설득하는
말도 대부분 땅에 흩어진다
굴뚝이여 향기롭도다

『심상소학창가』

히로세 다케오(広瀬武夫)와 다치바나 슈타(橋周太)는 모두 러일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영웅이다. 히로세 다케오는 여순(旅順)항구 폐쇄라는 특별작전에 참가하여 행방불명이 된 부하를 찾아 배를 3번 수색하고, 구명보트 위에서 러시아의 포탄에 맞아 전사하는 등, 상사로서 부하를 배려하는 행동과 평소의 성품도 훌륭했다는 점에서 대중에게 군신으로 추앙받았다. 다치바나 슈타는 수산보(首山堡) 공략에서 부대원의 맨 앞에 서서 적진에 뛰어들었으며 장렬한 전사로 인해 군신(軍神)으로 추앙되었다. 히로세와 다치바나는 청일전쟁에서는 이렇다 할 군신이 탄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대 일본 최초의 군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 애국심 고취 및 전의 고양, 나아가 민족적 자긍심을 강조하

는 사회통합의 방법으로서의 전쟁영웅의 창출과 수용이라는 점에 있어, 미디어를 포함한 여러 매체와 더불어 창가가 그 일익을 담당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2.4. 근대기 전쟁영웅연구 -일본교과서를 통해서 본 노기장군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은 청일전쟁을 시작으로 러일전쟁,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등을 치르면서 많은 전쟁영웅을 배출하였다. 근대기의 전쟁영웅은 현대일본사회에서 드라마와 영화, 연극, 소설 등을 통해 빈번히 재조명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노기 마레스케(乃木希典)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군신으로 당시 추앙받게 된 경위를 확인하고 시대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재평가되고 있는지 일본의 국어, 수신, 역사, 창가교과서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2기 국정교과서부터 찾아볼 수 있는 노기장군 관련 글은 4기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전쟁이 가장 격화된 5기에는 2차 세계대전관련 전쟁영웅들의 글로 인해 그 비중이 줄어들었다. 다이쇼(大正)시대에 해당하는 2기(1910-1917)와 3기 국정교과서(1918-1932)에서는 러일전쟁과 관련된 일화가 대부분 이었고 이를 통해 노기장군의 무사도, 애국심, 충성스럽고 용맹한 군인상, 청렴한 인품을 그렸다⁹⁾. 다이쇼 말기 3기 국정교과서에 소개되기 시작한 인품과 군인으로서의 모습은 쇼와(昭和)시대인 4기 국정교과서(1933-1940)에서 보다 다양한 일화를 통해 더욱 강조되는 양상을 보인다. 충성스럽고 용맹한 군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자질을 갖춘 지휘관으로 「무인의 본보기(武人の手本)」로 평가되고 있으며 검소하고 공덕을 중시하는 인품도 소개되어 인격자였음이 강조되고 있다. 또 천황에 대한 충성심을 읽을 수 있는 일화도 새롭게 추가된 시기이기도 하다¹⁰⁾. 계속되는 쇼와시대 5기 국정교과서(1941-1945)에서는 게재된 글의 수는 전체적으로 줄었으나 4기와 마찬가지로 노기장군을 「무인의 본보기(武人の手本)」, 인격자로 소개한 것은 변함이 없다¹¹⁾.

하지만 패전 후에는 연합국군총사령부의 지령에 따라 전쟁, 군국주의관련 글들이 삭제되면서 노기장군 관련 글들도 완전히 자취를 감춘다. 이후 60여년 정도 노기장군에 관한 언급은 교과서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노기장군이 다시 교과서에 재등장하는 것은 극우단체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9) 여순(旅順)을 함락시킨 후 이루어진 水師營의 회견을 제재로 한 창가 「水師營の會見」(尋常小学唱歌 第5學年用(大正元年))과 「水師營」의 회견을 소개한 「水師營」(『尋常小学讀本 卷10』)에서는 노기장군의 무사도와 애국심을 칭송하고 있다. 국정교과서 3기에는 국어교과서에 「水師營」라는 글과 창가교과서에 창가 「水師營の會見」이 2기에 이어서 계속 게재되었다. 이 이외에 3기에는 수신교과서에 「清廉」(尋常修身教科書 卷六(大正7年))이라는 제목으로 노기장군의 청렴함을 강조하는 일화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역사교과서(尋常小學國史下卷(大正10年))에서도 노기장군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2기 때와 마찬가지로 노기장군이 제 3군을 이끌어 여순, 봉천을 함락시킨 과정을 약 2페이지에서 설명하였다. 또한 여기서는 충성스럽고 용맹한 장군과 부하들은 목숨을 버리면서 싸웠고 천황의 은공에 보답하는 것은 이때라고 하며 몇 번이고 돌격했다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노기장군이 충성스럽고 용맹한 군인으로 그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역사교과서에서 러일전쟁에 할애하는 분량과 노기장군에 대한 위와 같은 평가는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는 1945년, 즉 국정교과서 5기까지 계속해서 반복된다.

10) 국정교과서 4기 수신교과서에 수록된 「至誠」에서는 러일전쟁부터 메이지천황서거까지의 노기장군일화를 5가지 소개(尋常修身教科書 卷六(昭和11年))하면서 노기장군의 부하사랑, 청렴한 성품, 솔선수범하는 모습, 천황에 대한 충성심 등 다양한 모습을 적고 있다. 또 국어교과서에는 2기부터 계속 게재되어 온 「水師營」이외에 새로이 「乃木將軍の幼年時代」가 추가되었다. 여기서는 유년시절에 있었던 3가지 일화를 소개하고 노기장군이 평생 「충성검소(忠誠質素)」했으며 「무인의 본보기(武人の手本)」라며 칭송한다. 「무인의 본보기」라는 표현은 지금까지 살펴본 교과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다. 군신으로 추앙하는 데에 있어 마지막 작업이라고 하는 신사건립이 다이쇼(大正)시대에 대부분 마무리가 된 후에 개편된 교과서에서 이러한 표현이 등장한 것을 통해 노기장군이 적어도 쇼와에 들어서는 군신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했다고 보여진다.

11) 국정교과서 5기는 4기에서 국어교과서에 실려 있었던 「乃木將軍の幼年時代」가 수신교과서로 과목을 바꾸어 게재(初等科修身 二(昭和 17年))되었고 역사교과서의 러일전쟁과 노기장군이 기술되었으며, 창가 「水師營の會見」이 창가교과서(初等科音樂 4 唱歌)에 실린 것이 전부이다.

만드는 모임(新しい歴史教科書をつくる会)'에 의해서이다. 러일전쟁이후 패전까지의 국정교과서에 뛰어난 인품을 지닌 「무인의 본보기」로 군신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며 등장했던 노기장군이 보수화, 우경화가 심화되고 있는 2000년대 이후 역사교과서에 재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그 소개 양상이 애국심, 충성심, 모범적인 군인상을 강조하지 않고 일본의 무사도, 개인의 인격에 대해 언급¹²⁾하는 데에 그치고는 있지만 이들 교과서가 노기장군을 직접 언급함으로써 러일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며 승승장구했던 화려한 과거를 환기시키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노기장군은 다이쇼와 쇼와시대를 거치면서 전전의 교과서에서 뛰어난 인격자, 「무인의 본보기」로 평가받으며 군신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였고, 전후 현대의 역사교과서에서는 뛰어난 인격자, 일본의 무사도를 지닌 인물로 묘사되면서 화려했던 과거를 환기시키는 존재로 재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5. 일본사회의 우경화와 전쟁영웅의 부활

2000년대 이후 일본은 우경화가 가속화되는 정치·사회상을 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은 일본정치사회의 기본적인 틀을 제시한 냉전 구도 속에서 자유주의 진영으로의 편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체제선택'이 1990년대 냉전종식과 더불어 붕괴됨으로써 '강한 일본', '보통국가'를 통해 새로이 일본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한국과 및 중국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관계 역사인식의 문제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이 가능하게 된 요인으로 첫째, 일본 보수세력을 견제해 왔던 혁신세력의 몰락에 의해 한층 가속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1990년대 이후 일본경제의 구조적 불황은 '평화국가 일본'을 주장해 왔던 사회당을 중심으로 한 혁신세력들에게 있어 비현실적 정책의 지속이라는 이유로 국민들로부터 외면이 현실과 되었고, 결국은 보수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틀이 사라지게 됨으로써 일본사회는 한층 더 보수화·우경화 되고 있다. 둘째, 1990년대 자유주의사관연구회와 같은 역사수정주의의 등장이다.

정치·사회상의 변화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일본의 대중문화 영역에서도 다수의 전쟁의 기억에 대한 문화물들의 재생산의 방식으로 구체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2005년 일본영화 흥행에서 1위를 기록한 『남자들의 야마토(男たちの大和)』를 시작으로 후쿠이 하루토시(福井晴敏)의 소설들을 영화화한 『로렐라이(ローレライ)』, 『전국자위대 1549(全国自衛隊1549)』, 『망국의 이지스(亡国のイージス)』, 2006년 『출구없는 바다(出口のない海)』, 2007년 『나는 너를 위해 죽으러 간다(俺は君のためにこそしにいく)』, 2008년 『나는 조개가 되고 싶다(私は貝になりたい)』 등은 제국주의 전쟁의 '기억'을 가공하는 대표적인 영상물들이다.

이러한 영상물들은 흥미롭게도 다음과 같은 공통된 요소들이 발견된다. 첫째, 일본인의 패배자 인식, 동경재판의 허구, 전후 일본사회의 도덕성 타락 등에 대한 비판을 통해 강한 일본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영상물을 통해 내셔널 아이덴티티(national identity)를 구축

12) 『中學社會 新しい歴史教科書』(扶桑社, 平成 17, 20년)에서는 칼럼 〈역사의 명장면 일본해해전〉에서 러일전쟁을 「세계 해전사상 이 정도로 완전한 승리를 거둔 예는 없었다」고 평가하고 「또한 마찬가지로 러일전쟁에서 활약한 육군대장 노기 마레스케는 전쟁이 끝난 후 패배한 러시아 장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메이지 일본에서도 패자의 명예를 존중하는 무사도는 살아있었던 것이다」라며 적고 있다. 또 『중학사회 新しい日本の歴史』(育鵬社, 平成 23년)에서도 〈러일전쟁개전과 일본의 승리〉라는 제목의 본론에서 「육군은 러시아가 구축한 여순의 요새를 공략하기 위해서 노기 마레스케가 이끄는 군대를 보내어 많은 희생을 치른 끝에 점령했다」라고 하며 사진과 함께 「제 3 군사령관으로서 러일전쟁에 참가하였으며 적의 명예도 존중하는 인격자였다. 전쟁이 끝난 후, 부상병을 위해서 노기식 의수를 제작, 배포하였다. 또 학습원원장으로 쇼와천황의 교육을 담당하였다」라고 인물소개를 하고 있다.

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셋째, 일본 경제문제를 비롯한 동아시아의 불안을 애국주의 이데올로기로 통합하여 '일본 재쟁'을 목표로 한다는 점이다.

일본은 청일전쟁을 시작으로 1945년의 패망에 이르기까지 국내외적으로 수 많은 전쟁을 치러왔으며, 일찍부터 전쟁을 소재로 한 소설이라는 장르가 형성되었다.¹³⁾ 그러나 패전 직후 미군 점령 하에서 엄격한 사상 검열을 통해 전쟁미화나 전쟁영웅의 내러티브의 생성은 커다란 제약을 받으며, 전쟁의 참혹함과 무의미한 개인의 희생 등에 초점을 맞춘 반전과 평화의 내러티브를 생성해 왔다.¹⁴⁾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일반인들의 전쟁체험이 수기형식으로 출판되는 특징을 보인다. 전쟁가해자로서의 일본인이라는 입장에서의 작품이 주를 이루며 일본사회에 충격을 안겨주었다.¹⁵⁾ 이들 영화들의 특징은 주로 전쟁의 참혹함이나 이로 인한 반전사상과 평화의 갈망을 주제로 하거나, 아니면 집단적 영웅이라기보다는 이름 없이 죽어간 학도병이나 일반 병사들의 일상과 내면을 그리고 있다는 특징이 보인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영상물들은 '내러티브 충위'와 그것을 둘러싼 정치·사회의 이데올로기 충위가 정치적 자의식에 의해 전전으로의 회귀로 구체화 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영화를 통해 일본의 과거를 재해석 하려는 움직임이 2000년대 이후 등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강한 일본을 표방하는 '대국주의' 영화들이 이미 80년대 등장하였다는 점이다.¹⁶⁾ 예를 들어 청년장교 파시스트를 미화한 '동란'(1980년), 러일 전쟁의 침략성을 은폐한 '三百三高地'(1980년), 태평양전쟁을 미화한 '連合艦隊'(1981), '大日本帝國'(1982) 등이다.

80년대 '대국주의' 영화들의 특징은 경제대국으로서 일본이 국제사회에 주도권을 강화하는 시점에서 일본과 과거사를 새롭게 보는 한편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수치로 생각하여 정당성을 주장하는 작업의 산물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의 영화들은 '축소된 일본에서 강한 일본으로'를 주장하고 있으며, 희생자들 예를 들어 서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일반 병사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인간에', '동료애', 그리고 '공동체'를 강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⁷⁾

예를 들어, 태평양전쟁을 테마로 한 영화 『남자들의 야마토(男たちの大和)』는 승조원과 그들의

- 13) 1945년 이전의 전쟁소설은 청일전쟁에 기자로서 중군한 구니키타 돗포(国木田独歩)의 『愛弟通信』을 시작으로, 러일전쟁을 배경으로는 한 시쿠라이 다다요시(桜井忠温)의 『肉弾』, 하야시 후미코(林芙美子)의 『戦線』, 단바 후미오(丹羽文雄)의 『海戦』 등이 큰 반향을 일으키며, 애국심 고취와 개인과 집단 전쟁영웅의 형성에 기여했다. 이를 계기로 전쟁영웅으로 추앙받은 도고 헤이하치로(東郷平八郎)나 노기 마레스케(乃木希典) 등의 전기(伝記)는 필독서로써 유행하기도 했다. 반면, 요사노 아키코의(与謝野晶子)의 『君死にたまふことなかれ』, 이시카와 다쓰조(石川達三)의 『生きてゐる兵隊』 등은 반전적 내용이나 전쟁의 잔혹함을 묘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거나 판매금지처분을 받아야만 했다.
- 14) 공습의 처참함을 그린 사카구치 안고(坂口安吾)의 『白痴』(1946), 전쟁피해자로서의 여교사를 주인공으로 그린 쓰보이 사카에(壺井栄)의 『二十四の瞳』(1952) 등이 주목을 끌었다. 또한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처참함을 소재로 한 소설로는 하라 다미요시(原民喜)의 『夏の花』(1947), 이부세 마쓰지(井伏鱒二)의 『黒い雨』(1966) 등이 있다. 오오카 쇼헤이(大岡昇平)의 『俘虜記』(1948)는 포로수용소를, 『レイテ戦記』(1971)는 전장의 군인들을 그린 작품으로 유명하다. 작가의 전쟁체험을 그린 작품으로는 에자키 마사노리(江崎誠致)의 『ルソンの谷間』(1957), 사카이 사브로(坂井三郎)의 『大空のサムライ』(1972) 등이 있고, 펜부대로 중군한 체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에는 하야시 후미코(林芙美子)의 『浮雲』(1951), 근대조직의 모순을 테마로 한 노마 히로시(野間宏)의 『真空地帯』(1952) 등도 있다. 특공대의 체험으로써는 시마오 도시오(島尾敏雄)의 여러 작품이 있으며, 출정하는 학도병의 유서를 모은 『きけわたつみのこえ』(1949)는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다.
- 15) 미군포로에 대한 생체실험을 소재로 한 엔도 슈사쿠(遠藤周作)의 『海と毒薬』(1967)과 731부대에 관한 실화를 그린 모리무라 세이이치(森村誠一)의 『悪魔の飽食』(1981)은 일본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그리고 이부세 마쓰지 원작의 『黒い雨』(1989), 노사카 아키유키(野坂昭如)의 원작소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火垂るの墓』(1988)는, 공습에 의해 집을 잃은 고베(神戸) 주변도시의 아이들을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으로, 훗날 드라마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다케야마 미치오(竹山道雄) 원작 『ビルマの慟琴』는 1956년, 1986년 두 번에 걸쳐 영화화 되었으며, 『きけわたつみのこえ』는 『君を忘れない』(1995)라는 제목으로 영화화 되었다.
- 16) 구건서, "대국화기 일본영화의 시대성 -1990년대," 『일본학보』 Vol. 69, 2006년, 참조.
- 17) 구건서, 위의 글, 참조.



가족, 연인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병사들은 피를 나눈 인간으로 확고한 국가방위 사명을 지니고 있는 존재로 그리고 있다. 승리를 믿어 의심치 않던 일본제국의 군국주의의 허상은 고스란히 야마토의 최후와 동일시되고 있다. 그러나 『남자들의 야마토(男たちの大和)』에 주목해야 할 것은 '극우영화'가 아니면서 '극우영화'의 모습이 보인다는 점이다. '극우영화'가 아니라는 점은 군국주의 찬양 요소를 표면적으로 찾기 힘들다는 것이며, 그러면서도 '극우영화'로 보인다는 것은 '전우애'를 통해 군국주의에 대한 향수와 동경을 시도하고 있으며, 결국 일본인들의 태평양전쟁의 부정적인 기억은 '기억의 터'였던 야마토의 침몰과 함께 망각되었고, 오히려 '나는 전쟁의 피해자'라는 전형적인 전쟁책임회피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망국의 이지스(亡国のイージス)』의 경우 '누가 국가를 지킬 것인가', '국가방위 사명'이라는 화두를 던지며 이야기를 전개한다. '선과 악', '영웅의 등장'이라는 전형적인 할리우드 영화의 논리구조를 따르면서 긴급사태에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정부를 비꼬며 영웅의 등장과 그에 의해 해결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망국의 이지스(亡国のイージス)』는 현 일본 정치를 비판하는 모습에도 주저하지 않는다. 안일한 관료주의적 모습, 우유부단한 정치인들의 모습을 통해 전후 일본 정치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일본을 구하려는 영웅들을 통해 일본 정치사회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점은 전후정치의 결산을 통한 '강한 일본' 구축이라는 일본 우익들의 주장이 고스란히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주목되는 점은 2000년대 이후 영화들이 기존의 전쟁영웅을 동원해 하나 되는 모습을 강조하며 일본의 모습을 변용시켜야 한다는 당위론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일본사회, 특히 우익들은 일본을 재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전전(前戰) 영광의 원초였던 '집단적 아이덴티티'를 부활시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역사에 대한 일체의 비판적 견해를 봉쇄해 버림으로써 일본사회를 우측으로 편중되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볼 필요가 있다.



일본 근현대문학과 「집단 전쟁영웅」

서재곤(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어통번역학과)

지정토론 - 임용택(인하대학교 국제언어문화학부)

프로필

서재곤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어통번역학과)

◆ 主要著書 및 論文

『문학, 일본의 문학 - 현대의 테마 -』, 공저, 제이앤씨

「敗戦直後の日本詩壇研究」 『日本研究』 58집, 韓国外大日本研究所

일본 근현대문학과 「집단 전쟁영웅」

서재곤 (한국의국어대학교 일본어통번역학과)

1. 들어가며

본 프로젝트의 목적은 ‘일본 전쟁영웅’들이 어떻게 일본의 내셔널리즘 형성에 이용되어 왔는지를 다양한 텍스트의 분석을 통하여 규명하는 데 있었다. 그 중에서 본인이 담당하는 분야는 일본 근현대문학에서의 「집단 전쟁영웅」이다. 여기서 말하는 집단 전쟁영웅이란 노기장군과 같은 개인이 아닌 특정 ‘집단’을 군신(軍神)으로 신격화된 경우를 지칭한다.

일본에 있어서의 집단 전쟁 영웅은 1932년의 상해사변 때, 중국군 진지의 철조망을 파괴하기 위해 파괴통을 들고 적진으로 육탄 돌격을 감행하여 죽은 「爆彈(肉彈)三勇士」가 그 시초이다. 두 번째가 1941년 12월의 진주만 기습 공격 때, 특수잠수정을 타고 진주만 안의 군함 공격을 시도한 「九軍神」이다. 하지만 양자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는데, 전자는 그들이 돌격하는 모습을 본 많은 목격자가 존재하지만 후자는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떤 전과를 올렸는지도 분명하지 않은 채, 해군의 발표만으로 군신으로 추앙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허구의 「집단 전쟁 영웅」인 셈이다. 본 논문에서는 후자인 「九軍神」을 집단 전쟁영웅으로 신격화하여 가는 과정에 일본 근현대문학이 어떻게 이용되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근대 일본 시가에 있어 전쟁과 관련된 시가, 특히 전쟁찬양시, 그리고 시가집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일본 근대시가와 전쟁과의 관련 양상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이들 시가집에 수록된 집단 전쟁영웅을 소재로 한 작품을 분석하고자 한다. 끝으로 「九軍神」이 소재인 坂口安吾의 「真珠」(1942년 6월)와 酒卷和男 「特殊潛航艇發進す」(『昭和戦争文学全集』 제4권, 集英社, 1964년)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2. 전쟁찬양시와 「九軍神」의 등장

일본이 중국과의 전쟁의 수렁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던 1939년 9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다. 이듬 해, 9월 일·독·이 3국 동맹이 체결되고 41년 12월 일본의 진주만 기습공격과 함께 태평양전쟁이 시작된다. 일본은 1938년 5월의 국가 총동원법, 39년 7월의 국민 징용령, 40년 10월의 大政翼贊會의 발족 등을 통하여 국력을 총동원해야 하는 근대전의 준비를 착착 진행시켜 왔다. 문단에서도 1942년 5월, 文學報國會를 만들어 본격적으로 전시체제에 협조하게

된다.

이런 문단 차원의 움직임에 앞서 1941년 9월의 일본청년시인연맹이 편찬한 『現代愛國詩集』이, 12월에 永田助太郎(他)編 『詩と戦争』이 간행된 것을 필두로 하여 애국시가집이 연이어 등장하게 된다.

다음은 대표적인 애국시가집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942년

大野勇二 『大東亜戦争詩集 民族の火箭』 (3월)

高村光太郎 『大いなる日に』 (4월)

三好達治 『捷報いたる』 (7월)

日本放送出版協会編 『愛國詩集』 (9월)

佐藤惣之助·勝承夫編 『国を挙りて』 (12월)

▶ 1943년

大政翼賛会文化部編 『軍神につづけ』 (2월)

大木惇夫 『海原にありて歌へる』 (4월)

蔵原伸二郎 『戦闘機』 (7월)

伊藤静雄 『春のいそぎ』

日本文学報国会編 『大東亜戦争歌集』 (9월)

日本文学報国会編 『辻詩集』 (10월)

▶ 1944년

日本文学報国会編 『詩集 大東亜』 (10월)

大木惇夫 『雲と椰子』

▶ 1945년

大木惇夫編 『ガダルカナル戦詩集』 (2월)

1942년 9월, 일본방송협회(현 NHK의 전신)는 『애국시집』을 출판한다. 일본방송협회 사무국장 關正雄는 그 서문에서 시집의 출판 경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十二月八日、米英に対して 畏くも宣戦の大詔が渙発せられ、つぎつぎに挙がる輝く大戦果は、国民の感激をいやが上にも沸き立たせ、国民各層を通じて、なにかしらその昂まる愛國の情熱を、また殉國の至誠を、力強く歌ふ詩をもとめたのである。

愛國詩は、この国民の希求に応じて生れいでたものであつて、詩人の詩を通じての国民の赤誠の発露であるといつてよい。

日本放送協会では、昭和十六年十二月十二日より、愛國詩の朗読を開始したのであるが、この愛國詩の朗読が、赫々たる皇軍の戦果の報道や、軍事発表、その他の放送と相俟つて、国民の士気の昂揚に寄与する所、尠からざりしことを確信するものである。

万葉以来、幾多の愛國の詩歌が、如何に人心を作興し、日本精神を純化するに、重要な役割を演じたかを回顧するときに、この大東亜戦下に於ける詩人に対する、国民の期待は甚だ大きい。我々は、更によりよき多数の愛國詩が続々と発表せらるゝことを、衷心より冀望して息まぬ。(中略)

本篇は、大東亜戦争勃発の直後より、最近に至る期間に、放送された愛國詩の収録である。(中略)

終りに、本篇第一部は、協会の委嘱によるものであり、第二部は新聞、雑誌等に発表せられたる作品である

제1부에 36편, 제2부에 38편, 총74편이 수록되어 있다. 이 시집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三好達治 「九つの真珠のみ名」와 西条八十 「真珠湾の軍神」로 「九軍神」을 공식적으로 읊은 최초의 작품이다.

여기서 「九軍神」의 탄생 과정을 간단히 정리하고자 한다.

특수잠수정에 의한 특별 공격에 대해서는 1941년 12월 24일자 朝日新聞에 「独天下の特殊潜航艇／不可能を可能に 捨身の極地」라는 제목으로 이미 보도되었다.¹⁾ 하지만 군신으로서의 신격화 작업은 그로부터 약4개월 뒤인 1942년 3월 6일의 대본영 해군성 발표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날 저녁에 해군보도부 出英英夫 大佐의 라디오 방송이 있었고 그 다음날, 여러 신문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는데 이 때, 朝日新聞에 三好와 西條의 시가 발표 된 것이다.

三好達治 「九つの真珠のみ名」

そらみつ大和の国の／一億の臣のこごと／誰しかは涙はなくて／かりそめに思ひいづべき／九つの真珠のみ名を／すぐる火の戦のはじめ／ハワイ撃つますら武夫の／西東千古の書に／たくひなき神速果敢／籌略はもとより精に／勇断は匹儔を絶つ／げにもそは驚天動地／メリケンこのけの提督／やうやくに眼ざめし頃は／戦ははや決したり／電撃のいくさのほまれ／いやたかきいさほしのかず／かぞふるにたへたるがうち／とりわきてその名をきくに／さへやはや胆は張るかの／——特別攻撃隊／沖つ藻の玉藻をかづき／わたつみの底ひにしぬび／寄せがたきあたいり海／狭き門の機雷のひまを／くぐり入る真珠湾内／まことやな万死はありて／一生をついに期すべき／境かは任をおほせて／帰来と命はうけたれ／くろがねの不沈の城と／誇りにかいたのたのめる／こゝだくの主力戦艦／残りなく屠りつくして／うべや身もつひにかしこに／波ふかく沈みたまひぬ／敵国の軍湾の奥／とこしへにしづまります／九つの真珠のみ名を／そらみつ大和の国の／一億の民のこごと／誰しかは涙はなくて／かりそめに思ひいづべき

西条八十 「真珠湾の軍神」

真珠湾、深夜の怒涛を衝かれら、／かれら、この時、すでに、波上に肉体を脱皮したり、／隠見する潜航艇が運びゆくは、／ただ焰！一団の殉忠の浄火！／／「我、この賤しき一つの身を挺して／畏くも宸襟を安じ奉る、／我、この一つの生命を砕いて、／愛する一億のふるさとを護る」／いかに輝きし九人の瞳ぞ、／いかに燃えさかりし九つの若き頬ぞ、／かれら、哄然として笑へり、／男子の笑ひ得る限りの楽しき笑を笑へり。／／聴け。轟音は天に沖し、／倏忽、逞しきアメリカの息の根は塞められたり！／／いつこに在るぞ、／軍神を生める幸ある母は？／いつこに住むぞ、／軍神を教へてたる光榮の父は？／／見よ、／太平洋上に、竜巻のごとく聳り立つ九つの軍神像！／血に染みし十八の掌の紅より／大東亜永遠の平和の曙光の燃え昇るを。

이 두 시는 이후에 무수히 등장하는 전쟁찬양시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三好의 시 속에 나오는 「特別攻撃隊」는 정부에서 정한 공식 명칭이다. 그리고 西条의 시 속에 군신들의 부모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데, 이들의 생가 순례와 같은 추후에 전개될 신격화 작업을 암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 五味淵典嗣 「それぞれの遠足一坂口安吾 『真珠』論」 『三田文学』 79(2000년 11월) p.182

4. 九軍神의 본격적인 신격화

실제로 잠수함 공격에 참가한 10명 중에서 포로가 된 1명을 뺀 9명의 군신에 대한 합동 장례가 4월 8일, 해군장으로 치루어진다. 이 무렵, 이미 土屋賢一 『海の軍神 特別攻撃隊』(春陽堂), 前川伝二 『特別攻撃隊 海の九軍神』(前川書房), 朝日新聞社編 『特別攻撃隊 九軍神正伝』 등과 같은 책들이 출판되기 시작한다. 9월에 일본방송협회의 『애국시집』이 간행되었고 그 속에 九軍神에 대한 三好와 西条의 시가 실려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앞에서 지적한 대로이다. 하지만 『애국시집』은 군신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1943년 2월에 간행된 大政翼賛会文化部編 『군신을 따라라(軍神につづけ)』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군신만을 위한 시가집이다. 이 시가집에는 와카 33수, 하이쿠 57수, 시 19편이 수록되어 있다.

「はしがき」에서 大政翼賛会文化部長인 高橋健式은 이 시가집을 발간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至誠の凝るところ一億国民のすべてが軍神になり得るのである。(中略)／／今こそ、三千年の間培はれて来た日本民族の力が凝り固まつて現はれなければならない。すべてのものが軍神の心を体して、軍神につづか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意味で、日本文学報国会が二度目の十二月八日を迎えるにあたって、大政翼賛会の以来に応じ、国民士気昂揚のための標語として「軍神につづけ」といふ言葉を選ばれたのは意義ふかいことであつた。(中略)短歌と俳句と詩とを一流作家に作つて頂き、これを各新聞に連載することを企てた。(中略)東京日々(毎日)が詩に、朝日新聞が和歌に、読売新聞が俳句に、それぞれ連日貴重な紙面を割くことを快諾された。また作家側も文学報国会の詩部会長高村光太郎氏、同短歌部会長佐々木信綱氏、同俳句部会長高浜虚子氏の三氏、をはじめ各会の代表的作家が短時日の間に続々力作を寄せられた。(中略)十一月二十七日から右三紙の朝刊紙上に「軍神につづけ」といふ標語の下に約二週間にわたつて、それらの詩、和歌、俳句が連載された。標語の新しい発表形式であると同時に、同一の企画に作家と新聞社が歩調を揃へて国民に訴へる点で、一つの画期的な企てであつたと言へよう。(中略)国民こぞつて「軍神につづけ」の精神に生きる心構へを新たにしたいと念ずるしだいである。

이 시가집에 실린 작품 중에서 직접적으로 군신이 등장하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短歌>>

太田水穂 「信農人に檄す」：佐久間修理岩佐軍神いづれみな嶮しくぞ生きて国に殉しぬ

逗子八朗 「戦果の陰に」의 詞書：第三次ソロモン大海戦の発表を読み、赫々たる大戦果の陰に莞爾として散華せる英霊に合掌す

土屋文明 「新田義貞」의 詞書：越前藤島神社は新田義貞を祀る別格官弊社なり。其の戦死の地灯明寺暁は福井市郊外にあり。社頭に立ち、首塚に詣でて彷徨去ること能はず。ただに吾が生を上野国にうけたためのみならんや

半田良平 「男子よ起て」：兵となるもならぬも軍神の後を継ぐべく男の子らは起て

軍神のこころ願けもち男の子らの行きゆく前に障あらめや

青木月斗 「軍神につづけ」：軍神につづけあら驚あら鷹寒雀

軍神につづけ山の眠り海の荒びをものとせず

軍神につづけ銃後の布子銃後のもんべ

<<俳句>>

飯田蛇笏「軍神頌」：炉火を侘び九靈^{かふ}を裕したてまつる

白田亜浪「信州の三者」：(詞書)感状に輝く高橋一義中尉を

汗まみれ農魂土魂一に帰す

荻原井泉水「軍神につづけ」：(詞書)海に微されし壯夫として某君をおくる言葉、三句

冬海^{ふゆうみ}を征け、日は浪^{なみ}を出づ 浪^{なみ}を行け

月光雪^{げつくわう}と散る 飛沫^{しぶき}を浴びて征く君か

君^はが母^はによ戸^ろの火^あたやさじ我等あり

小野燕子「軍神につづけ」：(詞書)軍神枯野少佐に「若桜」の詠あり、即ち三句

ふるさとの若桜^{わが}とてしたはしく

おもかげを身近^{みぢ}に感じ霰^{あられ}さく

ふるさとの遠^{とんが}賀^がの堤^{つみ}草^{くさ}芳^{よし}し

佐藤肋骨「軍神につづけ」：九軍神祀る師走の八日かな

室積徂春「陸に海に空に」：(詞書)海に待つてゐる、九軍神のごときますらをの活躍を

みづく海^{うみ}の神^{かみがみ}神^{ふゆ}たれや冬^{ふゆ}晴^はる

山口誓子「郷土の軍神」：(詞書)稲垣兵曹長に捧げて

<<詩>>

安西冬衛「軍神につづけ」

大詔昭昭、大道坦坦／豁然としてこの道の開闢するところ／山川海嶽／帰一してことごとく／天皇の率土／ああ／感激の十二月八日／乾坤、転じ来つてふたたび咫尺あり／／それ／生死を云はず／名利また埒外／必謹／ただ必殺の神氣／凝つて激発すれば／真珠湾頭たちまち紅蓮の焰と天に沖し／ベンガル海上真紅の火と涛を焼いて／ために敵胆をして寒からしむ／／ああ／倏忽に消え／しかも阿僧祇^{あそうぎ}に存し／刹那にして／なほ且つ尽未来際^{じんみらいざい}を覆ふもの／至純にして至高なる／**十軍神** 殉忠の新精神^{はうはく}／磅礪^{あした}してこの朝にあり／こゝにしてわれら／行蔵^{よこま}また邪あるべからず／この ころ／この道に徹底して／**百年不退転の戦**をわれら戦ひ抜かんかな／軍神につづけ／軍神につづかん。

高村光太郎「みなもとに帰するもの」

万古をつらぬいて大御神はおはす。／いのちのみなもとを知るもの力あり、／微小なほ且つ大業を果たす。／おのが身に思ひわづらふもの、／ひとへに暗くして大義に通ぜず。／ただみなもとにかへるを知るもの、／日月皎然、／生と死とを訪ふことなく、／一切をあげて大御心にこたへまつ

る。／冬と春と夏と秋とすでに去り、／十二月八日再びきたる。／軍神は死せず、／いのちかが
 やきてわれらを導く。／義勇公に奉ずるの時今日こんにちにあり。／われらあらゆる道に立つもの、／悉く
 いのちのみなもとにかへらんかな。／みなもとに帰するものは力あるかな。

川路柳虹 「高丘親王」

西条八十 「爆撃機を我が家とせん」

野口米次郎 「空の牧野中佐」

前田鉄之助 「十二月八日の頌」

三好達治 「霜晨」

이 들 작품에는 岩佐軍神, 高橋一義中尉, 軍神古野少佐, 五反田大尉, 稻垣兵曹長등과 같은 고유명사가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安西의 시에는 「十軍神」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安西의 단순한 실수라기보다는 '9'라는 숫자의 인위성 때문이 아닐까 한다. 또한 「百年」이라는 숫자는 이 전쟁이 장기전이 될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5. 坂口安吾 「真珠」

九軍神을 소재로 한 소설에 坂口安吾의 「真珠」가 있다. 이 작품은 해군의 九軍神에 대한 공식 발표로부터 3개월 뒤인 1942년 6월에 발표되었다.

十二月八日以来の三ヶ月のあひだ、日本で最も話題となり、人々の知りたがつてゐたことの一つは、あなた方のことであつた。

あなた方は九人であつた。あなた方は命令を受けたのではなかつた。あなた方の数名が自ら発案、進言して、司令長官の容れる所となつたのださうだ。それからの数ヶ月、あなた方は人目を忍んで猛訓練にいそんでゐた。もはや、訓練のほかには、余念のないあなた方であつた。

この戦争が始まるまで、パリジャンだのヤンキーが案外戦争に強さうだ、と、僕は漫然考へてゐた。パリジャンは諧謔を弄しながら鼻唄まぢりで出征するし、ヤンキーときは戦争もスポーツも見境がないから、タッチダウンの要領で弾の中を駆けだしさうに思つたのだ。ところが、戦争といふものは、我々が平和な食卓で結論するほど、單純無邪気なものではなかつた。いや、人間が死に就て考へる、死に就ての考へといふものが、平和な食卓の結論ほど、單純無邪気ではなかつたのである。人は鼻唄まぢりでは死地に赴くことができない。タッチダウンの要領でトーチカへ飛びこめるほど、戦争は無邪気なものではなかつた。

화자 「僕」가 九軍神인 「あなた方」에게 말을 거는 식으로 작품은 전개된다. 소설의 시간은 진주만 공습을 감행한 1941년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그리고 해군의 공식 발표가 있는 1942년 3월 4일부터 6일까지의 두 축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앞서 소개했듯이 「あなた方」에 대한 이야기. 3개월 전 小田原에 ガランドウ집으로 ドテラ를 찾으러 가서 전쟁 발발을 맞이하게 된 경위. 「あなた方」의 공격 이야기. 죽음의 위협을 알고도 파리- 동경간 장거리 비행에 도전하는 비행사 이야기. 「あな

「あなた方」의 죽음에 대한 군부의 공식 발표와 꽃말에 뼈를 뿌러달라는 어느 부자 노인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끝맺고 있다.

あなた方はまだ三十に充たない若きであつたが、やつぱり、自信満々たる一生だつた。あなた方は、散つて真珠の玉と砕けんと歌つてゐるが、お花畑の白骨と違つて、實際、真珠の玉と砕けることが目に見えてゐるあなた方であつた。老翁は、自らの白骨をお花畑でまきちらすわけに行かなかつたが、あなた方は、自分の手で、真珠の玉と砕けることが予定された道であつた。さうして、あなた方の骨肉は粉となり、真珠湾海底に散つた筈だ。あなた方は満足であらうと思ふ。然し、老翁は、実現されなかつた死後に就て、お花畑にまきちらされた白骨に就て、時に詩的な愛情を覚えた幸福な時間があつた筈だが、あなた方は、汗じみた作業服で毎日毎晩鋼鉄の艇内にかんぱり通して、真珠湾海底を散る肉片などに就ては、あまり心を患はさなかつた。生還の二字を忘れたとき、あなた方は死も忘れた。まつたく、あなた方は遠足に行つてしまつたのである。

이 작품을 둘러싼 최대의 논쟁거리는 安吾의 집필 의도에 대한 견해이다.

먼저 「軍服を着て行くべきだが、暑いから作業服で御免蒙らう」「お弁当を持つたり、サイダーを持つたり、チョコレートまで貰つて、まるで遠足に行くやうだ」「出陣の挨拶に、行つて来ます、とは言はなかつた。ただ、征きます、と言つたのみ」 등은 작품 본문에서도 인용 표시가 되어 있듯이 해군에서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군부의 언설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安吾의 판단력과 비판력의 부재를 지적 하고 있다. 다른 한편은 전쟁 비상 상황 속에서 태평스럽게 ドテラ를 찾으러 가는 등, 주인공 「僕」의 일련의 행동이 그 당시 시대 상황으로 볼 때, 이른바 비(非)국민적 행동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그런 일화를 집은 넣은 것 자체가 군국주의에 대한 安吾 나름대로의 저항의 표상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東海道 선로의 확장 공사로 인한 무덤 이장 도중에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산산조각이 난 「土器」처럼 「あなた方の骨肉は粉となり、真珠湾海底に散つた」「あなた方」의 죽음도 지금은 영웅으로 신격화되고 있지만 세월이 흘러가면 헛된 죽음이라는 평가가 내려질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安吾의 「真珠」를 둘러싼 해석의 차이는 같은 전쟁기에 발표된 다른 작품들의 평가와도 맞물려 있다. 예를 들면 太宰의 「十二月八日」(1942년 2월)은 제목으로 알 수 있듯이 진주만 공습을, 「散華」(1944년 3월)는 아투(Attu) 섬에서 일본 군대가 점멸당한 것을 다른 작품들과의 평가와도 맞물려 있는 것이다.

6. 酒卷和男 「特殊潜航艇発進す」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찾아낸 것이 잠수함 공격에 참가한 10명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酒卷和男이 쓴 「特殊潜航艇発進す」라는 작품이다. 그가 태평양전쟁의 포로1호가 되었다는 사실을 군부는 철저히 은폐하였고 작전에 참가하여 죽은 9명만을 군신으로 신격화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하였다. 그는 포로수용소에서의 생활을 그린 「포로 제1호」라는 작품이 있지만 「特殊潜航艇発進す」은 모션을 떠나 진주만 안으로의 잠입 시도와 미구축함과의 사투, 건전지의 방진, 좌초, 그리고 포로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적은 사소설이다.

むし暑い特潜(特殊潜航艇)の中から、母艦の甲板へおりたつた。冷々とした夜気をふくんだ何回の潮風

が、よしやなく私の顔をうちつけてくる。

憑かれたように私はハワイの島影をもとめた。うす暗い星明かりの下に、ぼんやりとかすむオアフ島が見失われそうに現われてくる。見失うまいとじっと見つめていると、その霞の奥から、昼間聞いたホノルル放送局の耳なれないジャズ音楽が、かすかにひびいてくるようだ。いいしれないぶきみさが、敵地に乗り入った私をふしぎな緊張感のなかにおいこめ、しばらくはただぼう然とたちつくしていた。

——昭和十六年十二月、戦闘前日の暁近いころである。

「おい、艇付。まだ直らんのか」

「は一、艇長、皆目だめですよ」

「うむ、そうか。……しかし、もう潜入だ。あきらめてはやく出てこい」

速力をましたのか、艦尾の渦流かりゅうがほの白い線条となってきえていく。

母艦の部屋にもどり、私は整備日誌におそろしい最後の記録をつづった。それは、いくら整備してもジャイロ・コンパス 転輪羅針儀が動かないことである。ほとんど水上航走をゆるぎない特殊潜航艇には、ジャイロ・コンパスこそ命の綱であり、コンパスなしの出撃ということは、そのまま不成功と死を意味していた。

공격 개시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잠수함의 생명줄인 고장 난 자이로컴퍼스를 고치기 위한 필사의 노력과 낮에 라디오를 통해 들은 미국의 재즈 음악이 묘한 콘트라스트를 이루고 있는 작품의 첫머리이다. 결국 자이로컴퍼스 없이는 「장인이 도로를 다리」는 것과 같은 것임을 알면서도 잠망경에 의한 수상 항해에 기대를 걸고 출격을 한다. 하지만 배의 균형을 잡는데 시간을 낭비해버려 개전 시간이 다되었지만 당초 예정한 진주만 내로의 진입은 커녕, 방향 차오로 인하여 망망대해로 나오게 된다. 잠수와 부상을 거듭하며 진주만을 향하지만 만 입구를 지키고 있던 구축함으로부터 폭뢰와 함포 공격을 받아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좌초, 어뢰 발사 장치가 망가지게 된다. 어쩔 수 없이 집합 장소인 라나이(Lanai) 섬으로 향하지만 도중에 동력이 완전 소실, 결국은 배의 자폭 장치에 불을 붙이고 바다로 뛰어들어 해안을 향해 헤엄을 치다가 의식을 잃게 된다. 정신을 차려 보니 눈앞에 미군 병사가 자신을 향해 피스톨을 겨누고 있었고 이렇게 해서 포로 제1호가 되어 호놀룰루로 이송되는 차안에서 깊은 잠에 빠지면서 작품은 끝나게 된다.

아시아·태평양전쟁은 작품 속에서 주인공이 사람의 죽음에는 「華々しく死んで行く軍人の死と、人生をあじわって死んで行く人間の死」의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듯이 그 당시로는 명예로운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죽어간 200만에 가까운 일본인뿐만 아니고 수많은 아시아인들을 포함한 인적, 물적 인 희생과 손실을 낳았다. 2011년은 일본이 진주만 기습 공격을 감행한 70주년이 되는 해로 아시아·태평양전쟁을 재고찰하려는 기획이 있었고 集英社에서는 1966년의 『昭和戦争文学全集』(全16卷)발간에 이어 『コレクション 戦争と文学』(全20卷, 別卷1)의 간행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전의 加藤典洋 『敗戦後論』(1997년)과 高橋哲哉 『戦後責任論』(1999년)의 의해 이루어진 논쟁 같은 것도 없이 지난 간 것 같다. 앞으로 2년 후인 2015년이면 일본은 패전 7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2012년의 自民党 재집권과 연이은 북한의 3차 핵실험이 맞물리면서 일본 사회의 우경화는 한층 더 가속되고 있으며 이제 일본 내에서 재군비와 평화 헌법 개정 논의는 금기 사항이 아니게 되어버렸다. 70년 전, 九軍神을 시작으로 수많은 군신들이 탄생되었지만 그들의 죽음의 현대적 의미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임용택 (인하대학교 일본언어문화)

일본의 전쟁문학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편향된 정치적 구호의 나열로 인한 예술적 가치의 부족 등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연구성과가 활발하지 못하다.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등에서 제재를 취하면서, 특히 시가의 경우는 당시의 거의 모든 작가들이 전쟁관련시가를 발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昭和文學의 한 축으로 주목하려는 발표자의 의도와 연구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다.

[질문]

1.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 전쟁영웅들이 어떻게 일본의 내셔널리즘 형성에 이용되어 왔는지를 다양한 텍스트의 분석을 통하여 규명하는데 있다”고 적고 있는데, 전체적 느낌으로는 이른바 ‘九軍神’이 등장하는 시가와 소설작품을 중심으로, 태평양전쟁 이후에 등장한 주요 애국시가집을 나열하고, 소설작품의 경우 간단한 줄거리 소개에 할애하고 있을 뿐, 문학 텍스트로서의 분석이나 어떤 형태로 내셔널리즘 형성에 관여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특히 서론에서 ‘九軍神’이 ‘허구의 집단영웅’임을 강조하고 있는 점, 그 배후에 위치한 당시 미디어매체의 저널리즘에 의한 전쟁문학과의 관련성 및 「爆彈三勇士」와 같은 실제 사실을 다룬 시가들과의 내용적 차별성 등, 발표자가 생각하는 ‘(집단)전쟁영웅’이나 나아가 전쟁문학에 대한 구체적 담론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2. 흔히 애국시(전쟁찬양시)와 저항시(반전시)로 나뉘는 전쟁시 중에서도 애국시에 대한 일본시사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이유는 대다수의 작품들이 전쟁이라는 정치적 상황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승리를 기원하는 천편일률적인 檄文성 구호에 그친 결과 예술성의 결여라는 치명적 약점을 안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그런 점에서, 전쟁에 대한 확고한 의식을 시적 발상으로 소화하고 작자 자신의 주체적 정열과 의지에 의해 시적 감동을 확실하게 정착시킨 시인으로 高村光太郎, 三好達治 등이 주로 거론되는데, 본 연구에서 인용하고 있는 『愛國詩集』과 『軍神につづけ』의 도합 4편의 작품에 대해 예술적 가치를 지닌 시 텍스트로 평가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는지 알고 싶다.

3. 1942년 9월의 『愛國詩集』이나 1943년 2월의 『軍神につづけ』가 성립된 시기는 1942년 6월의 미드웨이해전의 패배를 분기점으로 전황이 진주만공격 이후의 일방적 일본 우세로부터 악화되고 있던 시기 이후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당시의 전쟁문학이 지닌 일본국민의 사기진작이라는 공통된 목적성 외에, 양 시집의 서문에 드러난 기술태도에 있어 특별히 차이점이 있다고 보는지, 있다면 그것이 전체적인 수록작품의 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4. 본 발표에서 소개한 작품 외에 ‘九軍神’ 내지는 전쟁영웅을 다룬 시가가 없었는지도 궁금하다. 이를테면 日本文學保國會(편) 『大東亞戰爭歌集』은 당시 직접 전쟁에 참가한 장교, 병사, 간호부, 군속 등 일반인 2060인의 3398首를 수록한 합동 歌集이며, 역시 日本文學保國會(편) 『辻詩集』은 당시 시단의 원로는 물론, ‘四季’파와 같은 서정시인, 민중시파, 아나키스트, 프롤레타리아 시인 등 200여명이 시적 파벌을 초월하는 형태로 참가한 대표적 選集으로, 불륨 면에서 『愛國詩集』과 『軍神につづけ』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북선이라는 외피와 난중일기라는 내면

: 1931년 여름, 『동아일보』와 이광수를 중심으로

- 김성연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지정토론 - 장신(역사문제연구소)

프로필

김 성 연(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主要著書 및 論文

·著書 : 『영웅에서 위인으로-번역 위인전기 전집의 기원』, 2013, 소명출판

·論文 : 「'새로운 신' 과학에 올라탄 제국과 식민의 동상이몽-퀴리부인 전기의 소설화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44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11

「1920년대 번역가의 세대교체」, 『반교어문연구』 31호, 반교어문학회, 2011

「1920년대 초 식민지 조선의 아인슈타인 전기와 상대성 이론 수용 양상」, 『역사문제연구』
제27호, 역사문제연구소, 2012

「근대의 기적 서사 <헬렌켈러 자서전>의 식민지 조선 수용-‘불구자’, ‘성녀’가 되다」,
『사이』 13호,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2



거북선이라는 외피와 난중일기라는 내면

: 1931년 여름, 『동아일보』와 이광수를 중심으로

김성연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I. 서론

이 발표문은 ‘실기’나 ‘전’ 속의 인물이던 이순신이 ‘훼손되어가는 민족정신의 표상’이자 ‘수호의 대상’으로 다급히 부활되며 동시에 ‘이순신=거북선=난중일기’의 도식이 대중화된 역사적 시점을 1931년으로 보고, 그 주체로서 『동아일보』와 이광수에 주목한다. 일반적으로 대중의 역사 인식과 국민적 열광은 학교라는 제도를 통한 역사 교육보다는 통속적 역사 서술에서 촉발되며¹⁾ 이는 통상 신문·잡지 등에서 활동하는 소설가, 저널리스트, 일부 학자들의 서술을 뜻한다.²⁾ 게다가 정규 교과 과정에 조선사 대신 일본사가 들어선 식민지 현실에서 조선의 역사적 인물을 대중화시키는 데 언론과 출판의 역할은 더욱 컸다.

이순신에 관한 최근의 대표적 논의들은 다음과 같다. 1930년대 초 이순신 유적 보존 운동을 1930년대 민족주의 문화운동 계열이 일제하에서 합법적 문화 운동의 일환으로 전개한 사업으로 보는 연구³⁾, 식민지 시기 민족의 수호신화로서의 이순신 숭배와 박정희 체제의 영웅화 사업을 실증적으로 정리한 연구⁴⁾, 이순신 서사가 가지는 남성 파워 엘리트적 성격과 식민지기 유산성을 부각시킨 연구⁵⁾, 박정희 정권기의 이순신 영웅화 사업의 정치성에 주목하며 그 사상적 기원을 이광수의 ‘영웅·힘 숭배 사상’과 연결시킨 연구⁶⁾, 이순신이 20세기에 시대별로 어떻게 소설 속에서 형상화되었는지를 영웅상의 변모를 중심으로 살펴본 통시적 연구⁷⁾, 오늘날 대중문화(드라마)를 통해 오늘날 재현되고 있는 ‘인간 이순신’이라는 영웅상이 내포한 이데올로기를 장르적 특성과 함께 밝힌 연구⁸⁾ 등이 있다.

이들은 ‘영웅화’ 메커니즘 규명이나 그 사상성에 대한 담론적 논의, 그리고 장르별 형상화의 사례

1) 친위 카셋시리의 논의. 테사 모리스-스즈키 지음, 김경원 옮김, 『우리 안의 과거』, 휴머니스트, 2006. 21쪽에서 재인용.
 2) Geremie Barmé, "History for the Masses", *In Using the Past to Serve the Present: Historiography and Politics in Contemporary China*, Ed. Jonathan Unger. Amonk, NY: M.E.Sharpe.
 3) 이지원, 『한국 근대 문화사상사 연구』, 해안, 2007.
 4) 비교역사문화연구소 기획, 권형진·이종훈 엮음, 『대중독재의 영웅 만들기』, 휴머니스트, 2005 (이상록, 「이순신-민족의 수호신 만들기과 박정희 체제의 대중 규율화」)
 5) 공임순, 『식민지의 적자들』, 푸른역사, 2005.
 6) 박노자, 『우승 열패의 신화』, 한겨레, 2007., 박노자, 『나는 폭력의 세기를 고발한다』, 인물과 사상사, 2008.
 그 밖에도 이승만, 박정희 정권기에 역사적 인물의 영웅화 차원에서 벌인 일련의 기념사업을 문화 정치적 측면에서 정리한 연구가 있다. 권오현, 「역사적 인물의 영웅화와 기념의 문화정치: 1960-70년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7) 장경남, 「이순신의 소설적 형상화에 대한 통시적 연구」, 『민족문화사연구』35호, 민족문화사연구소, 2007.
 8) 윤진현, 「이순신과 영웅의 쇄신-KBS대하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14호, 대중서사학회, 2005.12.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왔으며, 통시적 연구의 경우는 이순신의 시대별 영웅화 흐름을 “일본 축출의 영웅에서 군사정권의 성웅으로, 다시 인간 이순신으로”⁹⁾라는 전체를 공유하고 있다. 즉 이순신 서사는 일제하에서는 문화 민족주의 서사로, 해방 이후에는 국민 계도와 군사 정권의 자기 정당화를 위한 서사로 동원되었다고 요약되곤 했다. 그리고 이순신에 관한 담론적 논의들은 대체로 민족/국가 공동체가 기억과 기념이라는 과거 영웅과의 동일화 및 해석의 역사를 통해 현재의 정체성을 구축한다고 보는 데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이 발표문은 축적된 선행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하되 다음 세 가지 새로운 지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첫째, 이순신 영웅화가 대중들에게 폭발적으로 점화되는 지점에 대한 세밀한 탐색을 통해 이것이 사상과 서사의 흐름 속에 놓이되 동시에 분화되는 양상을 작가, 기자, 독자, 논쟁자, 성금자 등 다양한 주체들을 중심으로 입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둘째, 신채호 <이순신전>과 이광수 <이순신>의 비교, 그리고 이광수의 <이순신>과 이순신의 <난중일기> 간의 비교를 통해 식민지 시기 대표적 이순신 서사로 취급되며 그 사상성과 정치성이 문제시되었던 이광수의 <이순신>에 대한 기존의 통설들을 몇 가지 수정한다. 이를 통해 1931년 이순신 서사가 전체 이순신 서사史에서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파악한다. 셋째, 대체로 기존 연구는 이순신 영웅화 메커니즘 자체에만 주목하고 서사와 운동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다소 반복되는 논의를 양산하기도 했는데, 이 발표문은 역으로 단일한 목소리로 수렴되지 않는, 이순신 영웅화를 둘러싸고 발생한 불협화음이나 변민, 갈등은 없었는지 살펴본다. 갈등의 표출은 이순신 영웅화의 근본적 지점을 진단할 수 있게 하는 징후이기도 한 것이다.

II.1931년 여름, 사건이 된 이순신

『동아일보』는 1930년대 초 전개한 주요 사업으로 “브나로드 운동”과 함께 “이충무공 유적 보존운동”을 내세우곤 했다.¹⁰⁾ 1931년 이순신 유적 보존운동은 신문사가 자신을 민족 언론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대표적 ‘사업’이었다. ‘사업’이었음은, 그것을 통해 자금의 회전이 이루어졌음을 뜻한다.

“이충무공 유적 보존운동”은 한 편의 기사가 도화선이 되었다. 최초의 위토 경매 기사를 썼던 박금 기사는 1931년 겨울, 「신문기자의 실패담」¹¹⁾ 코너에 기자로서 한 해 동안 가장 실패스런 경험담으로 「충무공 위토 경매 사건」에 관한 기사를 쓸 때의 정황을 자세히 기록한다. 기사는 동일은행에서 이충무공위토를 경매한다는 소식을 듣고 은행장 민대식을 찾아갔으나 편집시간이 다가올 때까지 은행장이 그러한 사실 여부에 대해 모르쇠를 때며 시인을 하지 않음으로 기사를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기사는 끝내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본점 지점장인 당신은 어찌할 것이냐?”고 묻고, 그는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야 어찌할 수 없겠지요”라고 말한 순간 그것은 기사화될 수 있었고 바로 이 마지막 발화 때문에 그는 독자로부터 분격에 넘치는 투서들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순신 기념 유적은 1910년 이후 지속적으로 방치되고 있었고 1920년대에 이미 이를 위한 기부금이 답지되었고 보존회도 개최되는 등 국부적 움직임이 있었다. 그렇다면 이순신 관련 서사와 운동을

9) 이덕일, 「일본 축출의 영웅에서 군사정권의 성웅으로, 다시 인간 이순신으로」, 『내일을 여는 역사』18호, 내일을 여는 역사, 2004.12.

10) 동아일보사, 『동아일보사사 1920~1945』, 동아일보사, 1975. 동아일보사, 『이고위갑(以古爲鑑)-동아일보가 담은 근대 100경』, 2010.

11) 동아일보사 기자 박금, 「신문기자 실패담, 충무공의 위토경매사건」, 『동광』28호, 1931.12.

폭발적으로 낳은 1931년의 정황 속에는 어떤 촉매제와 이를 지속할만한 구심점이 있을 법 했다. 『동아일보』는 1931년 13일 이순신의 위토(位土: 제사 비용을 대기 위한 토지)가 경매 위기에 있다는 사실을 다룬 기사를 단독 보도했고 5월 14일 사설은 이 사건을 조선 민족에게 책임이 있는 “민족적 수치”로 규정했다. 연이어 5월 16일 사설은 “이충무공과 우리”라는 제목을 통해 이순신을 “우리”라는 민족집단·신문독자와 불가분의 존재로 묶었다. 이로서 이순신의 후손이 위토를 담보로 대출한 돈을 갚지 못해 담보가 은행으로 넘어가게 될 개인적 채무라는 사건은 민족적 채무로 변질되어 규정되었다. 기사와 사설을 읽은 신문 독자들은 신문사에 은행장을 비난하는 투서와 이순신 위토 보증을 위한 성금을 보내게 되고, 이에 신문은 성금자의 명단과 액수, 그리고 투서 및 사연을 신문 한 면을 다 할애하면서까지 지속적으로 공개한다. 개인들의 산발적 움직임에 이어 5월 23일에는 지식인 계층을 중심으로한 ‘이충무공유적보존회’가 창립되기에 이른다.

그리고 『동아일보』의 이순신 유적 보존 운동의 가운데에는 1931년 당시 편집국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이광수가 있었다.¹²⁾ 그는 이전에도 초대편집국장 이상협으로부터 이순신을 소설화할 것을 요청받기도 했거니와 사장 송진우로부터 재차 ‘단국, 세종대왕, 이순신’ 3부작 소설 집필을 권고 받고는¹³⁾ 위토경매 사건 기사가 보도된 직후 이를 계기로 이순신 소설 연재를 강행한다. 『동아일보』는 편집국장 이광수를 5월 19일 현지에 특파하여 현지사정을 기행문 형식으로 연재한다.(「충무공 유적 순례」, 『동아일보』, 1931.5.21.~6.10.) 그리고 6월 26일부터 이순신에 관한 최초의 근대적 장편소설 「이순신」이 이광수에 의해 연재되기 시작한다.(『동아일보』, 1931.6.26.~1932.4.3.)¹⁴⁾ 이순신 유적 보존 운동은 사실상 이광수의 「이순신」 연재 기간 동안 지속되었다.

이순신은 위토 경매 방지 운동과 유적지 기행문을 통해 ‘수호해야 할 국토’로 현시되며 유적 보존 운동을 통해 ‘보호해야 할 생명이자 침탈당하지 말아야 할 재산’이라는 생명력과 물질성을 부여받게 되었다. 기행문은 식민지 시기 영웅화 운동에서 소설과 함께 필수적으로 동원되는 장르였다. 신문 독자들은 최남선의 「백두산근참기」¹⁵⁾등을 통해 이미 ‘國 + 土’를 체험하며 자연물을 넘어선 숭엄한 민족의 상징으로서 땅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시간을 다투는 위기감을 조성한 이순신 위토 경매 사건 기사는 독자로 하여금 이순신을 ‘빼앗길 영토, 도난당할 국보’처럼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개인의 채무가 민족의 채무로 규정된 것처럼, 이순신과 관련된 모든 것은 민족의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 때 이들 기행문들이 ‘탐사’와 ‘순례’로 기술되었다는 점은 흥미롭다. 탐사·탐사·순례의 주체는 기자·학자·문학자였고 그 체험은 객관적 관찰과 감상이라는 경계를 허물며 기록·전달되었다. 근대적·과학적·학문적인 성격이 부각되는 ‘탐사’와 신성함·종교성이 강한 ‘순례’라는 말이 동시에 사용되었다는 것은 이러한 유적지 기행문이 가지는 ‘근대적 민족 신화’로서의 성격을 잘 드러내준다.

신채호가 「이순신전」 결말부에서 국력의 약화로 세계적 수군 이순신이라는 인물과 철갑선을 창조

12) 이후 1933년 7월 『조선일보』 방응모 사장이 취임 직후 『동아일보』의 핵심 인물들을 대거 스카웃 해가면서 이광수는 『조선일보』 부사장으로 앉게 된다.(장신, 「1930년대 언론의 상업화와 조선·동아일보의 선택」, 『역사비평』 70호, 역사비평사, 2005.2. 169쪽.) 따라서 이광수가 『조선일보』로 옮겨간 이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이순신 영웅화 기세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3) 이광수, 『동아일보』, 1931.5.31.

14) 현재, 『이순신전』, 1907.

박은식, 『이순신』, 1908.(한문전기, 미완) (『동아일보』 광고 1923.2.26.)

현공범, 『이충무공실기』, 1907.

신채호, 「이순신전」, 『대한매일신보』, 1908.(국한문 1908.5.2.~8.18, 순한글 1908.6.11.~10.24.)

최찬식, 『이순신실기』, 1924.

장도빈, 『이순신전』, 고려관 1929.

이윤재, 「성웅 이순신」, 『동아일보』, 1930.10.3.~(43회)

15) 『동아일보』, 1926.7.24.~, 1927년 한성도서주식회사에서 단행본 발간.

한 조선이라는 나라가 잊혀질 지경에 이르렀다고 부르짖으며 내보였던 안타까움은¹⁶⁾ 그야말로 안타깝게도 독자들에게는 다소 관념적인 호소였던 반면, ‘담보잡혔던 땅이 은행에 경매로 넘어간다’라는 기사를 접할 때 독자가 느끼는 상실감은 매우 구체적인 현실적 체험이었던 것이다. 박은식 역시 「이순신전」에서 대한제국의 멸망 원인을 민족이 이순신을 잊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국권 상실 원인 = 이순신 망각’이라는 논리의 비약을 보였다. 그런데 1931년 『동아일보』가 이순신을 도난당할 국보처럼 긴박하게 사건화함으로서 그에 대한 의심의 여유는 허락되지 않게 된다. 신문은 역사서에 있던 이순신을 ‘상실될 위기에 처한 수호의 대상’으로 인식되게 하며 생명력을 부여했으며, 신문 독자로 하여금 그의 위토 및 유적 보존 운동 모금에 동참하게 함으로서 이순신과의 연대감을 고무시켰다.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 『동아일보』는 민족정기의 상징인 이순신의 수호 주체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게 되었으며, 자금의 수합과 지출을 주관하는 민족적 사업을 1933년 봉안식이 거행될 때까지 추진하게 된다.

신문이 주체가 되어 추진한 전국적인 모금운동은 이전에도 선례가 있었지만 그 대상의 성격은 달랐다. 1900년대 『황성신문』 등은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했으며 『매일신보』는 1910년대부터 『동아일보』는 1920년대부터 수해민을 위한 동정금을 모금했다. 유학생 청년들은 일찍이 잡지 등을 통해 독자들에게 고학생들을 위한 동정금을 요청했었다. 『매일신보』에 연재되던 이광수 소설 「무정」(1917의은 작품 후반부에서는 청년 지식인 주인공들이 수해민을 돕기 위한 동정음악회를 열어 동정금을 모금한다. 고학생으로 성장한 영어 교사, 기독교 장로의 딸인 여학생, 신문사 기자, 유생의 딸이자 기생출신으로 구성된 이들이 공히 유학을 통해 불쌍한 민족을 구원하련다는 의지를 분연히 표하는 것으로 소설은 종결된다. 도탄에 빠진 민중을 위한 모금이었고 따라서 그것은 ‘동정금’으로 불렸다. 그런데 모금의 대상이 변했다. 동정이 아닌 숭배의 대상이 위협에 빠졌다는 것이다. 1932년 5월까지 2만 명이 참여, 1만7천원이 모금된 이순신 모금운동에는 기생, 빈곤층, 소학교 학생, 시골 노인까지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생계를 위해 전당포에 소유물을 맡기러 가던 사람조차 포함되어 있었다. 그 중에는 ‘성금을 내니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이순신 수호를 향한 의지는 개인들에게 내면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모금 운동은 신문 역사소설 독자 밖의 대중까지 아울러 참여시킨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신채호 박은식 이광수 등의 이순신 서사를 읽을 만한 독자는, ‘글을 읽을 수 있고 여가 시간이 있으며 다른 대중 독서물과 비교할 때 지적인 글’을 읽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중산계급 이상’의 소위 ‘지식인연’ 하는 독자에 한정되어 있을 터였다. 이는 전국민적으로 시행된 본격적인 문화재 모금으로서 볼 수 있을 것이다.

『동아일보』는 신문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서사와 시각 자료를 총동원하여 이순신에 관해 기술했다.¹⁷⁾ 신문사는 이를 전방위적으로 진행하며 유적 보존 운동 및 역사적 인물의 영웅화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축적할 수 있었다. 따라서 1931년 이순신 위토 경매사건 기사가 도화선이 된 ‘이순신 유적 보존 운동’은 『동아일보』의 1930년대 고적보존운동의 효시가 되었다. 이후 같은 해 8월 권율 도원수 기공사 보수 운동이, 그리고 이듬해 1932년 5월 단국유적 보존운동이, 7월에는 단국유적지의 탐사와 순례가 전개된다. 모두 유적의 쇠락과 축소 등 긴장감을 보도하며 시작하는 식이었다. 이후 1935년 10월에는 을지문덕이 대상이 되었다. 『동아일보』는 1935년 10월 사회부장이던 현진건을 특파해 을지문덕의 묘를 돌아보는 기행문을 실는다. 평양지식인들과 유지들은 평남 을지문덕 묘 보수를 위한 모임을 조직했다. 1934년 갑신정변 50주년, 김옥균 암살 40주년을 기념하여 추모의 분위기를 고조되었을 때에는 김기진의 장편소설 「청년 김옥균」¹⁸⁾을 연재했다.¹⁹⁾

16) 『대한매일신보』, 1908.10.24. (단체 신채호 전집 편찬위원회, 『단체 신채호 전집』 제4권 전기,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17) 기사, 사설, 칼럼, 독자투고, 성금명단 및 사연, 기행문, 보도자료, 소설, 야담대회, 가사, 초상화 등.

이순신으로부터 시작된 일련의 '민족의 영웅 유적 보존 운동'은 1931년 문화민족주의적 움직임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²⁰⁾ 이충무공유적보존회가 창립되기 일주일 전 신간회는 해산이 결의되었으며(1931.5.6) 이로 인해 이른바 타협·비타협 인물들이 유적보존회와 같은 민족의 독자성 강조 운동에 합류하게 된다. 이는 민족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역사 언어 고전 등의 각 문화 방면에서 진행된 국학운동의 물결로 볼 수 있으며 학문적 깊이를 더했다기보다는 신문 잡지를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데 기여했다. 『조선일보』 역시 1930년대 중반부터 고전부흥운동을 추진했다.²¹⁾ 1930년대 초반 일어난 '고적 보존 운동' '고전 부흥 운동'은 '조선적인 것'에 대한 열망이었다는 점에서 1930년대 후반 식민지 조선이 정치적 저항이 아닌 전통 문화의 보존을 통해 일본 내 지방으로서의 정체성을 획득하고자 했던 시도와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²²⁾

이렇게 1931년 5~6월을 거치며 이순신은 임진왜란의 독보적 주인공으로서의 패권을 다지게 된다. 1925년 『한양오백년가』(세창서관)에서는 임진왜란의 여러 충신열사들 중 1명으로 언급되지만 했던 이순신이 이후 가사에서는 주연으로 부상하게 되는 것이다.²³⁾ 그리고 그 해 6월부터 잡음이 들려오던 만보산 지역의 갈등이 7월 조선 내 배화 폭력 사건을 기점으로 부각, 10월 27일 재만동포구제회 창립으로 재만동포 위호금품이 성금 지면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이미 그 해 8월 초, 이충무공유적 보존에 '너무 오랫동안 신문 전 페이지를 희생하여' 독자에게 지리한 감을 준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었으니²⁴⁾ 표면적으로는 만주사변 호외에 밀리는 형국일 수 있으나 실상 '이순신 열풍'의 시효가 다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다.

Ⅲ. 거북선이라는 외피와 난중일기라는 내면

이광수의 소설 「이순신」(1931)은 식민지 시기 대표적 이순신 소설이자 많은 이순신 서사 중 신채호의 『이순신전』의 계보를 잇는 존재로 여겨져 왔다. 신채호나 이광수 모두 이순신에 관한 인물 서사를 집필함에 있어 이전의 서사물보다 이순신이라는 인물의 정신을 더 잘 구현하고자 한다는 자부심을 보였다. 신채호는 “목은 소설책”을 의식했고 이광수는 이순신을 소재로 근대 장편 소설로는 처음 만든다는 데 의의를 두었다. 야심차게 기획된 두 텍스트는 종종 비교되곤 하는데, 이 때 1908년 신채호 『이순신전』은 국권 회복과 민족 기상 고취를 목적으로 한 기개 있는 서사로, 1931년 이광수의 『이순신』은 왕의 무능과 지배 계급의 부패를 국권 피탈의 원인으로 묘사한 친일적 서사로 보는 시선이 존재했다. 그런데 두 텍스트를 대조해보면, 실상 신채호의 『이순신전』에서도 조정이 부패하고 분열되었다는 시대적 진단을 빈번히 찾을 수 있다.²⁵⁾ 그 속에서 이순신 혼자 우리민족을 살렸다는 것이다.²⁶⁾ 이는 이광수의 『이순신』과 같은 논리이며 따라서 식민지 시기 이광수의 「이순신」이

18) 연재 제목은 「심야의 태양」. 김기진, 「심야의 태양」, 『동아일보』, 1934.5.3.~9.19.

19) 이상우, 「식민지 시대 김옥균의 문화적 재현과 그 의미」, 『한민족어문학』, 한민족어문학회, 2011, 348쪽.

20) 이지원은 1930년대 위인선양 고적보존 운동을 민족주의 문화운동 계열이 일제하 합법적 문화 운동의 방식으로 전개한 사업으로 진단했다. 이지원, 『한국 근대 문화사상사 연구』, 혜안, 2007.

21) 황중연,

22) 1930년대 후반 「로컬 컬처」담론에 관해서는 권명아, 「기념의 정치와 지역의 문화 정체성-저항과 글로벌 마케팅 사이」, 『인문연구』53호,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7, 7-8쪽.

23) 박태일, 「이순신 담론 연구: 근현대 역사 가사를 중심으로」, 『한국 근대문학의 실증과 변증법』, 소명, 2004.

24) 「호외의 호외」, 『별간군』42호, 1931.8.

25) 해당 내용이 담긴 대표적 연재는 금협산인 저술, 패서생 번역, 「수군의 제일 거룩한 인물 이순신전」, 『대한매일신보』 1908.6.12.(2회), 1908.10.17.

26) 금협산인 저술, 패서생 번역, 「수군의 제일 거룩한 인물 이순신전」, 『대한매일신보』, 1908.10.18

친일적 역사관을 보였다는 평가는 1908년도 신채호의 서사와의 비교 속에서 면밀히 재고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이광수의 「이순신」이 신채호의 「이순신전」과 보이는 두드러지는 차이는 근대적 소설이라는 양식을 통해 거북선과 『난중일기』를 이순신 서사의 중심에 놓게 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대한매일신보』의 「이순신전」이 국한문체와 순한글이라는 두 버전으로 동시에 연재되며 한문세대와 한글세대 그 어느 쪽도 놓치지 않고자 했다면, 『동아일보』의 「이순신」은 신채호 독자 세대와 그 다음 세대를 단일 언어 매체로 통합했다.

신문연재소설 「이순신」은 거북선 삽화를 1회에 내세우며 ‘거북선’의 주조와 구조, 작동에 관한 세밀한 묘사로 시작한다. 이 점은 이전의 이순신 서사와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이광수의 「이순신」은 신채호나 박은식의 「이순신전」과 달리 전이 아닌 소설 양식을 표방했기 때문에 연대기적 서술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신채호의 「이순신전」이 필자의 서언에 해당하는 도입부와 시대상황에 대한 소개, 이순신의 탄생과 성장기의 영웅적 일화 등을 거쳐 12회에 가서야 거북선을 잠시 등장시켰던 것과 비교할 때²⁷⁾ 이광수의 「이순신」이 1회부터 전면적으로 거북선을 등장시켰다는 서사의 초점이 달라졌음을 뜻한다.

이광수 자신은 거북선 발명가로서 이순신을 내세우고자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이광수가 자세히 묘사한 거북선의 구조나 그 과학적 기능 등은 당대 독자들에게 인상적이었던지 연회전문 교장이던 Horace H. Underwood(원한경, 1890~1951)는 영문 저서 *Korean Boats and Ships*(Chosen Christian College, 1934) 서문에 거북선 항목은 이광수의 『이순신』를 참조했다고 밝혀두었다. 이는 일찍이 광혜원에서 물리 화학을 가르쳤던 그가 영국 왕립 아시아학회 조선분과지(Shipbuilding Division)를 통해 발간한 소위 엄중한 고증을 요구하는 ‘논문’이었는데 그것이 이광수의 소설을 참조했음은 소설 「이순신」이 독자들에게 객관적 고증을 바탕으로 한 역사 서사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뜻한다.

물론 거북선은 일찍이 근대적 발명품으로 주목되었다. 그 기록은 1899년 『황성신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당시 거북선은 세종대왕의 한글, 활자 인쇄술이나 요업기술과 함께 조선의 진보한 문명의 근거, 즉 ‘비서구적 개화’의 근거로 동원되었다. 거북선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과 그에 대한 과장된 평가는 1차 세계 대전을 계기로 증폭되었다. 거북선이 잠수함이었다는 신화는 1차 세계 대전 당시 근대 과학무기로 잠수함의 위력이 알려지고 1921년 워싱턴 회의에서 열강의 군사력을 재조정하며 보유 전함에 대한 관심이 부각된 1920년대에 본격적으로 유포되기 시작했다.²⁸⁾ 1920년대 아동잡지 및 대중잡지 등에 나타났던 ‘거북선=잠수함’ 도식은 1930년대 『동아일보』가 「과거 조선의 발명발견계」 기사에서 거북선을 대표적인 세계적 잠수함 발명품으로 언급하며 신문이 제공한 지식으로 쉼기를 박게 된다.²⁹⁾ 그리고 이는 문명의 척도가 과학으로 측정되기 시작한 근대 이후의 시대 속에서 이순신이 ‘과학적 근대인’으로서 거듭나게 된 것과도 관련되었다.

그런데 이광수는 자신이 발명가로서의 이순신이나 전쟁영웅으로서의 이순신이 아닌 ‘인격자’로서의 이순신을 그리고자 함을 거듭 밝혔다. 그는 「민족개조론」(1922)에서 전개시킨 ‘인격수량론’ 담론을 이제는 이순신을 인격적 위인으로 형상화하는 데 적용시켰다. 이광수는 이순신의 ‘자기 희생, 초월적 그리고 끝없는 충의(애국심)’을 숭앙하며 소설을 통해 이순신의 ‘충의로운 인격’을 고기록에 기초하여 구체화하고자 했음을 밝혔다.³⁰⁾ 그런데 역사 속에 그 행적만 간략히 기록되어 있는 인물의 인

27) “기특한 지혜를 내어 변신을 신발명하였는데 앞에는 용의 머리와 같이 입을 만들었고 등에는 강철로 칼날과 같이 길로 박았고 배 안에서는 밖을 내다보아도 밖에서는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여 (중략) 지금 세계에서 쓰는 철갑선의 조상이라하며 서양 각국 해군가에 각급 그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느니라.” 『대한매일신보』, 1908.6.24.

28) 이기훈, 「거북선이 잠수함이었다고?」, 『역사비평』82호, 역사비평사, 2008.2. 522쪽.

29) 이기훈, 위의 글, 523~524쪽.

30) 이광수, 『동아일보』, 1931.5.31.

적을 무엇에 기초하여 구체화한단 말인가. 여기서 그가 인격을 구체화하는 근거는 바로 『난중일기』였다. 일기는 장르적 특성상 개인의 내면, 인격이 담겨 있으리라 기대되는 것이다.

이전까지의 '진'류가 일대기적 서사 순서를 따르며 행록과 행장 등의 기록에 의존했다면, 임진왜란 시기만 주로 서술한 이광수의 『이순신』은 이 시기를 배경으로 쓰여진 『난중일기』를 주로 인용한다. 이광수는 창조하거나 상상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리려고 했다고 강조하는데, 이 때 장편 소설에서 세밀하게 묘사된 이순신의 언행과 감정의 근거로는 『난중일기』를 들었고 직접 인용하는 대목들도 많다. 이렇게 이순신을 인격자로 서술하고 그 서술의 내용적 근거를 난중일기에 기대는 형식은 이광수의 「이순신」에서 본격화되어 오늘날 김훈의 『칼의 노래』나 김탁환의 『불멸의 이순신』에 이르기까지 이어졌다.

전쟁 중 7년 동안 제목도 없이 기록된 문서는 200년 후 『난중일기』라는 제호로 간행되었고 조선 정조 때 『이충무공전서』 8권 중 5~8권에 걸쳐 실리게 된다. 『난중일기』는 자유당 정권 아래 국역사업으로 번역되기 전까지 일반 독자들에게 읽힐 가능성은 적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중일기』는 전문이 직접 읽히진 않았지만 부분적으로 공개(open)되어 있었고, 일기나 이순신 서사의 대표성(represent)을 띠고, 관직의 공무에(public service) 대한 기록이며, 전국민이 공유한 최초의 일기라는 점에서 '공공성'³¹⁾을 띠게 된 기묘한 개인 일기이다. 실제 『난중일기』³²⁾에는 관리로서의 일과를 기록한 부분이 많다. 왜적과의 전투 기록('왜적의 머리를 ~개 베었다.'), 전투 준비 기록('활을 ~대 쏘았다', '준비가 될 되어 책임자 ~를 곤장 ~대 때렸다', 훈련과 군량 확보에 관한 기록), 그리고 날씨와 업무, 건강 상태에 관한 기록들이 빈번히 보인다. 감정이 드러나는 부분은 전투 준비에 차질이 생기거나 실제 전투의 결과가 않좋을 때, 어머니나 가족에 관해 쓸 때 사실의 나열 뒤에 덧붙이는 정도이다. 오히려 깊은 좌절감을 맛본 날의 기록은 "밤새 홀로 앉아 있었다"는 식의 사실 진술에 그치기도 한다. 또한 조선 장수나 지도자들이 사리사욕으로 나랏일을 제대로 보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힐난하는 대목, 그리고 조선이 명나라의 도움 속에서 왜적에 대응할 수 있었던 대목들도 기록되어 있다. 거북선이나 내면의 갈등 등이 『난중일기』의 서사적 중심축은 아니다. 오히려 군물을 어긴 부하는 곤장을 내리고, 거둬 어긴 부하는 목을 베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을 기록하는 등 '날씨와 체벌과 병상에 대한 기록'이 일기에는 반복적으로 담겨있다.³³⁾

하지만 남겨진 일기는 이처럼 취사선택되며 왜곡되는 지점을 감내해야 하는 반면, 일기를 남긴 자는 역사 서술의 주도권을 쥐는 권한을 얻게 된다. 일기가 있는 인물은 소설의 주인공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고, 작가가 일기를 자료로 하게 됨으로서 일기 필자의 시점에 따라 사건과 시대가 조명될 확률도 높아진다. 김기진이 청년 김옥균을 집필할 때 김옥균 회고록인 『갑신일록』을 자료로 삼았다.³⁴⁾ 그런데 일기라는 기록물에 의지한 인물 서술은 그가 사회 내 고립되어 있다는 인상을 주기 쉬우며 따라서 일기를 근거로 인물을 형상화 할 때에는 '독야청청한' 이미지가 그려지기 십상이다. 일기에 근거한 인물 서술은 자기 순환적 정의이자 자폐적 서술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고찰이 요구된다.

31) 사이토 준이치, 윤대석 외 역, 『민주적 공공성』, 이음, 2009.

32) 이순신 지음, 허경진 옮김, 『난중일기』, 한양출판사, 1997. 이는 정조 때 발간된 『이충무공전서』를 원본으로 번역한 것이다.

33) 2000년대 이순신 서사 붐을 일으킨 『칼의 노래』의 저자 김훈 역시 『난중일기』에 빈번히 등장하는 사형 및 곤장 형벌에 주목했다.

34) 그런데 그는 동시에 명치 때 일본 신문인 『시사신문』도 자료로 삼았다. '개인의 자신에 관한 기록'과 '타국에서 본 기록'을 병치하며 구축한 김옥균 서사가 어떤 직조물을 구축했는지에 관해서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IV. '이순신 사업'을 둘러싼 들출된 목소리들

임진왜란의 영웅 이순신 서사가 일본의 지배 속에서 아무런 갈등 없이 유통될 수 있었다면 그것은 도리어 이상한 일이다. 일본측 사기는 일본의 전쟁 패배 원인을 명나라의 개입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으나, 17세기 후반 류성룡의 『징비록』이 일본으로 유입된 이후 일본 측의 기록에서도 이순신의 위대함을 부각시키는 기록을 종종 찾아볼 수 있었다.³⁵⁾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며 이순신에 관한 서사를 묵인하거나 그 이전부터 오히려 적극적으로 고평하는 태도를 취한 까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석이 있다. 이는 '이순신 같은 조선 영웅을 이긴 일본 장군은 더욱 위대함'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나 '적군 장군을 높이 평가하는 일본 장군의 너그러움'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는 것이다.³⁶⁾ 또한 총독부 측에서는 충신으로의 이순신 상은 천황 숭배를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판단했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조선 왕조의 지배계급이 부패되어 있었음을 부각시킨 이순신 서사는 식민화를 설득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라는 것 등이다.

이순신 해석을 둘러싼 갈등은 일본국사 수업 시간에 발생했다. 1928년 4월 3일자 『동아일보』는 이충무공문제 14명이 강제 전학했음을 보도한다. 대구보통고등학교 일본인 교육자가 일본역사 시간에 임진란의 이순신을 '적'이라고 한 것에 학생들은 '조선의 충신이 아니냐'고 반발했고 이에 이들은 사실상 퇴학 처분을 받게 된다. 기사는 이러한 처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일고 있음을 언급해두었다. 이러한 사건 보도는 이순신에 관한 해석과 논쟁이 식민지라는 조건 속에서 어떤 마찰을 빚을 수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순신 영웅화는 일본과의 갈등 외에도 그 영웅 숭배성이 갖는 한계를 둘러싸고 비판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광수의 이순신 숭배론을 비판한 대표적 논객으로는 김명식이 있었다. 김명식과 이광수의 논쟁은 이전 해부터 시작되었다. 1931년 7월 이광수의 「지도자론」³⁷⁾에 대한 김명식의 비판문인 「지도관념과 원동세력, 이광수씨의 「지도자론」비판」이 9월 게재되고, 이에 다시 이광수가 「김명식씨의 소론을 박(駁)함」, 「비상시대인물론」으로 대응하며 긴장관계를 지속해왔던 것이다. 김명식은 이광수의 「민족개조론」에서부터 「지도자론」에 이르는 사상을 “무저항주의”로 요약하고 조선민족의 다급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음을 비판했다.

'이순신 유적 보존 운동'과 이광수의 「이순신」 연재가 끝물에 달하고 있던 1932년 3월, 김명식³⁸⁾은 이순신 영웅숭배로 전면 비판했다. 그의 논설 「영웅주의와 파시즘, 이광수씨의 몽(夢)을 계(啓)함」³⁹⁾은 이광수가 이순신에 대해 보인 태도를 영웅주의로 진단한다. 그는 영웅주의란 봉건주의와 자본주의의 과도기인 절대주의의 산물로 이에 대한 맹목적 추구는 세계사적 맥락을 무시한 이광수의 파시즘적 꿈에 불과하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그는 『동아일보』가 구심점이 되었던 이순신 묘지문제를

35) 1908년 현재는 하야시 다이스케의 『조선사』와 『조선근세사』를 번역하여 『동국사략』을 내며 하야시가 임진왜란의 일본 패전이 명나라의 개입 때문이었다고 기술한 부분을 변형하여 조선측의 이순신과 거북선, 의병의 공을 부각시켰다. (앙드레 슈미트 지음, 정여울 옮김, 『제국 그 사이의 한국』, 휴머니스트, 2009, 361~364쪽.)

36) 김시덕 지음, 『그들이 본 임진왜란』, 학고재, 2012. 186쪽. 여기서 김시덕은 일본측의 이순신에 대한 고평을 로마의 한니발 영웅화에 비유한다. 로마의 역사가 폴리비우스는 로마의 장군 스키피오의 후원을 받고 카르타고의 장군 한니발의 위대함을 부각시킨 역사전기물을 기록하는데, 이는 한니발을 이긴 스키피오의 위대함을 더욱 부각시킨 의도였다는 것.

37) 이광수, 「지도자론」, 『동광』 1931.7.

김명식, 「지도관념과 원동세력과 이광수씨의 「지도자론」비판」, 『삼천리』, 1931.9.

38) 김명식(1890~1943): 와세다대 전문부 정치경제학과 졸업, 1914년 조선인 유학생 학우회 기관지 『학지광』 편집, 1920년 4월 1일 『동아일보』 창간에 참가하여 논설위원으로 사회주의 사상 소개에 앞장섬. 1922년 『신생활』이 창간되며 이사 겸 주필을 맡음. 이후 『신생활』 필화사건으로 복역, 1927년 신간회 제주지부 지회장을 맡음. 1930년에는 오사카 조선인 노동운동 지도하게 오사카 형무소에 재수감 됨. 1940년까지 『동아일보』 등에 세계사와 인류문명을 진단하는 글을 연재.

39) 김명식, 「영웅주의와 파시즘, 이광수씨의 몽을 계함」, 『동광』 31호, 1932.3.

“조선인의 영웅주의에 대한 감격을 도발한” 것으로 혹평한다. 사회주의적 유물론적 사상을 흡수했던 그는 이순신이라는 개인의 관념적 영웅성이 아닌 그의 지위(계급)와 기술(지리적 지식, 선박 제조 기술 등)이 이순신이라는 사실(史實)을 만들어 낸 조건의 전부임을 강조한다. 무엇보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전쟁의 무기”가 있어야 했으니, 그에 따르면 조선 육군 패배의 원인은 바로 무기/기술의 후진성이었다. 그는 이광수의 이순신 영웅화가 “사회적 관계와 기술적 발명”을 떠나 “추상적인 관념적인 표면”만을 보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이광수는 거북선을 전면으로 부각시키며 소설 『이순신』을 시작했으면서도 자신이 결코 이순신을 ‘철갑선의 발명자로’나 ‘임란의 전공자로 숭앙하는 것’이 아니며 인격자로 그리는 것임을 강조한다. 바로 이 ‘인격’이나 ‘민족정신’이 김명식이 지적한 추상성과 관념성이었다.

하지만 김명식처럼 이순신 숭배 열풍을 불철저한 이성의 꿈으로 진단하며 비판했던 목소리는 좀처럼 찾기 힘들었다. 오히려 반대로 일반 잡지를 통해서도 이광수의 이순신 숭배가 시류에 편승한 저널리스트틱한 것, 즉 알파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었다. 여기에는 이순신 숭배는 보다 융숭깊은 것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해성』의 한 기자는 이 시기 다작된 이광수의 이순신에 관한 일련의 글을 두고 저널리스트틱한 관심이라고 일축했으나 이에 이광수는 자신의 이순신 숭배는 역사가 깊은 것임을 주장하며 반박한다.⁴⁰⁾ 실제로 그는 『소년』(1910)에 「우리 영웅 충무공 이순신」이라는 장문의 신체시를 게재한 바 있다. 또한 『동아일보』의 이순신 특집이 진행되는 같은 기간에 『동광』 잡지를 통해서도 『이충무공행록』을 번역 연재하기도 했다.

그런데 『동아일보』의 일련의 이순신 특집은 언론사간의 민족지를 향한 인정투쟁과 상업적 경쟁이라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탄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1920년대 후반부터 문맹퇴치·문자보급 운동을 둘러싸고 경쟁적으로 운동을 전개했다. 1931년 여름 신문의 주요한 이슈로는 만보산 사건과 이충무공 유적 보존 두 가지가 거론되었으며, 이 때 『조선일보』와 『매일신보』의 만보산 사건 호외 남발은 이것이 유발시킨 조선-중국인 간의 폭력 사건들 때문에 그 경솔함이 비난을 받기도 했다.⁴¹⁾ 이순신에 관해서라면 『조선일보』의 안재홍 사장 역시 해마다 충무공 탄신일에 사진과 기사를 게재하고 그의 초상화를 가까이 모시는 등 숭배의 열을 표해왔었다는 풍문도 돌았다. 그런데 『동아일보』 기자 박금이 독점으로 위토 경매 기사를 내게 되었고 이에 이충무공 유적 보존운동을 벌이면서 민족주의적 담론을 주도하는 입지를 다지게 된 것이다.⁴²⁾ 1931년 이순신 붐 속에는 ‘조선-일본인’ 간의 역사적 인물 평가 차이, 전쟁영웅의 핵심적 요소에 관한 해석 차이, 그리고 언론사 간의 패권 쟁취라는 불협화음들이 흐르고 있었다.

V. 결론

구두 발표로 대신함.

40) 『삼천리』, 1931.7.

41) 사건의 본질을 신문 호외가 아닌 조선인과 중국인 노동자들 간에 직업적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로 진단하는 목소리는 당시 사회주의 진영과 일부 지식인들에게서 나왔다. 이상경, 「1931년의 ‘배화(排華) 사건과 민족주의 담론」, 『만주연구』11호, 만주학회, 2011.6. 105쪽.

42) 「호외의 호외」, 『별건곤』42호, 1931.8.

장 신 (역사문제연구소)

1. 필자는 이 논문에서 세 가지의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는 ‘이순신 영웅화’에서 1931년을 중요한 시점으로 잡고, 이때에 ‘이순신=거북선=난중일기’의 도식이 대중화 되었다고 보았다. 더하여 이순신이 기존에 ‘전’이나 ‘실기’의 이야기거리에서 비로소 ‘훼손되어가는 민족정신의 표상’이자 ‘수호의 대상’으로 다급히 부활되었음도 지적하였다. 그리고 서구의 연구성과를 인용하여 대중화의 매개로서 역사교육보다 소설가나 저널리스트의 ‘통속적 역사서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순신의 경우 이광수의 소설을 그 예로 들었다. 둘째로 이광수의 <이순신>에 대한 기존의 통설들을 몇 가지 수정하고, 셋째로 단일한 목소리로 수렴되지 않는, 이순신 영웅화를 둘러싸고 발생한 불협화음이나 변민, 갈등을 부각시키겠다고 하였다.
2. 아직 완고가 아니고 발표를 위한 초고의 형태라서 그런지 필자의 주장은 선명하지만 논증과정은 명확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많은 부분이 생략되고 설명을 아끼고 있다. 특히 1931년의 시점과 불협화음을 정리하면서 “1931년 이순신 불 속에는 ‘조선-일본인’ 간의 역사적 인물 평가 차이, 전쟁영웅의 핵심적 요소에 관한 해석 차이, 그리고 언론사 간의 패권 쟁취”를 들고 있다. 현상적으로는 수긍할 수 있지만 표피만 분석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토론시간의 제약상 궁극한 것을 다 질문·토론할 수 없는 상황을 양해해주시면 좋겠다. 대신에 국문학자인 필자가 토론자로 역사학 전공자를 부른 것을 고려하여 토론에 임하려고 한다.
3. 여기서는 ‘이순신의 영웅화와 총독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필자는 총독부의 이순신 이미지를 충신으로서 천황숭배를 장려하는데 도움되며, 조선왕조 지배계급의 부패를 보여주면서 식민화를 설득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충신은 조선의 충신이지 ‘천황의 충신’으로 바로 연결시킬 고리가 없다는 점에서 지나친 감이 있다. 일본 내에서 일본인을 대상으로 ‘이순신의 충성’을 본받자고 할 때 그것은 특정한 국가(특히 조선)가 아니라 세계사 일반의 ‘충신’으로 대치가능하다. 반면에 조선에서는 이순신은 ‘왜’와 싸운 장군이였다. 이순신의 전적지를 비롯한 임진왜란의 유적은 400년이 흐른 뒤에서 도처에 산재해 있고, 그것은 국가의 공식간행물의 유무에 관계없이 민중에 전승되었다. 일본인 작가가 쓴 1920년 언저리 보통학교 교실의 모습이 그것을 잘 보여준다.

보통학교 일본역사 시간에 젊은 교사는 다소 난처해하며 조심스럽게 임진왜란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렇게 해서 히데요시는 조선을 침략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동들로부터는 마치 어딘가 다른 나라 이야기처럼 둔한 반향이 되돌아 올 뿐이었다.

“그렇게 해서 히데요시는 조선을 침략한 것입니다.”(반복)⁴³⁾

이처럼 임진왜란을 다룰 때 보통학교 훈도들은 매우 곤혹스러워 했다. 공식적으로 일본은 조선을 침략합병하지 않고, 세계대세를 읽은 고종이 메이지천황에게 '아름답게' 양위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 이전의 역사에서 '정복'을 강조하는 내지의 분위기와 달리 조선에서는 '평화로움'과 '불가피함', 선한 의도 등이 계속 강조되었다. 조선총독부의 통제 아래 있는 보통학교의 훈도들은 교원강습회 때마다 끊임없이 임진왜란 수업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본문에서 인용된 대구고보의 사례는 총독부의 통제가 느슨한 중등학교에서 발생했을 뿐 아니라 임진왜란 때의 조선인을 '적'으로 표현한 언사는 총독부의 입장과 다른 돌발적 행위였다. 오히려 내선의 융화를 어지럽히는 일부 몰지각한 일본인의 행위였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총독부는 1932년에 교과서를 개편하면서 〈보통학교국사〉에서 조선통치라는 특수사정을 고려하여 향토사 교재로서 임진왜란을 새로 집필하였다. 그것은 내지의 것과도 달랐는데, 가장 큰 특징은 '이순신'의 등장이었다. 일본군이 조선의 전역을 점령한 가운데 "조선의 남방 해상에서 이순신 때문에 일을 그르쳐 복상을 저지당했다"는 내용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었다. 조선의 전쟁영웅을 소개하되, 의미를 두지 않았다. 내전상황으로 서술하기에는 역사적으로 적합하지 않고, '적'으로 묘사하기에는 현실의 조선통치를 어렵게 할 수 있었다. 不可近不可遠이었다.

43) 나카지마 아쓰시, 이한정·미즈노 다쓰로 편역, 「순사가 있는 풍경 - 1923년의 한 스케치」 『일본작가들이 본 근대조선』 소명출판, 2009, 246~247쪽.



태평양 전쟁 시기 전쟁 영웅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가미가제 특공대와 9군신을 중심으로

- 길윤형(한겨레신문 국제부 기자)

지정토론 - 이형식(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프로필

길 윤 형(한겨레신문 국제부 기자)

◆主要著書 및 論文

나는 조선인 가미가제다, 2012, 서해문집

태평양 전쟁 시기 전쟁 영웅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가미가제 특공대와 9군신을 중심으로*

길윤형 (한겨레신문 기자)

1. 서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의 교훈은 지(智)·인(仁)·용(勇)이다. 여기서 ‘지’는 사리를 판단하고 분별하는 능력, ‘인’은 어진 감성과 신의로 부하들을 한데 묶는 능력, ‘용’은 굳센 행동으로 어떤 위협에도 옳은 일을 실천하는 덕목이라고 육사는 가르치고 있다. 표현이야 어찌됐든 지·인·용은 모두 “군인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내던져야 한다”는 위국헌신(衛國獻身)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1945년 8월 패전 이전 일본 육사에서 위국헌신을 강조하는 교육이 이뤄졌다. 물론 차이는 있었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충성의 대상을 일반 국민으로 설정하는데 견줘 일본 육군은 그 대상을 천황으로 한정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일본 육사는 생도들에게 ‘천황의 방패’(天皇の御盾)이자 제국 군대의 정간(楨幹)으로 천황을 위해 언제나 목숨을 바쳐야 한다는 존황애국(尊皇愛國) 정신을 철저히 주입했다.

대상이야 어찌됐든 군인에게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한다고 가르치고, 그 정신을 지키다 희생된 이들을 영웅으로 추모하는 행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나라에서 지속돼 온 일이다. 나라가 말 그대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던 태평양 전쟁 말기 일본에서도 수많은 군신들이 탄생했다. 더 많은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보내기 위해 일본 군부는 ‘육탄 3용사’¹⁾, ‘9군신’, ‘가토 전대’²⁾ 등 다양한 전쟁 영웅들의 이야기를 만들어 보급했다. 이런 이야기들은 교과서 등에 수록 되거나 영화로 만들어져 동시대인들의 정신세계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오랜 시간 조선인 강제동원 문제를 취재해 온 일본인 연구자 하야시 에이다이(林えいだい)는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전쟁 영웅들의 사연과 유골 상자에 담겨 돌아오는 친구 아버지들의 유훈을 보며 “나도 다음에 군인이 되어, 저런 군신들의 뒤를 따라야겠다”³⁾고 생각하게 됐다고 한다. 이후 9군신이라는 영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다루면서

* 이 원고의 주요 부분은 출처, 〈나는 조선인 가미가제다〉(서해문집, 2012)를 재구성한 것임을 밝혀둔다.

- 1) 제1차 상하이 사변이 있었던 1932년 2월22일 상하이 교외의 진지를 파괴하기 위해 폭탄을 들고 육탄 공격을 감행한 일본 육군 독립공병 제18대대의 에시타 다케지(江下武二), 기타가와 스스무(北川丞), 사쿠에 이노스케(作江伊之助) 등 3명의 병사를 이르는 말이다. 이들의 사연이 전해진 뒤 일본 언론들은 작전 수행을 위해 목숨을 내던진 3용사를 찬양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그러나 이들의 육탄 공격에 대해서는 도화선의 길이를 잘못 계산해 벌어진 실수였다는 반론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 2) 태평양 전쟁 초기 일본군이 확보한 인도네시아 제일의 유전지대인 팔렘방 점령 과정에서 크게 활약한 일본 육군 비행 제64전대. 연합군 전투기 수습 대를 격추시켜 일본 국민들 사이에 군신으로 불리던 가토 다테오(加藤建夫) 소장이 이끌던 비행전대(이른바 가토전대)였다. 이들의 활약을 담은 영화 〈가토 하야부사 전투대〉(加藤隼戦闘隊)가 1944년 3월 개봉돼 대 히트를 기록했다.
- 3) 林えいだい, 〈陸軍特攻振武寮〉(光人社NF文庫, 2009), 290쪽



살펴보겠지만, 영웅담을 더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 일본 군부는 없는 사실을 날조하거나 실제 현실을 비트는 왜곡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왜곡과 날조는 일본에서만 이뤄졌던 것은 아니다. 그런 예는 미국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의 영화감독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영화 〈아버지의 깃발〉(2007년)에서 다루고 있는 이오지마(硫黃島) 전투를 보자. 북 마리아나 제도를 이륙한 미국의 B-29 폭격기가 도쿄로 향하는 길목에 자리 잡은 이오지마를 점령하기 위해 미국은 1945년 2월 6800여명의 젊은이들의 목숨을 내주는 큰 희생을 치른다. 전쟁 수행을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했던 미국 정부는 섬을 점령한 뒤 가장 꼭대기에 성조기를 꽂은 이들을 전쟁 영웅으로 만들어 국채 매각을 위한 전국 순회공연에 동원한다. 그러나 이들은 위험한 전투를 치른 뒤 깃발을 처음 정상에 꽂은 병사들이 아닌 한번 넘어진 깃발을 일으켜 세운 ‘가짜 영웅’에 불과했다.

모든 나라는 국가 존립을 위해 전쟁 영웅을 만들어 추모하고, 그 과정에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심지어 없던 일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는 태평양 전쟁 말기 일본 군부에서만 이뤄진 일은 아니기에 그런 왜곡과 조작의 사례를 들어 일본을 비난할 순 있겠으나, 그것을 일본군만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말할 순 없다. 그렇다면 태평양 전쟁 말기 일본 군부가 창조해낸 '전쟁 영웅'들의 특징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이는 35년 간의 식민 지배를 겪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2. 왜 조선인 가미가제인가? -분석의 이유

우리는 일본 군부에 의해 이뤄진 전쟁 영웅 만들기 가 갖는 독특한 특징을 밝혀내기 위해 조선인 가미가제의 사례를 분석할 것이다. 조선인 가미가제의 사례에 주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인 가미가제 특공대원들은 일본을 위해 자살 공격에 뛰어들어 자신의 삶을 버렸다. 이들은 전사 직후 일본에 의해 ‘전쟁 영웅’으로 동원됐지만, 일본의 패전 이후 철저하게 버려지게 된다. 한 사회가 만들어낸 전쟁 영웅이 단 시간 내에 폐기되고, 그 사회 구성원들의 기억에서 완전히 잊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를 조선인 가미가제 특공대원들이 마주해야 했던 ‘민족적 모순’이라 정의해 두자.

태평양 전쟁 말기 조선인 특공대원들의 행위는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당시 조선의 민족적 이해에 반하는 행동이었다. 1943년 11월 미·영·중 3개국은 카이로 선언을 통해 조선의 독립을 약속한 뒤였고, 전세 역시 연합군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조선을 독립시키기 위해 진격하는 연합군 함선에 자살 공격을 시도하는 것은 당시 조선 민족의 시대적 과제였던 독립에 반하는 행동이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특공 작전에 뛰어들었을까. 조선총독부는 대한제국을 강점한 이듬해인 1911년 2월 조선의 교육을 관장하기 위해 조선교육령을 공포했다. 조선교육령은 1차부터 4차까지 세 차례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내용이 조금씩 변하지만 결론은 결국 조선인들에게 일본어를 보급시켜 ‘충량한 황국의 신민’을 만드는 데 있었다.⁴⁾

이후 조선의 교육이 노골적으로 황민화 색채를 띠게 되는 것은 1936년 8월 미나미 지로(南次郎)가 조선총독으로 부임하면서부터다. 그 직접적인 계기는 1937년 7월 중일전쟁이었다. 전쟁이 시작된 지 석 달 뒤인 1937년 10월 미나미 총독은 식민지 조선에 ‘황국신민서사’를 제정해 발표한다. 이후 각급 학교, 직장, 단체에서는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들은 황국신민이다. 충성으로서 군국에 보답한다”로 시작하는 서사를 제창해야 했다. 그와 함께 궁성요배 제도가 시행돼 조선인들은 아

4) 姜德相, 〈朝鮮人學徒出陣〉(岩波親書, 1997), 39~43쪽

침 6시에 일어나 세수를 한 뒤 천황이 사는 동쪽을 향해 공손히 절을 하도록 강요당했다. 이후 1940년부터 단계적으로 조선어 교육이 폐지됐고, 창씨개명 조처(1940년 2월)가 이뤄졌으며, 정오 사이렌 소리에 모두가 멈춰서 천황을 생각하는 정오의 묵도⁵⁾(1940년 8월)를 올려야 했다. 이 정책의 목표는 단 하나로 ‘조선 청년들의 전력화’ 즉 징병제의 실시였다. 이 과정을 통해 일본은 1938년 2월 육군특별지원병제도를 실시해 조선에서 지원병 모집을 시작했고, 1942년 5월8일에는 각의 결정으로 징병제 실시를 결정한다. 그렇게 모인 조선인 청년들 가운데 일부가 특공대로 선발됐고, 사후 일본의 군신이 된다. 그러나 이들은 일본의 패전 이후 철저히 버림 받고 동시대 일본인들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잊히게 된다. 즉, 태평양 전쟁 시기 이뤄진 일본의 ‘전쟁 영웅’ 만들기에는 다른 나라에선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피식민지인의 민족적 모순이 녹아 있는 것이다.

둘째, 조선인 가미가제 특공대는 비행기로 적의 함선에 돌진하는 자살 공격을 통해 숨졌다. 한국인들은 일상에서 다양한 일본어 표현들을 사용한다. 그 중에서 한국어로 쓰일 때 원래 일본어의 뜻에서 달라지는 말들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특공대 즉 ‘독고다이’(特攻隊)다.

한국인들에게 독고다이는 남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독불장군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다. 독고다이를 한국식으로 읽은 특공대도 일상적인 업무보다 어렵고 위험한 임무를 부여받은 ‘정에 집단’(Special Force)을 뜻할 뿐이다. 그러나 일본인들에게 독고다이는 폭탄을 가득 실은 비행기, 배, 어뢰형 잠수정 등을 타고 적함에 돌격해 ‘다이아타리(体当たり) 공격’(몸체 공격)을 감행하는 부대를 뜻한다. 다이아타리는 기본적으로 자살 공격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독고다이에 선발된 이들은 100%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했다.

특공이야 말로 태평양 전쟁 말기 연합군을 ‘멘붕’에 빠뜨린 일본군의 주요 전술 가운데 하나였다. 처음부터 의도한 특공은 아니었겠지만 중무장 화기가 뺏겨 배치돼 있는 적의 진지를 향해 정면 돌격을 감행하는 일본 육군의 백병전 전술도 큰 틀에서 볼 때 자살 공격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이는 미군 병사들의 눈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무모한 공격이었지만, 일본인의 눈에는 옥과 같이 바닥에 떨어져 깨끗하게 깨지는 옥쇄로 여겨져 칭송의 대상이 됐다. 태평양 전쟁 말기 등장한 일본의 대표적인 전쟁 영웅들은 특공과 관련된 인물들이었으며, 이는 다른 나라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일본 전쟁 영웅들의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인’이라는 민족 모순과 ‘특공’이라는 일본만의 변태적인 전술이 결합돼 탄생한 조선인 가미가제 특공대는 태평양 전쟁 말기 일본에서 이뤄진 ‘전쟁 영웅’ 만들기의 독특한 특징을 살펴 볼 수 있는 흥미로운 분석 대상이라 할 수 있다.

3. 일본의 군신이 되기까지- 조선인 가미가제 대원 박동훈의 사례를 중심으로

일본군의 독고다이에 편성돼 전사한 이들 가운데 조선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오랜 시간 한국인들에게 잊힌 주제⁶⁾였다. 조선인 특공대의 경우 비행기 조종이라는 업무의 특성상 대상 인원이 극히 소수였고, 그나마 자살 공격에 투입돼 모두 사망했기 때문이다. 남은 유족들도 일본을 위해 자살 공격을 감행한 ‘친일파의 가족’이라는 낙인이 두려워 그들의 사정을 드러내 말할 수 없었다.

지금까지 확인된 조선인 가미가제 특공대원의 수는 17명 정도에 이른다. 이 가운데 〈매일신보〉 등

5) 이상의 소설 〈날개〉의 마지막 장면에서 미스코시 백화점(현재 신세계 을지로 본관) 옥상에 선 주인공이 듣고 정신을 펄쩍 차리게 되는 계기가 되는 사이렌 소리가 바로 정오의 묵도를 알리는 사이렌이었다.

6) 조선인 특공대원에 대한 한일 양국에서 이뤄진 그동안의 연구와 관련해서는 배영미, 〈조선인 특공대원의 실태와 한일 양국의 인식〉, 《한국학연구 23호》(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2년 10월) 참조

당대 기록과 가족들의 증언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남아 있는 박동훈의 사례를 통해 조선인 특공대원들이 특공에 참여하게 되는 과정, 작전의 전개, 이후 전쟁 영웅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살펴보자.

박동훈은 1928년 4월 식민지 시기 조선 최대의 공업 지대였던 함경남도 흥남 옆의 함주에서 박성호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박동훈은 이후 식민지 시기 조선의 최대 자본가였던 일본인 노구치 시타가우(野口遵)의 일본질소가 1940년 56만엔의 자본을 들여 설립한 흥남공업학교에 1기생으로 입학했다. 이 학교는 당시 중학교와 수업 연한이 같은 5년이었다. 한 학년 모집인원은 200명으로 한 반에 50명씩 네 개 반으로 구성돼 있었다.

박동훈은 어릴 때부터 영민한 소년이었다. 흥남공업 시절 반에서 1~2등을 다룰 정도로 성적이 좋았다.⁷⁾ 그러나 박동훈은 졸업 대신 소년비행병⁸⁾의 길을 택한다. 일본인도 되기 힘든 비행기 조종사가 돼 조선인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을 극복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박동훈은 소년비행병 지원 직전 사이가 좋았던 동급생에게 “내선일체라고 말하지만 거짓말이야. 일본은 거짓말쟁이야. 나는 조선인의 배짱을 보여 줄 거야”라고 말했다고 한다.⁹⁾

박동훈은 1943년 10월 육군 소년비행병 15기 을로 후쿠오카(福岡) 다치아라이(太刀洗) 육군비행학교 아마키(甘木) 생도대에 입소했다. 당시 아마키 생도대에 입소한 이들은 2000여명이었고, 학교는 이들을 200명씩 10개 중대로 나누었다. 박동훈은 제일 마지막 중대인 10중대로 배치됐다. 박동훈은 10중대 194명 가운데 수석을 다룰 정도로 뛰어난 성적을 기록했다. 그는 1944년 3월 아마키 부대를 졸업한 뒤 타치아라이 육군비행학교 경성 교육대, 랴오닝성(遼寧省) 싱청(興城)의 제27교육대(16617부대),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哈爾濱) 마시아장(馬家講)의 제26교육비행대(제16616) 등으로 이동해 가며 97식 전투기¹⁰⁾에 대한 훈련을 받았다.

그러던 1945년 1월 무렵이었다. 어느 날 교육대장(중위)으로부터 집합 명령이 떨어졌다. 대원들에게 ‘열망한다’, ‘희망한다’, ‘희망하지 않는다’는 세 개 항목이 표시된 특공 지원서가 배부됐다. 당시 박동훈이 어떤 고민 끝에 답을 내렸는지 알려주는 사료나 증언은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이 시절 박동훈의 동기였던 에토 슈조(衛藤周藏)는 “희망하지 않는다’에 동그라미를 친 이들은 없었다”고 말했다.¹¹⁾ 그리고 지원서를 제출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박동훈은 특공대로 선발돼 부대를 떠났다.

박동훈은 1943년 10월에 입대해 비행시간은 고작 100~150시간에 불과했다. 전투기 조종사 한 사람이 실전에 투입되려면 최소 3년, 600시간의 훈련이 필요했다고 한다. 그 때문에 부대에서는 조종기술이 뛰어난 박동훈 같은 우수한 사람들을 먼저 선발할 수밖에 없었다. 박동훈의 동기생 에토도 “그가 톱클래스의 성적이 아니었다면, 조종기술이 뛰어나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을지도 모른다”¹²⁾고 단언하고 있다.

박동훈은 이후 오키나와 특공작전에 투입되기 위해 급조된 마코토(誠) 제41대에 배치된다. 1945년 2월 초 신경을 출발한 마코토 제41대는 악천후를 피해 경성에 불시착했다. 그는 이 때 편대장인 육

7) <매일신보> 1945년 4월15일 2면. 매일신보는 박동훈이 흥남공업을 ‘졸업’했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흥남공업은 1940년에 개교한 5년제 학교였다. 박동훈이 아마키 생도대에 입대한 것은 1943년 10월이었기 때문에 이 학교를 중퇴했다고 보는 게 옳을 듯하다.

8) 10대 중후반의 소년들에게 전문적인 항공 교육을 시켜 하사관급 항공 요원으로 활용하는 제도. 조종, 통신, 정비 등 세 개 분과가 있었다. 1933년 4월 일본 육군에서 도입돼 패전까지 이어졌다. 조선인 특공대원 대부분은 이 소년비행병 출신이었다.

9) 飯尾憲次, <開聞岳> (集英社文庫, 1989), 262쪽

10) 1937년 일본 육군에 의해 정식 채용된 저엽 단엽기. 1939년 노론한 사건 때 맹활약했으나 태평양전쟁이 막바지에 접어들 무렵에는 퇴물 취급을 받았다. 그 때문에 일회용인 특공기로 채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97식에서 97이라는 숫자는 채용년도인 1937년에 해당하는 일본 황기(2597년)를 뜻하는 말이다.

11) 飯尾憲次, 앞의 책, 227쪽

12) 飯尾憲次, 앞의 책 232쪽

사 56기 테라야마(寺山 欽造) 중위의 배려로 부모님을 만날 기회를 얻는다.¹³⁾ 큰 아들로부터 뜻밖의 전보를 받은 부친 박성호는 1945년 2월26일 경성 여의도 비행장에서 아들과 마지막이 될 지도 모르는 밤을 맞게 된다.¹⁴⁾

박성호는 이제 곧 숨질 운명인 아들을 앞에 두고 “왜 특공에 지원했느냐”고 물었다. 박동훈은 눈물을 흘리며 “나는 장남이라 못 간다”고 말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답했다. 부대의 상관들이 일본이 앞으로 가족들을 책임질 테니 안심하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박동훈은 부친에게 “동생들은 절대 군에 보내지 말라”고 신신당부 했다. 그러나 이날 만남에 대한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의 묘사는 사뭇 다르다.

이 용감한 청년이 유구의 대의의 길로 떠나기 직전 지난 2월25일 경성부 내 모처에서는 세상에도 기록하고 단란한 광경이 숨어 있었다. 그것은 오가와 오장이 군의 따뜻한 허락으로 전보를 쳐서 그 아버지, 그 어머니 그리고 어린 동생들을 경성으로 불러다가 안타까운 이틀 밤을 함께 지내었던 것이다.(중략)

타관인 경성의 숙소에서 아버지는 갓 나면서부터 어머니의 젖조차 제대로 먹지 못한 아들이 지금은 훌륭한 제국 군인으로서 그 중에도 용맹스러운 아라와시(전투기 조종사를 부르는 애칭)로서 성장해 버린 것을 눈앞에 보고 만족한 웃음을 참지 못하였다. 아버지는 단 하루 밤을 그것이 아들과의 마지막인 줄도 모르고 베개를 같이 하고 지난 후 돌아가 어머니는 동생들과 함께 다시 하루 밤을 지내었다.¹⁵⁾

박동훈은 결국 3월29일 새벽 오키나와 중비행장에서 출격해 전사했다.

본토 결전을 눈앞에 둔 조선총독부에게 조선인 특공대원의 전사는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선전 도구였다. 그의 죽음 이후 <매일신보>는 박동훈에 관한 기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영웅 만들기에 나선다. 그의 박동훈에 대한 1보가 실린 것은 그가 죽은 지 보름 정도가 지난 4월15일이었다. <매일신보>는 이날 ‘나하 해상에 산화한 네 번째 반도의 가미와시(神鷲)’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동훈의 전사 소식과 그에 대한 주변인들의 반응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이틀 뒤인 17일에는 <매일신보> 기자의 생가 방문기, 24일에는 박동훈 편대에 대한 지인들의 회고담, 5월9일치에는 아베 노부유키(阿部 信行) 조선 총독의 부인인 미쓰코(光子)가 박동훈의 생가를 방문했다는 소식 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 정도만 돼도 상당한 호들갑인 것 같지만 조선인 최초의 특공 전사자인 인재웅¹⁶⁾에 대한 열광과 비교해 보면 오히려 담담한 편이라 할 수 있다. 인재웅의 죽음이 전해진 뒤 <매일신보>는 첫 보도일인 1944년 12월1일부터 무려 3주에 걸쳐 인재웅 일대기, 각계 애도 물결 등 수십 건의 보도로 지면을 도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박동훈을 영웅으로 만든 이유를 명확히 보여준 것은 장례식을 주도한 일본 부인회의 태도였다. 그들은 조선식으로 상을 치르길 원했던 유족들의 뜻에 반해 일본식 장례를 치른다. 또 가족들에게 “명예로운 죽음이기 때문에 울면 안 된다”고 곡을 금했다. 마을이 생긴 이래 가장 성대한 장례식이 열렸지만 이는 숨진 이와 유족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영웅 만들기의 정점은 그의 마지막 육성 방송이었다. 박동훈은 출격 직전인 1945년 2월 만주 신징에서 특공 출격에 대한 결의를 담은 음성을 녹음한다. 이 음성은 박동훈이 숨진 뒤 두 달 반이 지난 1945년 6월12일 오후 8시5분 경성 중앙방송국의 전파를 타고 전국 방방곳곳에 울려 퍼졌다. 당시 녹음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¹⁷⁾

13) <매일신보> 1945년 4월24일치 2면

14) 2010년 1월 인천 서구에서 박동훈의 막내 여동생 박혜옥씨와 진행한 면담 내용을 재구성.

15) <매일신보> 1945년 4월15일 2면

16) 서정주의 친일시 <마쓰이 오장 송가>의 주인공. 창씨명은 마쓰이 히데오(松井秀雄)이다.



역사를 지키는 동포여, 각자가 특공대가 되어 이 역사를 영원히 지켜주세요. 그곳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아버님, 어머님 이 불효자를 용서해 주세요. 부모님께서 용서해주신 것으로 알고 용감히 전쟁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생들이여, 형으로서 오빠로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것을 용서해다오. 강하고 건강하게 자라다오. 안녕.

일본이 패망한 뒤 유족들의 지위는 '반도의 영웅'을 길러낸 애국자 가족에서 매국노 집안으로 급전직하했다. 특히 소련군이 주둔한 38도 이북 지방에선 친일파에 대한 청산이 비교적 철저하게 이뤄진 탓에 박동훈의 가족은 집과 재산이 몰수되는 고통을 겪는다. 박동훈의 바로 아래 동생인 박상훈은 1980년대 말 일본 언론인 기리하라 히사시(桐島久)와 인터뷰에서 "당시 보안대에 공산당계의 조직이 생겨 가족들이 이지메를 당했다. 그 과정에서 부친에게 정신 이상이 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¹⁸⁾

박동훈의 가족은 1950년 12월 흥남 철수작전 때 피난길에 오르게 된다. 남쪽으로 내려온 부친 박성호는 1960년대 초반 한일회담 협상을 위해 일본 대표단이 방한했을 때 그들의 숙소인 반도호텔(을지로 롯데백화점 터)에 찾아가지만 대표단을 만나진 못했다. 이후 박상훈은 지인을 통해 형이 야스쿠니 신사 영새부에 창씨명인 '육군 소위 오가와 마사야키(大河正明)'로 기록돼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¹⁹⁾ 유족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무단 합사'였다.

현재 야스쿠니 신사에는 박동훈 등 2만1천여명의 조선인들이 합사돼 있다. 한국인 유족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2005년부터 합사 철회를 요구하는 다양한 소송을 진행해 왔지만 야스쿠니 신사는 "합사 철회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유족들에 대한 보상 문제에서도 일본 정부는 1952년 4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조선인들의 일본 국적이 박탈됐다는 이유로 일체의 보상을 거부하는 중이다.

일본은 박동훈이 특공 작전에 투입돼 숨지자 전쟁 수행을 위해 그의 죽음을 철저히 이용했으며, 전쟁이 끝난 뒤엔 그를 철저히 망각했다. 현재 2만1천여명의 조선인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의해 추모되고 있다고는 하나 이는 유족의 뜻에 반해 이뤄지는 추모라는 점에서 죽은 이나 유족을 위한 것이 아닌 일본의, 일본에 의한, 일본을 위한 것이라 결론 내릴 수밖에 없다. 이는 일본이 35년 동안 조선에서 행한 식민지배와 내선일체론의 허구성을 폭로하는 것이며, 태평양 전쟁 말기 일본 군부에 의해 이뤄진 전쟁 영웅 만들기의 독특한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4. 특공의 영웅 신화가 만들어지기까지 -9군신의 사례를 중심으로²⁰⁾

이번에는 태평양전쟁 말기 일본의 대표적인 전쟁 영웅이었던 9군신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자. 1941년 12월8일 진주만 공격은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됐다. 하나는 야마모토 이소로쿠(山本五十六) 일본 해군 연합함대 사령관이 이끈 항공모함을 필두로 한 항공대, 다른 하나는 5척의 특수 잠항정을 통한 바다 속 공격이었다. 5척의 소형 잠항정은 미군의 감시를 피해 진주만에 진입한 뒤 어뢰 공격을 통해 미군 함정을 공격하는 임무를 부여 받았다. 진주만 기습이 성공한 뒤 일본 대본영은 "특수 잠항정의 어뢰 공격으로 미국 주력함인 에리조나호가 광침됐다"며 특수 잠항정의 전과를 발표하고,

17) 이 음성이 담긴 레코드판을 일본 <엔에이치케이>(NHK) 취재팀이 발견해 2004년 8월 'NHK 스페셜-남겨진 목소리'NHK로 방영해 큰 충격을 남겼다, <NHK스페셜> 「遺された声: 録音盤が語る太平洋戦争」 2004년 8월14일

18) 桐島久, <特攻に散った朝鮮人> (講談社, 1988), 174쪽

19) 桐島久 앞의 책, 163쪽

20) 이 부분은 2009년 12월6일 방송된 <NHK스페셜> 「真珠湾の謎: 悲劇の特殊潜航艇」에 크게 의존했다.

승조원들을 군신으로 만들어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진주만 기습으로 희생된 미군 2400여명 가운데 반 이상이 애리조나의 승조원이었으니 특수 잠항정이 진주만 공격의 가장 빛나는 전과를 올린 셈이다. 단, 특수 잠항정의 정원은 두명으로 원래는 10군신이 되어야 했지만, 대본영은 해변에 표류한 잠항정에서 살아남은 이와사 나오지(岩佐直治) 소위가 포로로 잡혔다는 이유로 그를 뺀 9명만을 군신으로 모셨다.

그러나 애리조나호의 격침이 특수 잠항정의 공격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선 그동안 많은 이들이 의문을 제기해왔다. 2009년 일본 <엔에이치케이>(NHK) 취재팀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하와이 현지 조사, 당시 작전에 참여했던 생존자들의 증언을 두루 취재해 특수 잠항정에 의한 공격은 아무런 전과를 올리지 못한 무모한 공격이었다는 결론을 내린다. 투입됐던 5척의 잠항정 가운데 일부는 만에 진입하지도 못했고, 유일하게 공격을 시도한 요코야마 마사하루(横山正治) 중위가 탑승한 잠항정의 어뢰도 적함을 타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전에 나서는 대원들의 마음만은 장렬했던지 요코야마 중위는 그를 배웅하는 데와 기치지(出羽吉次) 전신병에게 “내가 귀환할 때 혹시 적에게 발견된다면 적함을 달고 오는 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나는 돌아오지 않겠다”며 사실상 특공에 나서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애리조나호를 격침 시킨 영웅이 됐을까. 그 배경에는 특수 잠항정의 전과를 대내외에 과시하고, 그 승무원들을 군신으로 만들려는 일본 군부의 음모가 자리 잡고 있었다.

진주만 공격을 성공으로 이끈 후치다 미쓰오(淵田美津雄) 해군 비행대 총지휘관이 일본으로 무사히 귀환한 며칠 뒤인 1941년 12월26일의 일이다. 대본영의 아리이즈미 다츠노스케(有泉龍之助) 중좌(중령)가 그를 방문한다. 그는 애리조나호 격침의 전과를 특수 잠항대의 것으로 발표해도 되겠냐는 요구였다. 그는 “애리조나호가 특별공격대의 공격을 받아 격침됐다고 하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된다”고 반대했다. 애리조나호와 같은 대형 함선의 양 옆에는 배를 보호하기 위한 호위함이 붙어 있기 때문에 어뢰 공격으로 이 배를 격침 시키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후치다는 아리이즈미의 뜻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지만 결국 아리이즈미의 뜻이 관철돼 애리조나호 격침은 잠항정의 전과로 발표된다. 1942년 4월 9군신에 대한 공동 장례식을 치르며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당시 총리는 “옥쇄를 한 뒤에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 이는 우리나라 무사도의 정화”라고 이들의 죽음을 칭송했다. 이후 9군신의 사연은 각 신문에 크게 보도됐고, 1943년에는 <해군>이라는 국책영화도 만들어졌다.

9군신의 죽음 이후 ‘죽음으로 작전을 완수한다’는 특공은 일본군의 일종의 기풍으로 굳어져간다. 도조가 1941년 만든 ‘살아서 포로가 되어 욕을 당하지 말라’는 전진훈은 그런 각오로 적과 용맹하게 싸우라는 구호가 아닌 실제로 일본 병사들의 행동을 규정하는 규칙(code)이 됐다. 전황이 수세에 몰렸을 때 항복하는 대신 모든 병사가 옥과 같이 깨끗하게 죽음을 택한다는 옥쇄가 처음 시작된 곳은 1943년 5월29일 북태평양 알류산 열도(Aleutian Islands)의 애투(Attu)섬이었다. 이후 일본군은 태평양의 여러 섬에서 옥쇄를 거듭하며 패퇴했고, 그 과정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수많은 목숨들이 희생됐다. 그러나 옥쇄란 소중한 병사들을 섬에 배치한 뒤 보급을 포기한 일본군 상층부가 그들의 무능을 일선 병사들의 육체에 전가한 무책임하고, 비인도적인 전술일 뿐이었다.

일본 해군이 1944년 8월25일 ‘해군특수병령’을 개정해 특공을 해군의 정식 작전으로 채택한 것은 1944년 7월7일 ‘절대국방권역’의 한축이던 마리아나(Mariana) 제도의 사이판(Saipan)을 내준 다음 달이었다. 이후 해군은 비행기를 동원한 특공 뿐 아니라 작은 비행기 앞에 폭탄을 장착한 채 적함에 돌격하는 오우카(桜花), 사람이 탄 작은 어뢰로 적함을 들이받는 가이텐(回天), 폭탄을 가득 실은 작은 배로 적함을 들이받는 마루온테(マル四挺) 등 다양한 특공 병기를 개발해 실전에 사용했다. 그리고 이 작전에 투입된 병사들은 숨진 뒤 군신으로 모셔져 전쟁 수행을 위한 대본영의 선전물로 활용됐다.

그러나 양심은 살아 있었다. 70~80대의 노년에 이른 옛 일본 해군 장교들은 1980년대 초 “지난 전쟁의 진실을 후대에 남겨야 한다”며 100여 차례의 회합을 통해 남겨둔 400여 시간 분량의 녹취록을 남겼다.²¹⁾ 회합의 이름은 지난 전쟁을 반성한다는 의미의 ‘반성회’였고 도쿄 하라주쿠(原宿)에 자리한 해군 퇴역장교 회관 수교회(水交會)에서 한 달에 한 번 꼴로 진행됐다. 반성회에서 옛 일본 해군 장교들은 병사들의 죽음을 전제로 한 특공이라는 작전은 도입해서는 안 되는 전술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군에서 정식으로 채택하는 전술이라면 아무리 위험하더라도 살아 돌아올 가능성을 남겨놔야 했다. 반성회 모임에서 간사 역할을 맡았던 히라즈카 세이치(平塚清一) 전 소좌는 “군대에서는 결사를 각오하는 작전이라 해도 반드시 살아 돌아올 길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없는 특공 작전은 결국 생명경시 풍조를 낳아 일본 해군에게 큰 해악을 끼쳤다”고 말했다. 젊은 병사들의 목숨을 전쟁 수행을 위한 도구로 소비하고, 그렇게 숨지는 것을 미덕 찬양한 태평양 전쟁 말기 일본 군부의 관행은 다른 나라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일본만의 독특한 특징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5. 결론

일본의 첫 특공대장으로 역사에 기록된 시키시마(敷島)대의 대장 세키 유키오(関行男) 대위 역시 일본의 대표적인 전쟁 영웅이었다. 지금도 유튜브 등에 그의 이름을 검색해보면, 그의 사연을 담은 당시의 기록 영화, 출격 장면을 담은 화면, 모습을 본뜬 모형 등 수많은 상징물들이 검색된다.

세키는 특공대 대장으로 내정됐다는 사실을 통보 받은 뒤 “부디 저에게 시켜주십시오”라고 말했다고 전해지지만 내면의 갈등도 상당했던 것 같다. 결혼한 지 갓 5개월 된 스물 셋의 젊은이에게 죽음과 동의어인 특공대 선발은 어떤 기준으로 봐도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였을까. 특공대로 선발된 세키 대위는 비행장을 찾아온 일본 해군의 보도반원에게 창백한 얼굴빛과 매몰찬 눈빛으로 뜻밖의 말을 남긴다.

나는 몸체 공격을 하지 않고도 적 항모에 50번(500kg의 폭탄)을 명중시킬 자신이 있다. 일본도 이제 끝이다 나와 같은 우수한 파일럿을 죽이다니. 나는 천황 폐하를 위해서라든지 일본 제국을 위해서라든지 가는 게 아니다. KA(아내를 뜻하는 해군의 은어)를 위해 간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 죽는다. 어떤가? 대단하지 않은가.²²⁾

죽음을 전제로 한 특공에 참여하게 된 이들이 느꼈던 이런 아쉬움과 분노는 매우 보편적인 감정이었다. 태평양 전쟁 말기 특공을 다룬 여러 기록들을 보면, 일부러 비행기에 고장을 일으키거나, 출격 이후에도 기체 고장이나 일기 악화를 이유로 도망쳐 왔던 많은 대원들의 사연을 접할 수 있다.²³⁾ 그만큼 특공은 인간 본성에 반하는 전술이었으나, 일본 군부는 그런 무모한 작전에 투입된 이들을 전쟁 영웅으로 만들어 떠받들었다.

그 중에서도 조선인 가미가체 특공대원들은 ‘민족적 모순’이라는 또 하나의 질곡을 감당해야 했다. 일본 육사 56기 출신으로 숨진 최정근의 경우 육사를 졸업하며 “난 천황 폐하를 위해 죽을 순 없다”

21) <NHKスペシャル> 「日本海軍 400時間の証言 第二回: 特攻 やましき沈黙」 2009년 8월10일

22) 太田尚木, <天皇と特攻隊> (講談社, 2009)에서 재인용

23) 高木俊朗이 쓴 <特攻基地知覧> (角川文庫, 1972)과 <陸軍特別攻撃隊> (文芸春秋, 1974) 등에는 특공에 참여하게 된 이들이 느꼈던 인간적인 고뇌를 보여주는 일화가 많이 수록돼 있다. “죽어서 야스쿠니에서 만나자”라는 마음으로 특공에 임한 이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고 말했지만 결국 특공으로 사망했고, 그보다 어린 소년비행병 출신 특공대원들은 일본의 차별이 싫어서, 비행기가 좋아서, 공짜로 공부를 하기 위해 비행기 조종사가 됐다가 특공대에 선발돼 짧은 생을 마쳤다.

태평양 전쟁 말기 일본 군부에 의한 전쟁 영웅 만들기는 그 대상이 주로 특공 작전에 의해 희생된 이들이었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었다는 특징을 갖는다. 특히 조선인이라는 민족적 모순을 짊어졌던 이들에게 그 가혹의 정도는 더 심했다. 특공으로 상징되는 일본 군부 내의 인명 경시풍조는 수치로 표시된 특공 희생자들의 수보다 더 심각하고 치명적인 상흔을 일본 사회에 그리고 해방 이후 한국 사회에 남기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태평양 전쟁 시기 일본 군부에 의해 이뤄진 영웅 만들기를 비판적으로 고찰한다면, 비판의 초점은 영웅 만들기 과정에서 일본 군부가 시도한 수많은 사실 왜곡보다 특공이라는 작전 그 자체에 맞춰져야 한다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다.

이형식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발표자이신 길윤형 기자님은 일찍부터 조선인특공대에 주목하셔서 심도있는 보도를 해 오셨습니다. 작년부터 조선인특공대에 관심을 가졌던 저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조선인특공대를 추적해오셨고, 작년에는 『나는 조선인 가미카제다』(서해문집, 2012)라는 한국에서 최초의 조선인특공대에 관한 책까지 출판하셨습니다. 기자로서의 장점을 십분 살려서 유가족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새로운 많은 사실들을 발굴하셨습니다. 발표문은 작년에 출판하신 책을 재구성한 것이므로 이미 많은 검증을 받은 것이므로 본 토론자는 구체적인 사실을 따지기보다는 조선인특공대를 통해서 일본의 전쟁과 전쟁영웅에 몇 가지 논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발표자의 책무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먼저, 태평양 전쟁 시기 일본의 전쟁 영웅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발표자가 지적하고 있듯이 모든 국민국가는 국가 존립을 위해 전쟁 영웅을 만들어 추모하고, 그 과정에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심지어 없던 일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같은 전쟁 영웅이라고 하더라도 태평양 전쟁이라는 시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도 있을 것이고, 일본의 전쟁 영웅(군신)과 연합국의 전쟁 영웅은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살특공대를 흔히 일본적인 특징이라고 규정짓고 있는데, 스탈린은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독일 공군의 공세에 대항하기 위해 '밤의 마녀들'이라고 불리는 여성 파일럿을 자살공격에 이용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일본과 태평양 전쟁에 대해서 보편성과 특수성을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태평양 전쟁 시기 일본의 전쟁 영웅(군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작년 단국대 일본연구소 국제심포지엄에서 아마무로 겐토쿠(山室健徳) 선생은 일본의 전쟁영웅에 대해서 일본국민이 감동해서 자발적으로 군신으로 추앙했다고 주장했지만, 과연 군신이 자연적으로 발생했는지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러일전쟁부터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까지 일본의 군신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대본영 발표- 언론의 받아쓰기- 지식인, 문예인(문학인, 미술인, 영화인 등등)의 선전, 선동- 국민들의 취사, 선택이라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즉 군과 언론, 지식인, 문예인의 공범, 공모 속에서 군신, 전쟁영웅이 탄생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태평양전쟁시기 조선에서도 대본영의 발표, 조선언론의 대대적인 보도, 그리고 총독부, 조선군뿐만 아니라 조선의 지식인과 문예인들을 총동원하여 '군신'만들기에 광분했습니다. 군신의 창출과정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것은 언론과 지식인, 문예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친일이나 반일이나의 문제가 아니라 인도주의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태평양전쟁시기의 일본의 특공대는 죽음을 무릅쓰고 어려운 작전을 완수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죽어서 군신이 되어야 하는 존재, 살아서 돌아와서는 안 되는 존재, 장열하게 전사함으로써 전의 고양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어야 하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주지하다시피, 가미카제 특공대로 끌려가 특공사한 사람들 중에는 직업군인보다는 학도병이나 어린 소년비행병이 많았습니다. 소년들, 젊은이들을 맹목적인 죽음으로 내몰았던 언론인, 지식인, 문예인들의 책임은 무엇보다도 무겁고 클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이들 언론인, 지식인, 문예인들의 책임추궁은 그다지 언급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패전으로 인해 '군신'뿔, 군신신화가 사라짐으로써 군신창출에 협력했던 이들의 책임도 동시에 망각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인특공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참으로 어렵고 무거운 주제입니다. 동시대 자료가 극단적으로 적어 조선인특공대를 강요된 희생자라든가 '친일파'라든가 하는 극단적인 이분법적인 평가가 난무합니다. 하지만 조선인이 왜 일본군대에 입대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심정으로 자살특공대가 되었는지 아직 밝혀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동시대의 자료가 아니라 훗날의 기억이나 유가족의 인터뷰만으로는 이러한 점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소년비행병의 경우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청일전쟁 연구로 유명하신 재일사학자고 박종근 선생, 가라대의 대가 최배달(大山倍達)도 소년비행병출신이었고, 김옥균 연구로 유명하신고 금병동 선생(전 조선대학 교수)조차도 소년비행병에 지원하려다가 집안의 만류로 지원을 그만두셨다고 합니다. 중학교를 막 졸업한 가난하고 유능한 조선인 엘리트들에게 소년비행병제도는 민족적 차별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기회이자, 입신출세의 지름길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언론에 공개된 조선인소년비행병의 일기에서는 내선일체, 황국신민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한 일본황군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검열을 전제로 쓰인 일기이므로 소년비행병들의 내면세계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을지 의문의 여지는 많습시다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비행병들이 내선일체, 황국신민,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했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친일파로 일방적으로 매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들은 아직 인생관, 세계관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소년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자살특공대로 내몰았던 군국일본과 조선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도조 히데키의 전후

- 소설과 영화 속의 도조상 -

- 노병호(한림대학교 일본학과)

지정토론 - 유지아(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프로필

노 병 호(한림대학교 일본학과)

◆ 主要著書 및 論文

- 論文 : 「南原繁のナショナリズム—留学と『ふるさと』そしてアメリカと『日本』」, 『政治思想研究』 12호, 2012년 5월
「새역모의 분열과정에서의 '사상'과 '정치」, 『일본학연구』 2012년 1월호
「현대일본의 아이덴티티와 미국: 반미 보수주의의 숙명」, 『일본연구논총』 32권, 2010년 11월호
- 共著 : 『민 의와 의론』, 이학사, 2012
『일본학입문1(문화·사회)』, 한국외대출판부, 2011
『ナショナリズムの時代精神』, 萌書房, 2009

도조 히데키의 전후

- 소설과 영화 속의 도조상 -

노병호 (한림대학교 일본학과)

I. 머리말

도조 히데키! 한국에도 너무나 친숙한 이 이름은 일본 우익들의 망언과 일본 각료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가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한국 미디어의 지면을 장식하는 인물이다. 하지만 한국 미디어의 지면에 표현된 도조의 특징은, 태평양전쟁의 개전을 감행한 군인출신의 수상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복수형의 A급전범'을 대표하는 단수라는 점일 것 같다. 즉 도조보다는 '야스쿠니신사' 혹은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14명의 A급전범' 중의 한명으로, 즉 야스쿠니신사에 부속적으로 도조 히데키(東条英機 혹은 東條英機로 쓴다, 1884.7.30-1948.12.23)가 거론되고 있는 것 같다.

그 원인으로는 한국의 여론을 자극하기 위하여 '도조 등을 합사한'이라는 표현이 물론 전치되어야 하겠지만, '야스쿠니신사'가 갖는 상징성이 더 크다는 점과, 도조의 행동과 사상에 대한 사전지식이 선행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 도조가 수상이 되기 오래전 이미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하에 놓여있었던 점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1941년 12월 8일 진주만을 기습공격하여 미국과의 개전을 감행한 장본인인 도조가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정적인 기제'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미일관계에서 도조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조가 보다 직접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한국의 여론과 학계의 현상이 결코 바람직스러워 보이지도 않는다. 국회도서관에서 '도조 히데키'로 자료를 검색해 보면 거의 일본어 문헌이며, 학술적 가치가 있는 연구논문도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 상황은, 일본의 역사왜곡과 보수화에 대한 우리의 반응의 깊이를 시사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기까지 하다.

이 글은 전후 일본에서의 도조 히데키에 관한 '언설'의 변화(?) 혹은 현황을, 도조에 관한 사상사적인 분석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주로 소설과 영화 등에 표상된 도조상에 초점을 맞추어, 표상된 내용 및 표상의 전략의 '정치성'에 대해서 검토해 보는 것이다. 일본 국내에서의 연구도 도조 히데키의 '표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조 히데키' 자신에 관한 것이 주류를 이룬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구의 연구' 혹은 '표상의 연구'라는 본고의 문제의식도 그리 무가치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II. 도조 히데키의 현재

1. 야스쿠니 신사의 '신앙'

전후의 일본에서 도조 히데키가 다시 본격적으로 유명해지게 된 계기는 야스쿠니 신사(靖国神社)에의 합사가

발표된 79년 4월 18일 이후일 것이다. 동일의 교토통신(共同通信)이 최초로 도조를 포함함 A급 전범 14명이 ‘쇼와의 순난자(昭和殉難者)’로서 은밀히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었다고 발표한 것이다. 동년 4월 19일자 아사히신문 보도는 합사가 이루어진 것은 1978년 10월이고, 합사에 대해서는 유족 및 관계자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¹⁾

합사의 의의에 대해서 곤구지(権宮司) 후지타 가쓰시게(藤田勝重)는 이렇게 설명한다.

이제까지 A급 전범의 취급에 대해서 국민감정의 면에서 자꾸 미루어져 왔다. 그러나 전후 33년이나 경과한 점, 메이지 이래의 전통에 따라 야스쿠니에 모시는 것이 적당하다 (중략) A급 전범이라 하더라도 각자 나라를 위해서 애썼다는 점은 분명하고, 유족의 심정도 고려하여, 언제까지 방치해 둘 수 없었다. (중략) 우리들만의 판단이 아니라 신사의 숭경자 대표(崇敬者総代, 당시의 동경도 지사를 포함한 10명) 전원의 합의도 얻었다. 관계자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지만, 무리하게 숨기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어디까지나 모셔야할만 해서 모시는 것뿐이다.²⁾

이 시점을 계기로 야스쿠니에는 ‘A급 전범이 합사된’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게 되었고, 일본 내외에서 많은 물의를 일으키는 상징적 공간이 되었다. 1980년대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曽根康弘) 수상은 두 번째로 공식참배를 하려다 단념한 86년 8월 15일, 천황은 야스쿠니신사 문제에 대해서, “이 해 이 날에도 또 야스쿠니신사의 일로 근심 깊네”³⁾라는 시를 남겼다고 한다. 2006년 7월 20일 각 신문의 일면에 실린 전 궁내청 장관 토미타 토모히코(富田朝彦)가 남긴 메모는, 쇼와천황이 A급 전범들에 대해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을 암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여전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3년 현재 야스쿠니신사 홈페이지에는, “야스쿠니에 모셔진 것은 군인만이 아니라, 전장에서 구호를 위해 활약한 중군 간호부와 여학생, 학도동원중에 군수공장에서 사망한 학도 등, 군속·문관·민간인들도 다수 포함 되어 있고, 그 당시 일본인으로서 싸우다가 사망한 대만과 한반도출신자 및 시베리아 억류중에 사망한 군인, 군속·대동아전쟁 종결시에 전쟁범죄인으로 처형된 분들의 신령(神靈)이 모셔져 있습니다. (중략) 야스쿠니신사에 모셔진 236만 6천여의 신령은 ‘조국을 지키려고 하는 공무(公務)에 기인하여 돌아가신 분들의 신령’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됩니다”⁴⁾라는 글이 실려있다. 야스쿠니신사측은 ‘공무’를 강조함으로써, A급 전범의 문제성, 구식민지 출신자 및 민간인 등의 문제를 회피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2. 무책임의 체계의 원형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의 대표적인 논문인 「초국가주의의 논리와 심리」는 1943년 제81회회 중의원 전 시행정특례법위원회에서 ‘독재정치’에 대해 언급하는 도조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독재정치란 말이 자주 거론되는 것 같은데 명확히 해두고 싶다. (중략) 도조라는 자는 하나의 초망(草莽)의 신하(臣)이다. 당신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 단지 나는 총리대신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다. 이 점이 다르다. 이 직책은 폐하의 어광(御光)을 받고서 비로소 빛난다. 폐하의 어광이 없다면 그저 돌맹이 한개에 불과하다. 폐하의 신임이 있고, 이 위치에 있기 때문에 빛난다. 그 점이 유럽에서 독재자로 불리는 사람들과 다르다.(1943년 2월 8일 아사히신문사 속기. 강조는 마루야마)⁵⁾

1) 上丸洋一 『『諸君!』『正論』の研究』, 岩波書店, 2011, p.111
 2) 上丸洋一 上掲書 p.111
 3) 上丸洋一 上掲書 p.127
 4) 야스쿠니 신사 홈페이지 <http://www.yasukuni.or.jp/history/detail.html>(2013년 2월 27일 검색)
 5) 「超国家主義の論理と心理」(1946.5)(『丸山眞男集』3, p. 32). 이 논문은 1948년 5월의 「日本ファシズムの思想と運動」(『丸山眞男集』第三卷), 1949년 5월의 「軍国支配者の精神形態」(『丸山眞男集』第四卷), 1956년 12월의 「續補遺 日本支配層の戦争責任」(『丸山眞男集』別卷) 등과 함께 마루야마의 전전일본의 군국주의의 사상과 논리에 대한 탁월한 분석력을 보여주는 걸작이라고 생각된다.

도조를 포함한 전쟁지도자들은 이러한 관념을 전제로 전쟁에 내달린 것이다. 마루야마는 이에 대하여, “(이들 모두가, 필자) 무언가 보이지 않는 힘에 쫓기면서도, 실패의 두려움에 전율하면서도, 눈을 감고 내달렸다. 그들이 전쟁을 원했을까라고 한다면 그러하고, 그들은 전쟁을 피하려 했을까라고 한다면 이 또한 그러하다. 전쟁을 원했음에도 전쟁을 회피하려 하고, 전쟁을 회피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길을 선택했다”⁶⁾고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최정점에 천황이 있다. 천황은 통치권의 총람자일 뿐만 아니라 입헌군주로서의 성격도 갖는 ‘야누스의 머리’⁷⁾와도 같은 존재였다. 마루야마는 이렇게 말한다. “자신의 지위를 비정치적으로 분식(粉飾)함으로써 최대의 정치적 기능을 피하고 있는 점이 일본 관료제의 전통적인 비밀이라고 한다면, 이 비밀을 집약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관료제의 정점에 위치하고 있는 천황이다.”⁸⁾

상기의 도조의 답변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던 수상의 의미심장한 발언이다. 도조는 ‘야누스의 머리’와도 같은 구극적인 권위(천황)에의 친근성에 의한 의기양양한 우월의식과 동시에, 그러한 권위의 정신적인 중요성을 머리 위로 오싹오싹 느끼는 한명의 소심한 신하의 심정을 가감없이 토로하고 있기 때문이다.⁹⁾

이처럼 마루야마로 대변되는 ‘회한의 공동체(悔恨の共同体)’¹⁰⁾는 도조 히데키를 천황과 함께 무책임의 체계의 최종추에 위치시키면서, 전쟁과 패전의 근원인 주체성을 자각하지 않는 종속된 심리를 비판하고 있다.

III. 비극적인 순교자의 풍경

1. 소설

전후 도조 히데키를 주된 연구대상으로 한 정치·역사의 연구는 실로 방대하다. 하지만 도조가 소설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경우는 현재 1971년 아리마 요리치카(有馬頼義)에 의한 「원손잡이 독재자—도조 히데키의 비극(左利きの独裁者—東條英機の悲劇)」¹¹⁾과 2002년 마쓰다 슈코쿠(松田十刻)의 『도조 히데키 대일본제국을 위해 순교한 남자(東条英機 大日本帝国に殉じた男)』¹²⁾ 이 두편 정도가 눈에 띈다.

이 두편 모두 실존했던 인물을 대상으로 했다는 제약 때문인지, 문학적이기 보다는, 수기적·전기적 느낌을 자아낸다. 결론적으로 전자는 도조의 ‘비극’에 초점을 맞춘 반면, 후자는 문학적 뉘앙스의 ‘비극’보다는 정치적인 느낌을 갖게하는 ‘순교’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 대상이 되는 시기는 전자가 주로 미일개전 이후라고 한다면, 후자는 도조의 전 생애를 검토하고 있다. 이 절에는 양 소설에서 각각 중시되는 신(scenes) 혹은 정조(情調)를 살펴봄으로써, 소설에서 도조가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를 보고자 한다.

「원손잡이 독재자」에서 주인공(私)의 도조와의 만남은 도조의 장녀인 도조 미쓰에(東條光枝)와의 만남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날은, 수증기가 낮게 깔려 있지만, 뜨겁고, 불유쾌한 날씨가 예상되는 아침이었다. 둘 다 감옥에 갇혀있는 부친의 면회를 가야하는 패전 후의 어느 날이었다.

그날 아침은 수증기가 낮게 깔려 대지를 감싸고, 태양이 나오자 사방이 복숭아색으로 물들었다. 뜨거운 하루가 시작될 전

6) 丸山真男 「續補遺 日本支配層の戦争責任」 p. 5

7) 丸山真男 上掲論文 p. 6

8) 丸山真男 上掲論文 p. 6

9) 丸山真男 上掲論文 p. 10

10) 丸山真男 『後衛の位置から』, 未来社, 1982에 수록된 「近代日本の知識人」에서 마루야마가 사용한 이후 유행하게 된 명칭이다. 이 논문의 초고는 1977년 『学士会会報』에 처음 실렸다. 전쟁직후 전문분야와 직업의 차이를 뛰어넘어 새로운 지성의 건설을 지향하는 여러 집단이 분출하였는데, 이들은 하나의 연대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감정과 연결되어 있었고, 이러한 감정을 공유하는 집단을 표상하는 용어로서 고안되었다.(丸山真男 上掲書 pp.116-117)

11) 新潮社編 『時代小説大全集6 人物日本史』, 新潮社, 1991에 수록.

12) PHP文庫, 2002

조였다. (중략) 부친의 얼굴도 보고 싶었지만, 면회에 이르기까지 수속이 까다로와 나를 우울하게 하였다. 제대로 식사도 하지 못해, 체력적인 문제도 있었다. 하루 종일 집에서 뒹굴뒹굴하고 있으면 뭐 그러저럭 견디겠지만, 양복을 제대로 차려 입고, 햇살이 뜨거운 거리를 걸어야 한다는 것은 생각만으로도 불유쾌했다. (중략) 공습으로 동경에는 작은 새도 매미 한 마리도 사라져 버렸다. 매미가 울지 않는 한여름의 점심 무렵 잠자리만이 날아오를 뿐이었다. 나는 언덕을 내려오면서 어렴풋이 사람의 기척을 느꼈다. 여자였다. 수수한 오오시마(大島) 명주로 된 기모노에다, 같은 천으로 된 몸뻬를 입고 있었던 듯 하다. (중략) “실례합니다.” 내가 말을 걸었다. “누구의 가족입니까?” 여인은 “도조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어투에는 어떠한 주저함도 없었다. 불가사의하게, 그 이름을 듣고 나서도, 나의 마음속에 있던 일종의 동료의식은 사라지지 않았다. (有馬 pp.69-71)

여기서의 동료의식은 둘 다 면회를 가야한다는 패전후의 상황에 대한 우울함에 때문만은 아니었다. 미군기와 1대 1로 조우하여 죽음 직전까지 갔었던 주인공의 체험이 미쓰에의 상황과 오버랩되고 있었던 것이다. ‘미국에 대한’ 입장의 공통성이라고 말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나는, 그 날까지(Grumman제의 비행기가 공격하기 이전까지, 노병호), 미공군, 혹은 해군을 조금도 중요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눈을 떴다. 전쟁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군대가 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했다. 나를 폭행한 사관도, 상등병도, 나를 개인적으로 중요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날 그루만의 탑승원은 완전히 유희의 기분으로, 나 개인에 대하여, 뿔뿔이 기관총을 쏘아댔던 것이다. 나 혼자 거기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그 때 이미 전쟁은 실질적으로는 끝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중략) 내가 최초로, 왜, 자신의 일을, 이렇게 길게 쓰고 있느냐 하면, 이는 나 개인은 전쟁의 초기부터, A급 전범이 처형된 날까지 도조 히데키 그 사람을 조금도 미워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의 인생은 전쟁 때문에 모든 청춘을 잃었다. 나처럼 청춘을 혹은 생명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 중 누가, 과연, 이 전쟁의 장본인이 도조이며, 이 전쟁의 책임자가 도조라고 생각했었을까?(有馬 pp.75-76)

주인공은 도조 히데키의 미국인 변호인 조지 브르웬(George Blewett)처럼 자신 또한 자신의 내부에 도조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자각하고 있었다. 아래와 같이 작가 자신에 의해 밑줄 그어진 부분은 주인공과 작가의 마음이 도조와 함께 있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브르웬은, “어떤 하나의 인물의 견해, 행위가, 일본인 전체가 생각하고 행하려 한 상황이 되었다. 일본인 전체가 생각하고 행하려 한 것을, 어떤 인물이 생각하고 행하려 한 것이 아니었다. 여기에 모든 열쇠가 있다”(인용과 강조 모두 有馬 pp.77-78)라고 말했던 것이다.

이처럼 무겁고 답답한 분위기는, 거슬러 올라가 1944년 7월 18일 이후의 도조의 ‘인간적인’ 장면을 통해 오히려 짙어지게 된다. 『원손잡이 독재자』에는 이 시기의 도조의 한적과 적막의 생활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도조는 하이하여 더 이상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어떤 일을 생각할 필요도 없이, 한적한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무더운 여름이었지만 도조는 매일 정원에 나가서 발을 갈고 있었다. 과거에는 안개가 걸려 있었다. 과거속의 하루, 과거속의 어떤 일들을 생각해 낸다는 것은 전혀 무의미했다. 모든 평가가 바뀌려 할 때, 과거에는 어떤 가치도 없었다. 할 만큼 일을 했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는 것이 도조의 본심이었다. 그리고 불가사의하게도, 중신에 속하였던 도조를, 어느 신문도, 한 줄도 쓰지 않는다. 때때로 중신회의에 참석하더라도, 도조는 거의 발언하지 않았다. (중략) 밤이 되자, 거리도, 집안도, 조용해졌다.(有馬 p.106)

태평양전쟁이라는 대전쟁의 발발에 책임을 져야할 도조가, 제2차대전을 태평양으로 확대시킨 장본인인 도조가, 퇴임 이후, 군인이 아닌 그저 평범한 인간이 되어, 정원과 밭에서 흙을 일구는 장면은, 『도조 히데키 대일 본제국을 위해 순교한 남자』에서도 간접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러나 도조 히데키에 대한 ‘고결하고’, ‘평범한’ 이미지는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고결한 생활을 신조로 하고 있던 도쿄는 세간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 부지의 대부분을 밭과 정원으로 만들었고, 육군대신 경험자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극히 평범한 집을 축조했다. 또한 특권을 남용하지 않아 배급자제로 조달했기 때문에, 착공 후 일년이 지났어도 내장은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았다.(松田 p.264)

마쓰다가 보는 도쿄는 전체적으로 “대일본제국을 위해서 순교한 남자”였다. 도쿄는 ‘극악비도(極惡非道)’의 대명사가 아닌, ‘마성(魔性)의 역사’를 한 몸에 짊어진 비운의 군인이었을 뿐이다. 도쿄는 “철두철미하게 일본 육군의 한명으로서 직무에 전념하여, 이리도 저리도 못하는 상황에서 일본의 키를 잡았을” 뿐이다.(松田 pp.3-5) 요컨대 책임감이 강한 성실한 군인이, “일본이 근대국가가 된 이래, 최악의 타이밍에 수상에 취임”(松田 p.275)하였던 것이다. 나뻐던 것은 타이밍이었지, 도쿄가 아니며, 오히려 도쿄는 역으로 ‘순교자적인’ 인간상을 부여받게 된 것이다.

마쓰다는 도쿄의 성격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한다.

도쿄는 노력형 인간에게 종종 있는 것처럼, 자존심이 강하고 자의식 과잉의 면이 있고, 노력하지 않는 인간을 멀리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천황을 모시는 군인으로서, 청렴결백하고, 엄격, 질소한 생활을 중시하고, 술과 여자에 빠지는 군인을 경멸하고 있었다. 더구나 신심이 두터운 부인 가쓰코(勝子)의 영향으로 신불을 숭배하고, 불단 앞에서는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했다.(松田 pp.224-225)

이렇게 소설속의 도쿄는, 격동의 시대와 결단의 순응하는,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동시에 청렴하고 신앙심이 두터운, 너무나 ‘인간적인’ 한명의 왜소한 인간일 뿐이었다. 이러한 인간상은 소설에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 이하의 영화에서도, 1944년 7월 18일 퇴임 이후, 1945년 9월 11일 GHQ에 의해서 체포되기 직전까지, 도쿄는, 가족 내에서는 인자한 할아버지로, 후술하는 것처럼 천황에 대해서는 충심 가득한 신하로, 불교를 경유해서는 세상 모두를 상대화하는 독실한 종교가로 그려지고 있다.

2. 영화

『대일본제국(大日本帝国)』¹³⁾은 1982년에 공개된 도에이 배급의 전쟁영화로서 「싱가폴에의 길」과 「사랑은 파도를 넘어서」의 2부로 구성된 장편영화이다. 마스다 토시오(舩田利雄)가 감독했고, 단바 테츠로(丹波哲郎)가 도쿄역으로 출연한다. 주요 인물로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직업군인 오다지마 코이치(小田島剛一, 三浦友和가 연기)와 교토대학 학생이었던 에가미(江上孝, 篠田三郎가 연기)가 있다. 그밖에도 이발소를 경영하던 고바야시(小林幸吉, あおい輝彦가 연기)와 도쿄의 부인으로 이나노 가쓰코(稲野和子)가 연기하는 가쓰코 등이 등장한다. 다이몬(大門勲)역으로는 사이고 테루히코(西郷輝彦)가 연기한다.

이 시대의 도쿄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태평양전쟁 발발 직전의 일본의 정치사에 대한 간단한 스케치가 필요할 것 같다. 먼저 1941년 7월 18일 대미강경파인 마쓰오카 요스케(松岡洋右)가 경질된 후, 제3차 고노에 내각은 10월 16일까지 지속된다. 그런데 9월 6일의 어전회의에서는 미국과의 개전을 마다하지 않는 「제국국책요강(帝國國策要綱)」이 결정되며, 여기에는 남방에 대한 시책 등이 정리되어 있다. 10월 15일 데키가이소(荻外莊)¹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지는데, 도쿄에 관한 영화의 대부분은 이 데키가이소 회담을 중요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 회담에서는 대미 개전에 대한 도쿄의 완고한 입장이 확인되는데, 여기에는 도쿄는 물론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麿) 총리, 오이카와 코시로(及川古志郎) 해상, 토요다 테이지로(豊田貞次郎) 외상, 스즈키 테이이치(鈴木貞一) 기획원 총재가 참가하였다.

도쿄의 완강한 입장을 역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즉 대미회담에서 양보하려 하지 않는 완고한 육군을 달래기

13) 東映株式会社 『大日本帝国』, 1982

14) 고노에 후미마로의 별장으로 전진 중요한 결정이 여기서 이루어졌다.

위하여(영화와 소설의 일부에서는 그렇게 해석하고, 그리고 있다), 도조는 천황에 의해 수상에 임명된다. 도조는 1941년 10월 18일부터 1944년 7월 22일까지 지속한 제40대 내각총리대신으로서, 1941년 12월 8일 이후 태평양전쟁을 지도하게 된다. 12월 1일의 어전회의에서는 대미 결전에 대한 최종결정이 이루어진다.

『대일본제국』의 데키가이소 회담 장면에서 등장하는 도조의 어조는 자신감에 가득 차 있고, 의지도 강력했다. 미국과의 교섭을 중시해야 한다는 고노에에 대하여 도조는, “(고노에 수상의 발언은, 필자) 의외다. 9월 6일의 어전회의의 결정을 중시해야 한다. 전쟁에 자신이 없다는 것은 천황에 대한 불근신 아닌가?”라고 말하고 있으며, 미국측이 주장하는 일본군의 중국으로부터의 철수를 받아들여 대미교섭에 임하지는 의무대신에 대해서는, “철병은 양보할 수 없다. 양보는 양보를 낳을 뿐이다”라고 강한 어조로 외친다. 해군대신인 오이카와가 결정을 총리에게 일임한다는 입장을 취하자 도조는, “일임은 불가능. 육군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 애매한 입장을 취하지 말고 각료 전원이 책임을 갖고 결정해야 한다. 확실히 해야 한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는다.

이렇게 육군의 입장을 배경으로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도조를 정반대의 방향에서 돋보이게 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안티테제로서의 도조상일 것이다.

이 영화의 후반부에서는 전쟁을 일으킨 책임자로서의 도조의 ‘진실’ 보다는, 연합국 특히 미국과 GHQ에 의해 ‘만들어진’ 악의 상징으로서의 도조의 이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미국에 의해 ‘도조’는 악의 대명사가 되었고, 일본은 이 도조에 의해 표상된다는 점이다. 단적으로 동남아시아에서 포로가 된 일본군 병사들이, 전쟁 중 저항하지 않았던 현지인(마리아라는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B, C급 전범으로서 재판을 받았다. 그 중의 한 명인 다이몬에게 미군병사가 배식된 식사를 바닥에 던진 후 이를 개처럼 엮으려 훔아먹으라고 강요한다. 미군 병사는 말한다.

“헤이 도조! 먹어! 개처럼 먹어! 빨리 먹어!”

여기에 등장하는 ‘도조’라는 호칭이 갖는 상징성은, 전후의 ‘도조 히데키’를 미국적인 시각에서 이해하기 위한 결정적인 메타포이다. 하지만 ‘도조’라는 ‘육살’을 감수하며 다이몬을 대신하여 바닥에 던져진 식사를 훔아먹는 에가미의 행동은, 육살이 아닌 ‘마땅한 길과 방법’으로 ‘도조를 재해석해야 한다는, 나아가 일본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강력한, 미국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지만 결코 굽히지 않는 저항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천황이 원군을 이끌고 구조하러 올 것이므로 기다리자”, “대원수 각하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 “미국과 손을 잡지도 않는다”, “실사 포츠담선언을 수락한다 하더라도 대원수 각하 혼자서라도 우리를 구하러 올 것이다”, “대원수 각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온 우리들을 대원수 각하는 버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외침의 무상함을, 이미 미국에 항복한 천황과의 대비를 통해 보여주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결국 미국과 도조 이 양자의 무게중심을 후자에게 향하도록 하는 장치는, 동남아의 감옥의 열방에서 들리는 소리, “고국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조용히들 해!”, “다시 태어나도 해군이 되어 미국과 계속 싸울 것이다” (다이몬의, 필자)라는 여운이다.

한편 『대일본제국』 및 다른 도조에 관한 영화들이 도조를 보조적으로 논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프라이드 운명의 순간』¹⁵⁾은 도조를 직접적으로 그린 점에서 차이가 있는 영화라고 말할 수 있다. 감독은 이토 슌야(伊藤俊也), 도조역은 쓰가와 마사히코(津川雅彦), 조셉 키난 수석검사로는 스코트 윌슨(Scott Wilson), 윌리엄 웹 재판장으로는 로니 콕스(Ronny Cox), 키요세 이치로(清瀬 一郎) 변호사역으로는 오쿠다 에이지(奥田瑛二), 가쓰코역에는 이시다 아유미(いしだあゆみ)가 연기하고 있다.

이 영화의 가장 큰 특징은 평화롭고 인간적인 도조의 모습 혹은 감옥에 있는 인간 도조의 모습을 전치한 후, 극동국제군사재판(極東國際軍事裁判)¹⁶⁾ 당시의 불공정하고 편향된 재판의 진행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했던

15) 東映株式会社 『プライド 運命の瞬間』, 1998

전범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양자의 사이사이에 식민지 인도의 실상을 인도의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슈하스 찬드라 보스(Subhas Chandra Bose) ‘인도국민군’, ‘자유인도임시정부’, 그리고 인도출신의 팔(Radhabinod Pal) 판사와 식민화된 인도의 실상을 삽입함으로써, 도쿄에 관한 시각과 재판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영화의 엔딩 또한 독립한 인도에서 인도의 독립을 기뻐하고 있는 한 일본인의 표정이다. ‘자유인도임시정부’가 싱가포르에서 조직된 것은 1943년 10월 21일이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1942년 2월에서 1945년 8월까지 일본군이 싱가포르를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도의 독립은 1947년 8월 15일에 달성되었다.

먼저 영화는 수상에서 물러난 도쿄가 1945년 9월 어느날 처인 가쓰코와 함께 집 주위의 밭에서 토마토를 따 먹고 있는 평화로운 풍경과, 친진난만한 도쿄의 표정을 그리는 데서 시작한다. 도쿄는 토마토를 먹으며 가쓰코에게, “맛있다. 이렇게 맛있는지 처음 알았어”라고 말한다. 그러나 9월 11일 도쿄는 GHQ에 의해 체포되고 A급 전범으로 극동국제군사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도쿄는 전혀 굴하지 않고 있으며,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 이렇게 당당한 도쿄의 모습과는 반대로, 피고인들의 죄를 밝히기 위해 법정에서 증언하는 참고인들(예를들면 만주국 황제였던 부의와 남경사건을 목격했던 어느 백인목사)의 모습은 비굴하거나 당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연합국측에 불리한 증언이 있는 경우 전기가 나가거나, 전범들의 발언이 중지되는 것으로 그려진다. 동시에 재판관들의 너무도 자유분방하여(?) 오히려 퇴폐적인 뉘앙스를 남기는 댄스파티 등은, 재판의 본질 그 자체인 것처럼 그려진다. 또한 웹 재판장과 킨 수석검사의 밀담은 마치 음모를 꾸미는 음모꾼처럼 묘사되고 있다.

한편 스가모 형무소의 도쿄는, 수상에서 하야한 직후처럼, 매우 인간적으로 그려진다. 미군 간수가 손주를 도쿄에게 건네주자, 도쿄는 “아리가토”라는 말하며 정중한 태도를 잊지 않고 있으며, 이렇게 인간적인 도쿄에 대한 간수의 시선도 부드럽다. 도쿄가 아무런 죄도 없는 것처럼...

교수형이 결정된 후 스가모 형무소를 찾아온 가쓰코에게 도쿄는, 오히려 안심을 시키려는 듯, “원래 그런 겁니다(そんなもんですよ). 나로서는 무사히 대역(大役)을 다해서 여한이 없소. 애초부터 내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오”라고 말하며, 재판의 성격 자체에 대한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요컨대 『프라이드 운명의 순간』에서는, 인도의 참상과 이 인도를 도우려는 일본의 인도주의적인 모습, 너무나 인간적인 도쿄의 모습과 너무나 부당한 극동군사재판을 대비적으로 그림으로써, 도쿄의 인간성과 식민지 인도의 모습을 교차하여 보여줌으로써, 관객들의 시선의 범위를 매우 한정된 공간으로 내몰고 있다.

이로 인해 파생되는 가장 큰 문제는, 너무나 인간적인 도쿄와, 인간이 살고 있는 인도의 겪고 있는 참상, 그 참상의 원흉으로서 극동국제군사재판을 연계시킴으로써, 너무나 인간적인 도쿄가 아닌, ‘인간인 동시에 군인인 도쿄상, 정책결정의 책임자 도쿄상을 자의적으로 배제시킨다는 점이다. 또한 이 영화는 일본제국주의하의 식민지와 그 식민지의 민(民)들의 시선과 삶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폐허가 된 공터에 키요세 이치로가 심었던 감자가 잘 자라 있는 모습을 보고, 이웃의 노파가 “공습으로 죽은 사람들의 재로 인해 감자밭이 더 기름져 감자가 더 잘 열릴 것이다”라고 말하는 장면은, 재판의 결과에 대한 소극적인 반감을 넘어서, 죽은 영령

16) 극동국제군사재판은 1946년 4월 29일 쇼와천황의 생일에 전범들을 기소함으로써 시작되었고, 1946년 5월 3일부터 이치가야(市ヶ谷) 구 육군사관학교 강당에서 심리가 개시된다. 판결은 1948년 11월 4일 판결의 인도가 시작되고, 11월 12일에 형의 선고를 포함한 판결의 인도가 종료하였다. 7인의 교수형의 집행은 1948년 11월 23일 오전 0시 1분 30초부터 진행되어, 35분에 종료했다. 이 날은 현 일본의 천황이 15세의 생일이었다. 이 재판의 재판장은 William Flood Webb, 수석검찰관은 Joseph Berry Keenan이다. 피고는 이하 28명. 이중 교수형 7명, 종신형 16명, 유기금고형 2명, 기소면제 1명, 판결전 병으로 사망 2명. 교수형은 도쿄 히데키, 무토 아키라(武藤章), 마쓰이 이와네(松井石根), 기무라 헤이타로(木村兵太郎), 도이하라 켄지(土肥原賢二), 히로타 쿠키(広田弘毅), 이타가키 세이시로(板垣征四郎) 7명이다. 나머지 21명으로는 아라키 사다오(荒木貞夫), 우메즈 요시지로(梅津美治郎), 오오카와 슈메이(大川周明), 오오시마 히로시(大島浩), 오카 다카즈미(岡敬純), 카야 오키노리(賀屋興宣), 키도 코이치(木戸幸一), 고이소 구니아키(小磯國昭), 佐藤賢了, 시게미쓰 마모루(重光葵), 시마다 시게타로(嶋田繁太郎), 시라토리 토시오(白鳥敏夫), 스즈키 테이이치(鈴木貞一), 토고 시게노리(東郷茂徳), 나가노 오사미(永野修身), 하시모토 킨고로(橋本欣五郎), 하타 슌로쿠(畑俊六), 히라누마 키이치로(平沼騏一郎), 호시노 나오키(星野直樹), 마쓰오카 요스케(松岡洋右), 미나미 지로(南次郎)가 있다.



의 보호로 인해서 더욱 밝은 일본의 미래가 있을 것이라는 ‘아스쿠니적인’ 사상을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IV. 천황상과의 교착: 독재자, 영웅, 혹은 불교자의 여운

도조 히데키는 1941년 12월 8일 일본의 진주만(Pearl Harbour)을 공격할 당시의 수상이다. 도조를 유명하게 한 것도 바로 미국과의 개전을 통해, 대륙에서의 중국과의 전쟁을 태평양으로 확대시켜, 제2차 세계대전으로 연결시켰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쟁의 개시 등 중요한 국책의 결정은 천황이 참석하는 회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 회의란 이른바 어전회의(御前會議)이다. 어전회의는 메이지 시대 청일전쟁의 개시와 강화 및 러일전쟁의 개시와 강화시에 메이지 천황이 참석한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고, 다이쇼 시대에는 열리지 않았다가, 1938년 1월 1일 중일전쟁의 처리와 관련하여 다시 열리게 되었다. 1938년의 재개 이후 1945년 8월 14일 포츠담 선언의 수락에 이르기까지 총 15회가 열렸다. 태평양전쟁과 관련해서는 1941년 7월 2일, 9월 6일, 11월 5일, 12월 1일의 4차례의 회의가 중요한데, 도조는 11월 5일 이전은 육군대신으로, 11월 5일 이후는 수상의 자격으로 참가하였다. 전쟁이 진행중인 1942년 12월 21일, 1943년 5월 31일, 9월 30일의 회의에도 도조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¹⁷⁾

소설과 영화의 어전회의와 관련된 장면은, 천황은 단지 경청하는 국외적인 입장으로, 도조는 당시의 정세를 무겁게 보고하는, 상식적이고 평이한 모습으로 그리고 있어서, 둘의 관계에 대한 해석의 여운을 남기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와 유사한 공적인 장면에서 도조는 과연 어떠한 입장을 취했으며, 천황을 어떻게 인식하였던 것일까? 혹은 그 이외의 자리에서 도조는 천황을 어떻게 말하고 있었을까? 이러한 의문을 풀어가다 보면 도조의 천황관은 천황에 대한 도조의 인식에 그치지 않고, 전쟁책임과 관련된 천황과 도조의 ‘제로섬게임’적인 상황을 확인하게 된다.

요컨대 앞에서 언급한 소설과 영화에 표상된 도조상은, (1)‘독재자’, (2)‘영웅’, (3)세속을 상대화하는 ‘불교자’의 구도, 이 세가지 상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구분법에 대응하는 천황의 위상은, (1)독재자에 휘둘렸던, 전쟁의 책임외는 무관한 자애로운 존재, (2)영웅을 신화로 갖고 있는 훌륭한 군주이거나 상대적인 약자라는 이미지는 있지만 전쟁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상황, (3)세상의 진실이 어떠한 것이든 자신이 묵묵히 이를 감수한다는 불교적인 종교관에 대응하는 도조상에 대응하는 이미지로서 전쟁책임의 실질적인 책임은 천황에게 있었다는 메타포이다. 재미있는 것은 소설과 영화에 표상된 도조상에는 이러한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소설 「원손잡이 독재자」에서는 1941년 10월 15일의 테키가이소 회담시의 도조를 독재자로 그리고 있다. 즉 대미 협상파인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麿)와 강경파인 도조를 대비시키고 있다. 이 장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東條: 미일교섭에서 중국 주병(駐兵) 문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 미국에 굴복할 생각이라면 달리 방법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교섭의 전망은 어둡다.

及川: 이제 전쟁을 결의해야 할지, 외교교섭을 계속해야 할지 결정할 단계에 왔다.

近衛: 외상의 견해는?

豊田: 교섭은 상대가 있으니가 절대로 확신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近衛: 어느 방침을 취해도 위험은 있다. 어떤 위험이 보다 클지가 문제다. 오늘 여기에서 결정하라고 하면, 나는 교섭계속을 선택한다.

17) NHK 『御前會議 太平洋戦争開戦はこうして決められた』, 91.8.15, 『日本大百科事典』, 小学館, 1994, 佐々木隆爾編 『昭和史の事典』, 東京堂出版, 1995



東條: 외상은 확신이 없는 것 아닌가? 외상의 논리로는 통수부(統帥部)를 설득할 수 없다. 확신이 있는 말을 듣고 싶다.

近衛: 쌍방을 비교한 후에 나는 교섭을 선택한다.

東條: 그것은 총리의 주관적인 의견에 지나지 않다. 그것으로는 통수부를 설득할 수 없다.

東條: 주병문제만큼은 육군의 생명이어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近衛: 이러한 상황에서는 명분보다는 실리를 취하여, 형식은 미국이 말하는 대로 하고, 실리는 주병과 동일한 결과를 얻는다면 좋지 않을까. 어쨌든 나는 어디까지나 외교교섭을 선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하려한다면, 나는 책임을 질 수 없다.

東條: 9월 6일의 어전회의에서 외교교섭의 전망이 없다면 개전을 결의한다고 결정하지 않았는가? 이 회의에는 총리도 출석하셨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近衛: 교섭에 보다 큰 확신이 있는데도, 확신이 없는 쪽을 가라고 하면,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의미다.

鈴木: 작전의 모든 준비를 중단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과연 군 내부를 통제할 수 있는가?

東條, 及川: 결정한다면 통제할 수 있다.(矢部貞治 『近衛文鷹』)(有馬 pp.81-83)

이렇게 중국 주병 문제에 대한 도조를 포함한 육군의 완강한 태도에 대하여 대미관계의 악화를 우려한 고노에 등의 결론은, 도조를 수상에 임명함으로써 같은 육군에 의한 육군을 견제하도록 하는 일종의 이이제이(以夷制夷) 방식의 도입하는 것이었다. 즉 도조 자신에 의해서 대미개전이 결정된 9월 6일의 어전회의를 무시하도록 유도하려고 하였다. 고노에는 10월 14일에도 도조를 만났었지만, 도조는 조금도 양보의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도 코이치(木戸幸一)는 고노에에게, “만일 도조가 (수상에, 필자) 임명되어 9월 6일의 어전회의를 무시한다고 명령하면, 도조는 육군을 통제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도조가 평화적 교섭을 계속한다면, 이번의 내각사직에 임하여, 개전을 예상하고 있는 미국의 분위기는 호전될 것이다”(矢部貞治 『近衛文鷹』)(有馬 p.92)고 언급하고 있다. 즉 사건의 모든 원흉은 ‘완강한 독재자’ 도조에게 있었던 것이다.

한편 천황을 보호하려는 ‘영웅’으로서의 도조상은 스가모 구치소에서 심문내용에 담겨있다. 도조는 개전은 천황의 희망을 저버린 행위였다고 하여 천황을 변호하고 있는 동시에, 개전 그 자체가 불법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하면서, 천황과 개전의 결정 모두를 변호하고 있다.

문: 미국에의 최후통첩을 천황에게도 전했는가?

답: 그 책임은 나에게 있지 않다.

문: 천황은 최후통첩 전의 공격개시에 대하여 화를 냈다고 한다. 사실인가?

답: 천황께서 화를 내셨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천황은 그러한 분이시다.

문: 천황의 희망을 저버린 이유에 대해 당신은 어떤 조사를 했고, 어떤 사실을 알았는가?

답: 우리들은 천황의 희망을 존중했다. 일본국민으로서의 나도, 수상으로서의 나도 그러했다. 천황이 희망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 변명하고 싶지 않다.

문: 천황의 희망을 저버린 것은 육해군참모총장의 죄가 아닌가?

답: 내 죄다. (중략) 우리들은 천황의 희망을 저버리는 일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다. 그러나 저버린 결과가 된 책임을 나는 통감하고 있다.

문: 이러한 상황에서 행해진 공격은 전쟁행위가 아니라 모살(謀殺)이라고 생각지 않는가?

답: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는다. 도전에 직면한 합법적 방위였다고 생각하고 있다.(有馬 pp.100-102의 요약)

즉 도조는 천황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결과적인 책임만 자신이 질 것이며, 전쟁의 개시 그 자체는 합법적인 행위였다고 역설하고 있다. ‘영웅’으로서의 도조의 모습은 천황을 위해 자살하려 하는 장면에서도 그러하다.

1944년 7월 18일 하야한 이후의 도조는 거친 전황과는 무관하게 한적한 생활을 보내고 있다. 권좌에서 물러난 도조에 대하여 언론은 이상하리만치 무관심했다. 동년 11월 동경의 상공에 사이판에서 출발한 B29가 모습을

보여도 상황은 그리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1945년 5월 동경이 미공군에 의해 공습을 당한 이후 상황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8월 15일 패전이 있고, 약 25일 정도가 지난 9월 11일 도조는 자살을 기도하는데 그 자살은 천황을 위해서였다.

그러던 어느날 근처의 의사에게 다녀온 후, 처인 가쓰코(勝子)와, 장녀인 미쓰에(光枝)에게, 셔츠의 가슴을 열어 보였다. 도조의 왼쪽 가슴에는 묵으로 자그마한 원이 그려져 있었다. “피스톨을 여기에 대고 방아쇠를 당기면 탄환은 분명히 심장을 관통할 거야”라고 말하며 웃었다. 가쓰코와 미쓰에는 상상은 하고 있었지만, 도조가 언제, 어디서, 그러한 계획을 실행에 옮길지 몰랐고, 폐하를 지켜내기 위해서야, 라고 말할 때는 제지할 수 없었다. 가쓰코가 목욕물을 준비하면, 도조는 욕조에서 큰소리로 가쓰코를 불렀다. “모처럼 그려준 표시가 없어졌어.” 도조는 당일 또 의사에게 가서 원을 그린 후에 돌아왔다. 도조는 당시 권총 2정과, 단도를 항상 가까이 두었다.(강조는 필자)(有馬 pp.106-107)

한편 『도조 히데키 대일본제국에 순교한 남자』에서의 도조는 ‘불교자’적인 ‘영웅’으로 그려져 있다. 처형 직전 스가모 형무소의 교회사(教誨師)인 하나야마 신쇼(花山信勝)에게, “종신금고로 영구히 번뇌에 시달리는 것보다, 죽는 편이 안락(安樂)합니다. 아미타불의 정토에 다시 태어나는 것을 신앙으로 알고, 기뻐하며, 이 세상을 떠나갈 수 있습니다”(松田, pp.354-355)라고 말한다. 이는 아미타불의 정토에 대비되는 ‘속세’의 천황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폐하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 안심하고 죽을 수 있다. 지금은 죽기에 좋은 시기입니다”(松田 p.354)라고 하여, 천황을 대신한 영웅적인 죽음임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이 소설의 화자는, 독재자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도조가 실은 천황제 국가의 충실한 군인의 한명이었을 뿐이며, 당시 일본의 사상과 가치관을 반영한 군국주의자이긴 했지만 히틀러와 같은 타입의 독재자는 아니었다고 한다(松田 p.344). 즉 영웅인 도조상을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 영웅으로서의 도조는 천황과 국민을 향해서 있었고, 그 영웅이 영웅인 것은 ‘스스로’ 전쟁책임을 짊어졌다는 점이며, 그 책임은 천황과 일본국민, 그리고 일본의 역사에 대한 것이었다. 도조는 사토 켄료(佐藤賢了)에게 아래와 같은 말을 남겼다고 한다.

전쟁책임은 나 혼자 지고 싶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폐를 끼쳐 미안하네. (중략) 적에게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화가 나겠지만, 폐하와 국민으로부터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감수하려 한다. 패전으로 의해 국가와 국민이 받은 타격과 희생을 생각하면 내가 교수대에 올라가는 것으로 오히려 부족하다. 같같이 찢겨도 부족하다. (중략) 나에 대해서 조금도 변호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나는 단지 교수대에 올라가는 처벌을 경험하는 것만이 아니라, 영원히 역사상의 조롱과 비판의 책책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네(松田 p.344)

이렇게 사토에 남긴 말속에 역사의 조롱과 비판을 감당하는 ‘영웅 도조’상이 간접적으로 숨어 있지만, 화자는 이 ‘영웅’을 아래와 같이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도조는 수상 취임 이래, 정부의 보고를 위해 빈번히 궁중에 가서, 숨기지 않고 진실을 전하려고 하였다. 때문에 천황의 신임도 두터웠다. 도조는 천황의 의사에 따라 화평을 실현하려 하였지만, 혹시라도 전쟁을 하지않고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는 경우, 2·26사건 이상의 쿠데타와 내란의 발발도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헌병과 경찰을 장악하여 이를 진압할 필요에서 내상(內相)을 겸임하고 있었다. 도조는 이 시점에서 시대의 영웅으로서의 찬사 속에 있었다. 일본이 미국에 승리했다면 역사는 그를 영웅이라고 불렀을 것이다.(松田 pp.297-298)

영화 『대일본제국』에서는 천황은 화평(和平)을 매우 중시하는 군주로 묘사되어 있다. 반면 도조는 천황의 뜻에 순종적인 신하로 그려져 있지만, 화평을 중시하는 천황과는 배치되는 독재자로 표상되거나, 천황을 보호하려는 영웅상이 오버랩되어 있다. 물론 세속을 상대화하는 불교자적인 구도도 동시에 보여진다.

1941년 10월 17일 수상에 취임하여 기도 코이치와 함께 궁내성을 참배하게 된 도조는 천황의 의중이 화평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다. 즉 영화에서의 도조 및 천황은 통수부와는 다른 입장을 취하는 평화적인 인물로

그려진다.

하지만 기묘하게도 상황은 전쟁으로 이어졌고, 12월 8일의 대미 개전에 뒤이어, 12월 25일 일본은 홍콩을 점령하게 된다. 앞서 천황의 의중을 파악한 평화롭고 충성스런 도조의 이미지는 초전의 승리한 이 장면에서는 의기양양한 독재자의 모습으로 바뀐다.

1944년 6월 15일에서 7월 9일 사이에 벌어진 사이판 전투에서 일본군 3만명이 전사하는 등 전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도조내각은 7월 18일 총사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의 천황은 '화평'만이 아니라 희생을 자초한 '독재자' 도조에게 매서운 시선을 보낸다. 천황의 마음에서 멀어진 도조는 '연약하고 쓸쓸한' 독재자로 변모하는 것이다. 천황의 시선이 '화평'을 거스른 도조에 대한 것인지, 계속되는 전투에서의 패배에 대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천황을 화평을 추구하는 평화주의자라고 해석하는 경우, 도조는 이렇게 독재자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화평'을 애호하는 천황은 1945년 8월 14일 포츠담선언을 수락하는 대일본제국 최후의 어전회의의 장면에서도 반복된다.

세계의 현상과 국내의 사정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 더 이상 전쟁을 계속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육해군 장병의 기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내 운명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싶습니다. 전쟁을 계속한다면 국민의 고통이 가중될 뿐이고, 저는 이를 참을 수 없습니다.

즉 천황은 처음부터 화평을 바랬던 인물로 그려졌고, 전쟁을 끝내는 장면에서도 평화와 국민을 애호하는 모습으로 반복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무릎을 꿇고 천황의 옥음방송(玉音放送)을 경청하는 도조의 모습은, '평화의 천황' 대 '독재자 도조'의 교착상황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다. 그러나 도조는 여전히 천황에 충성스런 존재임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처럼 패전의 공간에서 천황과 도조의 관계는 제로섬적인 관계에 있었다. 어느 한쪽이 희생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도조여야 하고,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면 그 운명은 영웅으로 승화되어야 한다. 그 영웅의 삶과 죽음은 모두 극적이고, 영웅적이어야 하는 것이다. 1945년 9월 11일 육군대신 시모무라 사다무(下村定)와의 대화에는 '영웅'이 되어야 하는 도조의 '슬픈' 운명이 명확히 드러나 있다.

도조: 내게 황실과 국민에 대한 중요한 책임이 있다. 사죄는 죽음으로 할 수 밖에 없다.

(중략)

도조: (담배를 사양하며, 필자) 나도 군인이다. 살아남아 겪게 될 부끄러움이라는 괴로움은 싫다.

下村: 그러나 자결하지 말고 법정에 서 주시죠, 도조씨. 연합국의 일부는 폐하에게 전쟁의 책임을 뒤집어 씌워 일본의 국체를 근저에서 바꾸려 합니다. 증언석에서 당신이 직접 폐하의 진정한 이념은 평화주의였다고 피력해 주지 않는다면... 폐하와 일본을 위해 부끄러움은 감내해야 합니다. 폐하와 일본을 위해 괴로움을 참아주십시오.

즉 위의 대화에서는 평화·화평=천황과 '영웅' 도조가 공존하고 있다. 자살이라는 가장 극단적인 선택보다, 자살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괴로움을 참아내며 살아있는 것이 더 극적이며 힘든 것이라는 역설을 전해주는 이 장면은, '영웅'에 의해서 구조되어야 하는 '더 슬픈 천황과 일본의 국체'의 관계가 잘 묘사되어 있다.

영웅인 도조는 죽기 직전까지 천황을 변호한다. 전쟁은 도조내각에서 결의된 것이며, 천황 히로히토의 의사에 반한다. 통수부의 진언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전쟁을 감행했다. 스가모 형무소에서 가쓰코에게 "수감은 내 영혼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것으로 내 할 일은 다 끝났다. 폐하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물론 이러한 영웅상이 고정된 것은 아니다. 스가모 형무소에서 불교에 귀의한 도조가 "불교에 비하면 지상의 제왕은 작은 것"이라고 말하는 장면, 교수대로 가는 동안 끊임없이 나무아미타불을 반복하는 장면은 천황을 '세

속의 존재로 상대화하는 일면을 갖기도 한다.

『프라이드 운명의 순간』에는 독재자가 되어야만 충신과 영웅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어 있다. 즉 일부러 천황을 거역하여 전쟁을 시작한 역신이 됨으로써 도조는 일본과 천황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다. 이때의 도조는 원령으로 떠돌아야 할 만큼 외롭고 쓸쓸한,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충성스럽고 비장한 영웅상을 갖게 된다.

“천황의 명령을 거역하여 전쟁을 시작했다고 말해야 합니다”

“내가 천황의 명령을 거역한다고?”

“일본국민이 천황의 의사에 반하여 전쟁을 시작할 수는 없다고 말하게 되면, 결국 천황폐하가 전쟁을 시작한 것이 됩니다. 폐하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도조는 절규한다, 필자)

“결국 역신(逆臣)이 되라는 의미로군”

“마지막으로 의지할 곳도 잃어버리게 되는거군. 神이라고 숭앙해온 천황폐하를 내가...?” “자결하는 것도 불가능하군”

“용서받지 못하는 나는 원령(怨靈)이 되라는 이야기로군”

(결심한 듯)

“전장에서 죽어간 수많은 장병들의 뜻을 지키기 위하여 폐하와 국체를 내가 지킨다”

V. 마치며: 비극의 ‘정치’

‘영웅’이 영웅일 수 있기 위해서는, ‘시세’에 따른 각성이든, ‘각성’이 시세를 반영한 것이든, ‘수동적’이지 않은 ‘주체적’인 결단을 필요로 한다. 즉 영웅은 ‘주체적 결단’의 과정을 통과한 이후, 시대에 대한 사명감을 자각하고, 매진함으로써 영웅화 될 수 있는 것이다. 영웅은 또한 시대를 앞서가야 한다는 점에서 간신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 죽음과 직면할 수 있는 각오 자체가 앞으로의 시대를 예언할 수 있는 성격을 갖게 될 때, 바로 그때의 죽음이 참으로 영웅적인 죽음이고, 죽임을 당한 사람을 ‘영웅’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도조 히데키에 관한 전후의 소설과 영화의 각 장면이 남기는 여운은, ‘주체적 결단’과 ‘시대’라는 보편성을 경과한 자각이 아닌, 화평을 추구하는 ‘천황’의 이미지와, 이 천황을 신앙하는 너무나 ‘인간적’인 도조상 뿐이다.

요컨대 전후의 소설과 영화는 천황을 한 지점에 고정시켜 두고, 다른 한 지점에 도조의 사명을 천황을 ‘위하’여에 고정시켜 두려히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조가 때로는 독재자로서, 때로는 영웅으로서, 또 때로는 불교자로서 그려졌던 것처럼, 도조를 축으로 한 천황의 이미지 또한 ‘화평’에 고정될 수만은 없을 것이다. 또한 ‘책임자’와 ‘결정자’가 어느 순간 ‘영웅상’과 ‘화평’ 속에 의해 묻힘으로써, 마루야마 마사오가 말하는 ‘무책임의 체계’가 강력하게 구축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전후의 일본의 소설과 영화에 등장하는 도조는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려짐으로써, 소설과 영화 자체를 성립시키고는 있지만, 소설 및 영화와 다른 현실속에서의 ‘인간’의 죄악을 숨기거나 애매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영화의 첫장면이 1930년대의 중국에서의 도조가 아닌 데키가이소의 도조가 되거나, 『프라이드 운명의 순간』이 그려졌던 것처럼, 퇴임 이후의 도조가 된다면, 극적인 효과는 뛰어날지 모르지만, ‘인간’ 그 자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힘들다고 생각된다.

도조가 아닌 도조와 일본에 의해 핍박을 받았던 식민지와 식민지인 혹은 점령지와 점령지의 ‘인간’이었다면, ‘인간적’이고 ‘비극적’인 ‘영웅 도조’라는 메시지에 그저 감동하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일본에서의 도조와 전후에 대한 ‘피부감각적인 묘비명’이라는 인식은 너무 강렬하다.

천황을 보호하며 전쟁의 전책임을 혼자서 짊어지려 했던 도조가, 포로학대로 처형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요컨대, 이는 연합국이 피부감각적(皮膚感覺的)으로 말한다면 미국이 도조 히데키에게 부여한 묘비명이었다.(강조는 有馬) 쇼와 23년 11월 12일 저녁무렵, 나는 정원의 낙엽을 쓸어모아, 모닥불을 피우려 하였다. 그때 나의 귀에 라디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이치가야법정의 판결장면에 대한 라디오 중계방송이 들렸다. 나는 빗자루를 버리고, 쫓으려 하는 것은 가장자리에 허리를 앉혔다. 'death by hanging'이라는, 태어나서 처음 듣는, 불길한, 무감동적인 웹재판장의, 약간 새된 목소리였다. 그 소리는, 어딘가 먼 곳에서, 뒀가를 통해서 들려오는 목소리 같았다. 그 거리만큼이나, 우리들의 힘든 세월이 있었다. 이로써 끝났다. 그러나 정말로 끝난 것일까라고 나는 생각했다.(有馬 pp.111-112)

이러한 잿빛의 이미지가 문학과 예술을 넘어 현대 일본의 '정치'의 본질을 구성하고 있는 것 같다.

【参考文献】

- 東條由布子・福富健一『東條英機の中の仏教と神道』, 講談社, 2010
 『東條英機-皇国の殉教者-全てを背負って死んだ男』 宝島社 (2007
 別冊宝島編集部『東條英機』, 宝島社, 2008
 丸山眞男『丸山眞男集』 전17권, 岩波書店, 1995.9-1997.3,
 佐藤早苗『東條英機 [わが無念]』, 河出文庫, 1997
 上丸洋一『『諸君!』『正論』の研究』, 岩波書店, 2011
 秦郁彦『統帥権と帝国陸海軍の時代』, 平凡社, 2006
 太田尚樹『東條英樹 阿片の關 満州の夢』, 角川学芸出版, 2009
 福富健一『東條英樹天皇を守り通した男』, 講談社, 2008

〈주된 연구대상인 소설과 영화〉

- 有馬頼義「左利きの独裁者-東条英機の悲劇」(1971) (『時代小説大全集 人物日本史 昭和』, 新潮社, 1991
 松田十刻『東条英機-大日本帝国に殉じた男』, PHP, 2002
 『大日本帝国』, 1982
 『プライド・運命の瞬間』, 1998

〈기타 영화〉

- 『大東亜戦争と国際裁判』, 1959
 『皇室と戦争とわが民族』, 1960
 『激動の昭和史 軍閥』, 1970
 『トラ・トラ・トラ!』, 1970
 『戦争と人間 第三部 完結編』, 1973
 『スパイ・ゾルゲ』, 2003
 『南京の真実』第一部「七人の死刑囚」, 2008
 『東京裁判』, 1983

유지아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본 논문은 도쿄 히데키에 대한 표상에 대한 연구이다. 도쿄 히데키는 한국에서보다는 일본에서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라는 이미지로 더욱 많이 표상화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도쿄에 대한 연구는 근대 일본의 제도와 정치 측면에서 접근하여 한 인간이 아닌 정치가로서, 군인으로서 재검토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제기되는 문제의식은 첫째, 도쿄 히데키와 육군중심 인물만이 전적으로 전쟁에서 부정적인 존재인가라는 점이다. 이 부분은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영화에서 표현하고 있듯이 천황을 화평을 추구하는 평화주의자라고 해석하는 경우, 도쿄는 독재자가 되지 않을 수 없다는 도쿄 히데키와 천황의 전쟁책임을 제로섬게임을 분석하고 있는 논리와 관계가 깊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도쿄 히데키의 지도자로서의 성향 즉 자질과 근대 정치 및 군사형태에서의 위치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는 당시 제도적인 명확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야마가타 아리토모로부터 시작된 통수권의 독립성과 정치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소설이나 영화 속에서는 도쿄에 대한 표상에서 어떠한 점에 주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문제의식이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도쿄에 대한 표상의 현재에 대해 도쿄 히데키를 천황과 함께 무책임의 체계의 중추에 위치시키면서 전쟁과 패전의 근원인 주체성을 자각하지 않는 중속된 심리가 있으며, 이것은 마루야마로 대변되는 '회한의 공동체'로 인해 비판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도쿄에 대한 무책임의 체계는 언제, 왜 형성되었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소설에서 표현하고 있는 도쿄 히데키에 대한 '고결하고' '평범한' 이미지는 무엇을 위한 장치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소설이 역사를 다룰 때 제기되는 진실성과 의도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즉 소설이 쓰여진 시기와 배경 그리고 의도를 같이 분석하여야 그 속의 도쿄상이 보다 명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도쿄는 정치적인 인물이다. 개인의 성향과 자질이 어떠했든 도쿄 자체를 다루는 것 자체가 당시의 정치와 전쟁을 다루는 것임에 틀림없으며, 나아가 현재의 정치와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즉 역사적 인물의 이미지, 표상은 정치성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영화 '대일본제국'에서 그려진 도쿄의 표상이 GHQ에 의해 만들어진 악의 상징으로서의 도쿄의 이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영화 '프라이드 운명의 순간'은 이와 반대되는 인간적인 이미지의 도쿄를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 표상의 전환 또는 변화 이전에 정치성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소설, 영화들에 대한 인식과 영향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

가 있다. 당시 어떤 계층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읽혀지고 상영되었는가 또는 관심의 대상이 되었는가 하는 점은 앞에서 언급한 이미지, 표상의 정치성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작품의 해석이나 평가가 당시 사회상을 반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작품을 모두 읽거나 보지 못하고 토론을 하는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며, 도조에 대한 표상 연구에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종합토론

사회 - 박용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어대학)

토론 - 정형, 서재곤, 김성연, 길윤형, 노병호

지정토론 - 임용택 (인하대학교 일본언어문화)

장신 (역사문제연구소)

이형식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유지아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